

성도의 벗

1990 / 1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9차 반 연차 대회 보고

1989년 9월 30일~10월 1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질차

“나 는 교회의 연로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 및 필요 사항을 돌보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159차 반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말씀하셨다.

이어서 벤슨 대관장은 연로한 회원들이 여생을 가장 가치있게 보낼 수 있는 여덟 가지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셨다. (1) 성전에서 봉사하고 자주 참여한다. (2) 가족 역사를 모아 기록한다. (3) 선교 사업에 참여한다. (4) 가족을 단합하는 데 앞장선다. (5) 교회 부름을 받아 충실히 수행한다. (6) 앞날의 재정 계획을 세운다. (7)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한다. (8)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한다.

벤슨 대관장은 연로한 회원의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가족들이 나이든 부모와 조부모에게 사랑과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합니다. …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돌보아 함을 기억하십시오. …

“또한 우리를 양육하면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아는 최선을 다하신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든 분들의 신권 지도자들이 그분들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필요 사항을 알고

충족시켜 주는 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속삭임에 민감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보좌들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가정 복음 교사들, 방문 교사들을 이용하여 이 큰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임무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벤슨 대관장이 이들 동안 열린 대회를 감리하셨다. 대회 모임은 대관장단의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과 대관장단의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사회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중대한 행정 조치로서 렉스 디 피네가 장로 및 칼로스 이 애시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받았으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여덟 명에게 명예 회원의 직위가 주어졌고,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 여덟 명이 명예롭게 해임되었다.

“197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몇 분의 총관리 직원들에게 총관리 명예 회원의 직위가 주어졌습니다.”라고 힝클리 부대관장이 말씀했다. “그후로 총관리 직원들 중에서 어느 분들이 때때로 명예 회원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발표도 그때 있었습니다.

“오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여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회원으로서는 디어도어 엘 버튼 장로, 로버트 엘 심슨 장로, 빅터 엘 브라운 장로, 폴 에이치 던 장로,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로이든 지 데릭 장로, 렉스 시 리브 장로를 지지하고…봉사에 감사를 표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어서 힝클리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98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제이 정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최초의 회원들은 5년 임기의 부름을 받고 봉사하는 총관리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러셀 시 테일러 장로, 로버트 비 하버슨 장로, 디비어 해리스 장로,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장로, 필립 티 손태그 장로, 소넨버그 장로, 에프 아더 케이 장로, 키드 더블류 윌콕스 장로를 해임하며 이 장로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와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및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지지받았으며, 본부 청년 회장인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의 보좌로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가 지지받았다.

대회 진행 과정은 영어와 기타 15개의 언어로 인공 위성 및 다른 통신 매체를 통해 전세계에 방영되었다. 생중계 및 녹화 중계가 아직까지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대회 비디오 테이프가 보내졌다. —편집인.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앤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휴 더블류 피콕,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제283권, 제26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0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평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9001KO
Printed in Korea 1/90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나와 있다.

가족...벤슨, 넬슨, 손넨버그

간증...젠슨, 케이, 손넨버그

감사...아이어링, 스코트, 헤이트

개척자...옥스

결심...힝클리(일요일 오전)

결혼...백맨, 힝클리(여성 대회)

겸손...젠슨, 독시

경건 공부...라슨, 독시

계시...파우스트, 패커, 스코트, 헤이트

구원의 계획...힝클리(일요일 오전), 그래슬리

기도...아이어링, 스코트, 라슨, 케이

노인...벤슨

모범...넬슨, 크리스티슨, 몬슨(신권),

힝클리(신권), 라슨, 옥스,

몬슨(일요일 오전), 페리, 위스런,

브라운

목표...위스런

봉사...벤슨, 헨슨, 젠슨, 크리스티슨,

몬슨(신권), 힝클리(신권), 라슨,

옥스, 몬슨(일요일 오전), 페리,

위스런, 브라운

불평...맥스웰

사랑...벤슨, 홀런드, 몬슨(일요일

오전), 페리, 델린

사명...백맨, 벙크스, 크리스티슨, 페리

선교 사업...벨라드, 몬슨(신권),

힝클리(일요일 오전), 페리, 손넨버그

성신...아이어링, 패커

성약...독시

성전...브라운

성찬...헤이트, 라슨

순결...백맨

순종...헌터, 아마도, 애쉬튼, 벙크스,

크리스티슨, 헤이트, 맥스웰, 독시, 그래슬리

신권...힝클리(신권)

신앙...헌터, 넬슨, 아마도, 스코트,

애쉬튼, 옥스, 브라운, 케이,

손넨버그, 잭, 힝클리(여성 대회)

안식일...라슨

여성...넬슨, 독시, 그래슬리,

힝클리(여성대회)

역경...아마도, 벨라드, 페리, 맥스웰

영성...라슨, 위스런, 그래슬리

예수 그리스도...홀런드, 헤이트,

위스런, 델린, 그래슬리

예언...파우스트, 손넨버그,

힝클리(일요일 오전)

외로움...몬슨(일요일 오전)

용기...애쉬튼, 옥스

용서...백맨, 옥스

인내...벤슨, 홀런드, 애쉬튼, 위스런

자기 가치...몬슨(신권), 잭

자비...벤슨, 헨슨, 홀런드, 몬슨(신권),

몬슨(일요일 오전)

자유意志...헌터

재활동...델린

준비...벙크스

지도력...파우스트, 패커, 홀런드,

힝클리(신권), 위스런, 델린

지혜의 말씀...패커, 힝클리(신권)

책임...힝클리(일요일 오전)

청소년...위스런, 브라운, 델린, 잭,

그래슬리

축복...아이어링, 케이

평화...페리

협동 교단...아이어링

회생...아이어링, 홀런드, 젠슨, 헤이트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9차 반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연로한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10 계속되는 계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 14 기억하고 감사함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 18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계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21 선택의 금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4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25 여성-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러셀 엠 넬슨 장로
- 29 사랑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 31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33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함
말린 케이 젠슨
- 36 역경을 극복함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 38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방법을
배움
리차드 지 스코트
- 42 의무, 보상 및 모험
엠 러셀 벨라드

신권 모임

- 45 "당당하고 용감하게 서서"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 49 순결 : 참된 성품의 근원
로버트 엘 백맨 장로

52 준비의 중요성

- 벤 비 벅크스 장로
- 55 훌륭한 추억은 참된 축복임
조 제이 크리스티슨 장로
- 57 중요한 봉사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 62 불법 마약의 재앙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8 만방에 기를 세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72 성찬-희생 제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75 우리 영의 시계에 태엽을 감음
던 엘 라슨 장로
- 78 오늘날의 개척자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83 창문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 87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자"
엘 톰 페리 장로
- 90 여러분의 마라톤
조셉 비 위스린
- 94 배움의 한 평생
빅터 엘 브라운 장로
- 96 양들과 함께 보낸 여름
제인 비 델런

일요일 오후 모임

- 98 신앙을 지키라
에프 아더 케이 장로
- 100 구세주를 바라보라
존 소넨버그 장로
- 102 "불평하지 말라"
널 에이 맥스웰 장로

여성대회

- 106 마음 속에 거룩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112 청녀의 진정한 모습
엘레이 엘 잭 자매
- 116 그 분을 기억하십시오.
조안 비 독시 자매
- 120 그 분을 따르십시오.
미셸린 피 그래슬리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124 하나님을 찬양하여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126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 130 교회 및 지역 소식

연로한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생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이 노년기가 여러분의 최상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돌봐주는 사람들 즉,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동료 및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영광스런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영과 도움을 느끼며,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는 교회 총관리 역원들의 영감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고대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지지해주는 힘과 특히 나의 훌륭한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큰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최근 나의 90세 생일을 기억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나는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남 및 청녀, 독신 형제 자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들께 드리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교회의 연로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훌륭한 형제 자매들인 연로한 분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그들을 이해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 중에 나이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주님은 그의 가장 큰 책임 중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맡겨오셨습니다. 여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노년기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복음에 충실하여 온 사람들의 영감적인 인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노년에 있는 사라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마 베냐민 왕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그가 매우 늙어 죽음을 눈앞에 둔 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의 수중에 있는 도구로써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수세대를 걸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노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려 나아갔을 때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열 세대의 예언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칠십대나 팔십대 또는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바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노년층에 있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노년기가 아름답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나간 생애에 대한 기쁨과 즐거운 추억들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더 큰 기대로 가득찬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여생이 해야 할 일들과, 여러분과는 다르게 운이 좋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더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지혜와 경험이 계속 풍요로워지고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를 선용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성전에서 봉사하고 자주 참여하십시오. 좀더 나이가 든 우리는 우리의 힘을 조상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모든 후손들이 성전에서 승영의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일하고, 아직 가까이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대회장면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건강과 근력과 거리에 문제가 없다면 자주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성전 봉사를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아름다운 봉사를 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슨 자매와 나는 거의 매주 성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에서 참으로 큰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2. 가족 역사를 모아 기록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개인 및 가족 역사를 모아 기록하기를 권장합니다. 참으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개인의 역사와 사랑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여러분 자신이 곧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역사를 모아 기록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여러분의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3. 선교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선교 사업에서 나이든 선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좀더 수많은 부부들이 그들의 생활과 여건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선교 지역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여러 면에서 선교 사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미망인이 된 나의 두 여동생들이 영국에서 함께 동반자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68세와 73세에 부름받았지만 모두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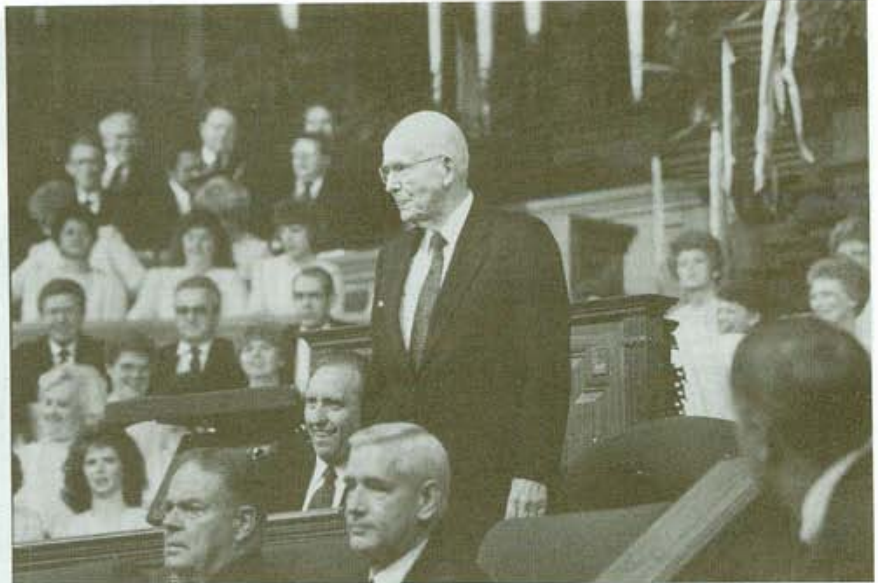
조부모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 그것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선교 사업을 나가는 대부분의 나이든 부부들은 선교 사업을 통해 강화되고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거룩한 봉사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결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알도록 인도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대 가족 물몬경 선물하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적은 물몬경들을 선교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4. 가족을 단합하는 데 앞장 서십시오. 우리는 모든 나이든 회원들이 가능한 때 가족을 함께 모을 것을 강조합니다. 각 가족을 결속된 단위로 조직하십시오. 가족을 모으는 데 앞장 서십시오. 우정과 가족 관계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가족의 모임을 만드십시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묶을 수 있는 훌륭한 가족 전통을 조성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하늘의 의를 각 가족내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생은 의로운 가족 생활의 연장일 것입니다.

5. 교회 부름을 받아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나이든 회원들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감독과 지부장으로 봉사하는 칠십대와 팔십대의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 온 여러분의 조인과 영향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성공담 즉 어떻게 마음의 고통이나, 낙담을 극복하여 그러한 경험을 통해 더 강하게 되었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위대한 사업을 행할 수



대회에 참석한 회중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벤슨 대관장님

있게 해주는 굳건한 복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면에서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충실한 봉사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해오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6. 앞날의 재정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은퇴와 그에 따른 생활에 접어들 때 우리 나이든 모든 사람들은 은퇴 후의 노년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빚을 지지 맙시다. 또한 가족일지라도 연금에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대부에 서명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노년기에 투자 계획, 집의 저장 설정 또는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생의 계획이 한 가지 또는 일련의 그릇된 재정적인 결정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찌기 여러분의 재정에 관한 앞날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르십시오.

7.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나이든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케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성 123:13)

평안과 기쁨과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베푸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베풀기를 바라지만 특히 그것은 나이든 분들의 생애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8.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걷는 것을 봅니다. 집에서 운동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마라톤에 참여하여 놀랍게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 단련을 위해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제 백 세가 된 명예 총관리 역원인 우리 사랑하는 조셉 앤더슨 장로님은 최근까지도 매일 1마일을 수영하곤 하십니다. 그 정도는

못되지만 나는 매일 열심히 걷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은 나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든 분들이 아직도 정정하고 활동적인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활동적으로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훌륭히 기능을 발휘합니다. 한 스테이크 부장은 그의 회원 중 한 사람이 80세의 생일에 수상 스키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때때로 거의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과 무용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언급한 여덟 가지 제안에 덧붙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활동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로운 어떤 사람은 결혼하게 되는 손자녀나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이불을 만들면서 바쁘게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일에 맞춰 편지를 쓰거나 할 수 있을 때 손자녀의 학교 운동회에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손자녀의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어 생일날에 줍니다. 우리는 미망인인 한 증조 할머니가 거의 30명의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지난 3년간 거의 오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 중의 하나가 "할머니는 개척자들과 함께 대평원을 건넜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망인들이 병원에서 간병인이거나 기타 지역 사회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돕는 가운데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과 무용하다는 느낌을 극복하는 열쇠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한발짝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를 베푸는 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무서운 고독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 더 낮게 느낄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병들고 고통에 시달리며 이 생의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리하이가 형들인 레이먼과 레뮤엘로 인해 고통을 받던 야곱에게 축복을 주며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성별하시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매"(니파이이서 2:2)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마음 가짐을 강하게 갖도록 노력하시길 간구합니다. 그것이 항상 쉽지 않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분들이 사랑과 은유함과 돌보아 주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계속 마음 속에 훌륭한 생각과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곧 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 시간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물론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주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축복을 날로 감사"드리십시오. (엘마서 34:38)

여러분이 매일 물론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고양되고, 여러분은 구세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위대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복음의 학생이 되게 해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분 동안 나이드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다음의 성구를 읽습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시편 71:9)

우리는 가족들이 나이든 부모와

조부모에게 사랑과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경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전서 5:8)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이 수년 동안 부모에게 보여준 사랑이런 관심에 감사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돌봐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나이든 회원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신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똑같은 사랑스런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든 분들의 가족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들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이후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은 수세기를 걸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들에게 높은 존경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행복과 복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부모의 의로운 소망과 바램에 순종하는 것은 공경의 일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경과 존경을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모는 우리의 유년기와 어렸을 때 돌보고 양육해주셨으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셨으며, 우리가 성장해서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을 때 우리를 간호해주시면서 항상 무한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며 부분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행하는 많은 것을 그들의 모범을 통해 배웠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감사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양육하면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한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 자녀들이 용서해 주길 바라듯이 우리 부모들을 용서하십시오.

부모가 나이가 드셨을지라도 가능한 한 선택의 자유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선택을 빼앗지는 마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노년기에 스스로 생활하고 돌볼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독립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 진다면 그때 가족, 교회 및 지역 사회에서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더라도 가능한 때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보살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지역 사회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돌보아주는 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도움과 지도가 크게 필요합니다. 대체로 이것은 나이든 배우자나 나이든 부모와 함께 자신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중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또한 가능하다면 가족 활동에 나이든 분들을 참여시키길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발랄하고 아름다운 손자녀들이 사랑하는 조부모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이들은 그러한 경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조부모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저녁이나 가정의 밤 또는 다른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돌보는 것을 가르치는 기회가 됩니다.

조부모들은 손자 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시간은 부모들처럼 바쁘게 쪼개여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복음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만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과 평안과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생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편지와 테이프와 사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부모와 다른 나이든 분들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훌륭한 동반자 관계 및 연관을 갖게 됩니다. 졸업식, 결혼식, 성전 방문 여행, 선교사 환송 및 귀환 모임 및 기타 가족이 함께 하는 특별한 행사에 그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및 손자녀들이 성공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성장하고 특별한 면에서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노력하여 성취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요한3서 1장 4절에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러한

것을 알 때 우리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사랑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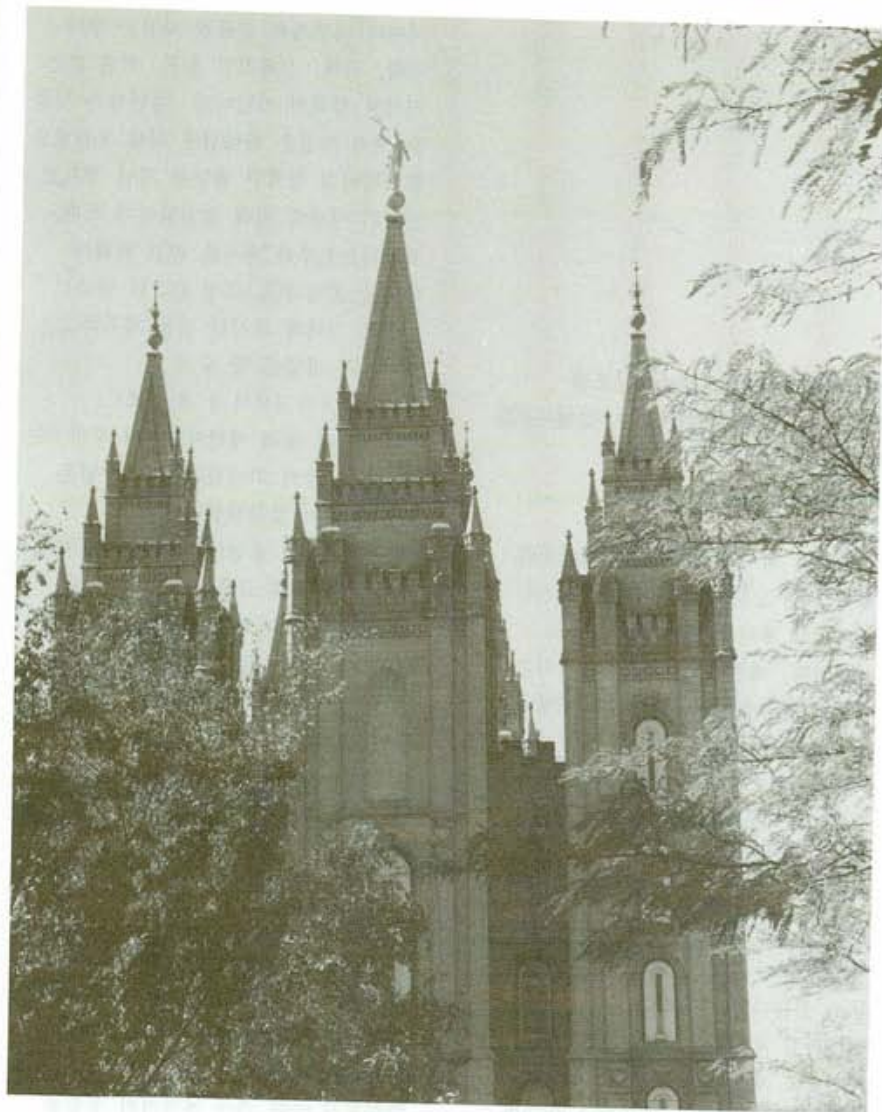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나이든 분들의 신권 지도자들이 그분들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필요 사항을 알고 충족시켜 주는 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속삭임에 민감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보좌들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가정 복음 교사들과, 방문 교사들을 이용하여 이 큰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임무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나이든 분들의 지혜와 조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름을 그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곳에서는 각각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상이나 가정에서 요양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전화나 편지나 기타 특별한 임무를 통해 이러한 돌보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는 그들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개인이나 부부들



헝클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부대관장이 대관장님과 함께 입장함.



돕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성전 성명 초출 프로그램과 복지 프로그램은 노년층에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는 사람들에게 의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든 개인이나 부부들에게 세심하고 주의깊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가 지명되기를 바랍니다.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큰 평안함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 사항을 알고 해결하는 데는 세심하고 신중하게 다른 사람의 느낌을 생각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선 봉사 임무에 따라 살고

있는 노인들을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또한 스테이크 및 와드 사교 활동에 참여시키십시오. 특히 독신이거나 의존하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십시오. 너무 많은 경우 그들이 잊혀졌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시 사랑스런 관심이 주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그때 매우 민감해 집니다.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계속 돕고 있는 가족에게 잠시 도움을 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며 고마운 일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병으로 인한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일정 기간 자유를 갖게

해줌으로써 가족이 그 책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심각한 병이나 문제로 인한 과도한 책임을 지닌 사람에게는 사랑스런 도움과 보조가 필요합니다.

교통편도 나이든 사람에게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일학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병원에 가도록 차편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나이든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항상 개인과 개인의 필요 사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나이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나도 여러분 중의 한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생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이 노년기가 여러분의 최상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돌봐주는 사람들, 즉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동료 및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나는 삶의 기쁨, 즉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기쁨과 연단하는 분의 불로 성별케 되는 과정을 통해 오는 기쁨에 대한 나의 간증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여러분을 축복해 드립니다. 구세주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나를 바라 보고 끝까지 견딜진대 너희가 살 것임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허락하겠음이라."(니파이삼서 15:9) 주님이며 구세주의 말씀에 나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계속되는 계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교회의 대관장이 우리 모두를 위해 교회의 계시자로서 인도를 받으시리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그가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권고를 따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특별한 부분인 신성한 계시로 알려진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지상에 있을 때마다 계시로써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설교집, 24:240) 나는 먼저 하나님의 영감은 합당하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히 성신의 온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교회의 회원 개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은

개인적인 계시와 구별되는, 예언자를 통해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언할 책임과 특권을 지녀 왔으며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 부모 및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관련된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의무도 권리도 없습니다.

나의 말씀은 신앙개조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할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과거의 계시

첫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언자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이러한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을 지고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일치되어 오신 예언적인 대변인들입니다. 모든

세대의 예언자의 중요한 자질은 부나 직함, 직책, 신체적인 용모, 학위 또는 지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갖추 두 가지 자질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고 합법적이고 영적인 권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 의해 성임되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정 42:11 참조) 인간은 그에게 계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야고보서 4:8 참조)

수세기를 통해 예언자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는 조금씩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자에게는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나도 너희를 시험하여 이로써 너희를 증명하리라”(교정 98:12)

계시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그 방법 중에는 아마 가장 보편적인 성신의 인도나 음성에 의한 방법이나 거룩한 사자의 방문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계시

신앙개조의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믿는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보다 돌아 가신 예언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계시자는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1823년부터 1843년 사이의 단 20년 동안 134개의 계시를 받아 출판하여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 89명의 사도들이 각각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관장으로 요셉을 계승한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운영하고 계구실을 다하게 했던 그러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존경하는 예언자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인도하에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고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46년 동안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지받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지상에서 전임 사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성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받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를 도울 두 분의 영감받은 보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지상의 모든 신권을 관리하시는 관리 대제사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교회의 머리되시며 종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에 왕국의 모든 열쇠를 갖고 행사하고 계십니다. 심이사도 정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관장단에서 그분은 훌륭한 두 보좌의 도움을 받으며 이 사업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나는 이 교회의 회원들이 지상에서 살아 계신 예언자인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하지 않고는 구세주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든간에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오래 전에 돌아 가신 예언자들만을 전적으로 따름으로써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믿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살아 계신 예언자를 비난함으로써 그들이 좀더 중요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생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에게 밝혀지는 하늘로부터의 계속적인 교통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계시는 1918년에 주어진 교리와 성약 138편으로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장 위대한 계시 중의 하나가 1978년에 주어져 신권과 성전의 축복을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으로 새로운 지식과 지시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계시에 의해 칠십인은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일반적인 교회 행정에서 대관장단과 심이사도를 도와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하는” 보다 넓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성 107:34) 다른 많은 가르침이 또 주어졌습니다. 과거처럼 오늘날에도 주어진 많은 계시가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교회를 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계시들이 장관을 이루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계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며, 노아에게 주어진 계시는 룻에게 소돔을 떠나도록 말하지 않았으며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에 대해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계시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밀레니얼 스타, 1947년 11월 1일, 323페이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 회원이 단 6명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육백만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 교회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차이에는 영화, 컴퓨터 및 인공위성 중계와 같은 현대의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에 선교 사업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성전의 위치와 건물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계시가 계획해서 교회에 주어집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슴속에 있으며 그의 종들인 예언자들이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매일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설교집, 14:33)

이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미래의 계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신앙개조 제9조의 매우 고무적인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증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계시는 교회의 계속적인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온 대회 방문자들이 헤드폰을 사용하여 통역이 되고 있는 대회 말씀을 듣고 있음.

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지금도 조직되고 있습니다. 빛과 지식이 주어지고 예언들이 성취되며 좀더 많은 지혜를 받게 될 때 또 다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거룩한 성전,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0년, 137페이지)

이 교회는 머리되시는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 큐 캐논 부대관장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물론경, 교리와 성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대변자와 주님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계시가 없다면 이 모든 경전들만으로는 어떤 사람도 해의 왕국으로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 이것이 이상한 선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참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경전들은 높이 존중되어야 하며 아주 세심하게 읽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전 자체나 경전이 주는 빛만으로는 인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렇게 인도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신권과 사람들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계시가 필요합니다.”(복음 진리, 물론 고전 문학 전집, 제럴드 엘 뉴퀴스트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7년, 252페이지)

언제 이 약속된 계시가 주어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필요에 따라 계시가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이 지속적인 계시는 사람들이나 사건으로부터의 외부 압력에 의해 강요되지도 않을 것이며 강요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연차 대회가 열리는 템플 스퀘어에서의 태버넌클

“사회적인 과정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에 있는 예언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팔리 피 프렛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율법을 만들고, 판단하고, 모든 결정을 내릴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계시하시며, 역원들을 뽑고 선택하시며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뜻에 따라 그들을 벌하시고, 고쳐주시거나 심지어는 없애버릴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그의 교회 사이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1845년 3월, 150페이지)

우리는 교회의 대관장이 우리 모두를 위해 교회의 계시자로서 인도를 받으시리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그가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권고를 따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스테반 엘 리차즈 장로는 이 교회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대관장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곳 지상에서의 대관사들입니다.

“그들의 기능과 위임된 권세를

행사하는 데 있어 그들은 일부는 명문화되어 있고 일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법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명문화된 부분은 고대와 현대에 유효한 경전과 말일의 예언자들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명문화된 부분은 그들의 부름에 필요한 계시의 영과 신성한 영감입니다.

“대관장단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시에 의해 교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돕도록 지명받은 심이사도 평의회와 상의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원들에 의해 결정되어 공포될 때 개개인이 상반된 의견이 있다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율법과 질서의 왕국입니다.”(대회 말씀, 1938년 10월, 115~116페이지)

약속된 대로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결코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조셉 필딩 스미스, 연사인 1972년 7월호, 88페이지 참조) 한 가지 대답이 교리와 성약 107편에 있는 원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의 어느 정원회가 내린 결정은 다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교성 107:27) 이러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편견과 선호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
관리하시며 대다수나 타협에 의한
인간을 통해 하시지 않음을 확신케
해줍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훌륭한
지혜와 경험이 계시된 지시에 대한 깊고
분명한 인상을 받기 전의 결과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점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들 중의 한 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을 결정할
책임은 단지 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이 루우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신에 의해 감화될
때에만 연사들이 성신에 의해 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데이비드
에이치 안 이세, 제이 루우벤 클라크
편집; 종교, 교육 및 청소년에 관한
선정된 기사들, 프로보 유타: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부, 1984년, 95~96페이지)

이것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권고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너무 신뢰하는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지 그분께 스스로 물어보려 하지
않으려는 것을 좀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무분별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손에 맡기려 하면서
명목적인 자기 안위의 상태에
주저앉을까봐 두렵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며
그들이 지도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 올바른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도와 줌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주님이 계시하는 좁은 길을
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합시다."(설교집, 9:150)

이 교회를 세우는 데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계시는 교회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회 방문자

계시는 흐르는 물과 같이 생생하게
주어집니다. 계속되는 계시는 교회를
종착지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크 부대관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 많은 다른 예언자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들을 귀"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대회
보고, 1948년 10월, 82페이지)

우리는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들이
완전무결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을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가장 높은 평의회에 앉아 영감이
주어지고 결정이 내려질 때 참여하는
분들은 이 빛과 진리가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사고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오하고 거룩한
느낌들은 하늘로부터 이슬처럼 내려와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단합과 일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들이 개인적으로는
불완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응답하며 주님이
지명하신 대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기억하고 감사함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관리 감독단 제1보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의 많은 분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안하기 위해 병원이나 집에 찾아가지만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을 위안하는 경험입니다. 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누군가를 격려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경우입니다.

손해를 입고 화를 내야 할 경우에 감사와 자비함을 찾는 행위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잃었다고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축복이

거절되었다고 성을 내는 경우들입니다.

어떤 시에 그러한 비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다른가”라고 불립니다.

어떤 사람은 청명하고 맑은 하늘에 어두운 구름 한 점 나타나면 불평을 하고 있네 하지만 어두운 밤에 단 하나의 빛 즐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함과 사랑으로 온 마음을 채우는 사람도 있네.

(리차드 체네빅스 트렌치, 시작 참고서, 그랜드 레피즈, 미시간 : 존더반 퍼블리싱 하우스, 1968년, 396페이지)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사함과 관대함을 늘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한 백성으로 서로의 선을 추구하며 하나로 생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환경에서 하나로 생활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한 예에 대한 이야기는 유타주 울더빌에서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울더빌은 1870년부터 1871년 사이에 협동 교단에서 생활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졌습니다. 1875년에 그들은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하나의 공동 거실이 있는 여러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상점,

제화점, 제과점, 대장간, 가죽 공장, 학교, 양우리, 모사 공장 등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발전하여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즉 비누부터 바지까지 거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목수, 조산원, 교사, 예술가 및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양을 생산했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 팔기도 하여 좀더 많은 땅과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마을 금고를 세웠습니다.

인구는 늘어 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150명이 울더빌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머디리버에 있는 선교부로부터 울더빌로 왔었습니다. 머디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해임됐을 때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그 가족 중 24명이 롱빌리로 가서 울더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가장 크게 헌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거의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앞으로 갖게 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즉 울더빌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음식이나 의복 또는 집도 머디에서의 궁핍과 비교하면 값진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기차가 들어오고 금광업의 성장으로 이웃 마을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입한 의복을 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울더빌의 사람들은 수년 동안 그들이 지냈던 것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면서 머디에서의 궁핍했던 기억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웃 마을의 새로운 생활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구식이며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피많은 소년이 아직 바지가 낡지 않았기 때문에 울더빌 공장으로부터 새바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보였습니다. 그는 은밀히 잘려진 양의 꼬리를 모아 양털을 베킨 후 자루에 모았습니다. 양털을 팔러 니파이에



대관장단, 우로부터 제1보좌 험클리 부대관장, 벤슨 대관장님, 제2보좌 본슨 부대관장

보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자루를 가지고 가서 상점에서 바지와 바꿨습니다. 그는 다음 무도회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바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협동 교단의 책임자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소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소년을 모임에 참석시켜 바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창의력을 칭찬했으며 그 바지는 협동 교단의 것이라고 지적하며 바지를 뺐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지를 분리하여 본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제부터 울더빌 바지는 새로 상점에서 사온 바지 스타일이 될 것이며 처음 만든 바지를 그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바지 개혁이 조용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바지 주문이 재단부에 쇄도했습니다. 바지가 아직 남지 않아 주문이 거절당하면 소년들은 분말기에 바지를 문질러 댔습니다. 바지는 곧 닳아 없어졌습니다. 어른들은 항복하고 양털을 주고 바지와 교환했으며 새로운 스타일의 바지가 모든 사람에게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결말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 교단에서

생활했던 10년 동안 울더빌은 수많은 문제를 당면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결코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머디에서의 궁핍함을 잊었듯이 우리도 아무 것도 없이 왔었다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간에 너무나 쉽게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을 잊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지에서 아직 무엇을 갖지 못했는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문제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경 기록에 있는 일단의 무리들은 그들의 가축과 땅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존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엘마서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이 극심하여 거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저들이 완악하고 가증한 까닭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심판이라 믿게 되어, 저들의 임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느니라.”(엘마서 4:3)

죽음이나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면 기억을 되살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다른 방법,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라는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그의 백성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가 티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케 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은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며 용서는 끝없는 행복속에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의 가르침은 기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은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감사함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베냐민 왕은 만약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의 잃은 것과 얻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미 내가 이른대로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며, 그 사랑을 맛보며 너희 영육을 그토록 기쁘게 하는 죄사함을 얻었거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합당치 아니한 너희를 대함에 선하시며, 오래 참으심을 항상 기억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사의 입으로 전하여진 장차 오실 이를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을 늘 기억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항상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며 언제라도 죄 사람을 받을 것이라 또한 너희를 지으신 이의 영광, 곧 공의로우시며 참되신 이의 영광을 더욱 더 알게 되리니.”(모사이아서 4:11~12)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구세주께서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오는 기억의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

성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은 축복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성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도로 그것을 시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성 59:7)는 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한때 말일성도들의 가장 큰 죄중의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큰 죄로 가르쳐 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동안 더 많은 축복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함을 더 많이 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하나님, 가족, 나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199페이지)

여러분은 오늘 성신의 은사가 함께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축복을 세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한다면 성신의 은사로 여러분은 다른 축복들에 대한 기억이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 것입니다. 기억이 날 것입니다. 감사함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의 책에 기록을 할 때 같은 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은 태초부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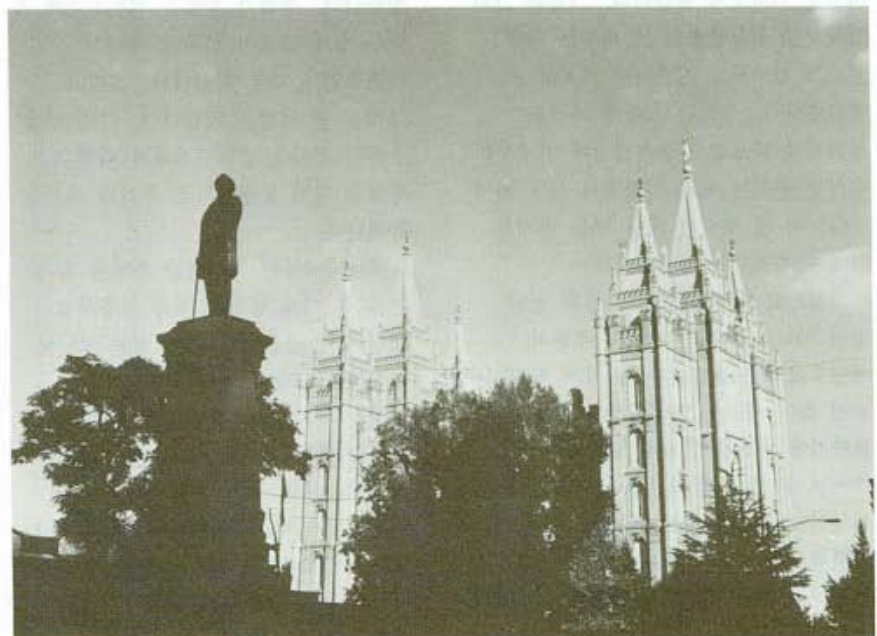
“아담의 언어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나니, 이는 영감의 영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음이라.”(모세서 6:5)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영감받은 기록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기억의 책을 적는 사람들은 자신의 매일 생활에서 좀더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일지는 자신의 축복을 세어보고 이러한 축복의 보고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한 방법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2년, 349페이지)

여러분이 기록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만약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오래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날 동안 알지 못했던 은사가 생각이 나게 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생활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중에 가장 큰 은사를 기억할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은 성찬이 집행되는 모임에



브리검 영 대관장의 동상, 솔트레이크 성전을 배경으로 뚜렷이 드러나 보임.

갈 것 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를 기억하며”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것을 간청할 수 있고 성신이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메리온 지 롬니 회장은 기억하는 것을 도와 줄 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함을 표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중요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며 구속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 우리는 영원히 감사드려야 할 빛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나약한 필멸의 인간이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견디신 고통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엔사인, 1974년 6월호, 3페이지)

나는 여러분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셨으며,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해 주셨으며 오늘날 그것이 지상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지금 그 열쇠를 갖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녹의 성의 백성들처럼 하나가 되어 생활하리라는 것을 아직도 믿습니까?” 그는 마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더이상 믿지 않을 것처럼 아직도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은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여러분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권의 종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왕이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관대함의 씨가 되는 감사를 낳는 씨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축복, 즉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뒤에는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시는 것이라. 이 성신이란 보혜사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나니, 성신으로 기도할진대 이 온전한 사랑은 마지막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때까지 깃들어 있으리라.”(모로나이 8:26)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곳으로 인도해 줄 간단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대속의 은사와 성신의 은사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걸음으로 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 방문자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계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조직 또는 절차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계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불변이지만 방법 또는 절차는 변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간단한 의식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신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런 후에 모든 사람, 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이들까지도 일생 동안 그들의 생활에서 자신을 인도해줄 영감적인 지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엘머서 32 : 23 참조)

성신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보다는 마음을 통한 영적인 면으로 교통을 합니다. 이러한 인도는 인상과 속삭임을 통해 생각 및 느낌으로 주어집니다. 영감을 설명하기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통의 내용은 듣기 보다는 “느낄 수” 있으며, 육안으로 보다는 영안으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의 형태는 극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감의 음성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환상에 사로 잡히거나 신앙이 깊은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는 그것보다 더 조용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물문경은 “천사가 성신의 권세로 말한다”(니파이서 32 : 3)고 가르치며 천사가 몇몇 사람에게 말했을지라도 “마음이 무디어져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파이일서 17 : 45)

여러분이 영감을 경험하셨다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영을 돕는 도구입니다. 놀라운 계시인 지혜의 말씀은 육신을 무디게 하며 파괴까지 시킬 수 있는 불순함으로부터 영적인 교통과 관계가 있는 섬세한 육감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개인적인 계시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칙”으로 주어졌습니다. (교성 89 : 3)

그 약속이란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만일 우리가 습관화되는 것으로 우리 육신을 학대하거나 마약을 오용한다면 영적인 교통의 빛을 막는 커튼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습관성 환각제 복용은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통하는 통로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악마의 계획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마는 불공평하게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독증은 인간의 의지를 단절시키고 도덕적인 자유를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할 힘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탐구와 필요하다면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통해서라도 환각제 중독을 일으키게된 같은 방법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힘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진실한 소망이며 간구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인간의 육신에서 중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단지 인간의 고통이나 인간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세대를 통해 싸워온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및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피로 대가를 치른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지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열심히 간구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으로써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갑옷이 되며 개인적인 계시의 통로를 막는 습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들이 대부분의 주의를 끌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필멸의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누룩과 같습니다. 양은 매우 적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자인 대관장님과 사도와 예언자와 선견자 및 계시자로 성임받으신 분들은 계시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계시는 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교성 1:20)

모든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성 46:7 참조) 악마는 그러한 계시의 통로로 흉내를 내며 우리를 오도하고 혼동케 할 수 있는 상충되는 신호를 보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교묘히 위장했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까지도 속이는 악마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2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이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질서의 집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시는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교회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관리 직분에 성별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계시는 올바르게 부름받고, 지지받고, 성임 또는 성별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감독은 이웃 와드에 관한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의 관할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부름받고 성별받지도 않고 가르치고 축복받을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 일년도 못돼(1831년 2월) 예언자가 “교회 율법을 포함한” 것이라고 명시한 계시를 받았습니. 그 계시에는 다음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교성 42:11)

바로 그런 이유로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지지하는 과정이 교회에서 그토록 신중하게 지켜져서 모든 사람이 누가 가르치고 축복할 권능을 가졌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영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특별하고 성스러운 본질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며 자신이 혼자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부름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며 잘못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토록 심각하게 계시의 통로를 교란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또한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인도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거룩한 계시의 근원을 찾자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신권 권능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변경 사항이 결정되거나 제안한 변경 사항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영감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하여 교리와 총관리 역원들의 결정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려 합니다.

그들을 규정시켜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이란 말에 항상 거부감을 가지며, 계시라는 것에 늘 의문을 갖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힐라맨은 그런 사람들을 “예언의 영광 계시의 영을 믿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의 목전에 밝혀지매,”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힐라맨서 4:23) 저들의 힘만을 믿는 자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이 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저들에게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또는 절차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계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불변이지만 방법 또는 절차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의 새 판이 출판되었을 때 원본 또는 인쇄 원고에 근거한 많은 정정이 있었습니다. 몇 부분은 전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머서 16장 5절에 *whether*라는 말이 첨가되었습니다. 원본에는 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쇄 원고를 찾았을 때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 말을 *whither*로 바꾸었음을 보았습니다.

whether는 “만약”(가정)의 뜻이며
whither는 “어디로”(장소)를 뜻합니다.
그 구절은 *whither*가 정확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엘마서 32장
30절에서 “씨가 부풀어 짝이 나서
자람에”라는 말이 세 번 나왔습니다.
식자공의 분명한 실수로 그중 하나가
빠졌습니다. 1981년도 판에서 35단어가
회복되었으며 지금은 원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교리를 변경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경은 성전내의
모임에서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평의회에서 세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은 그런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님은 성전 의식에
관한 계시를 주셨을 때 그러한 절차를
세우셨습니다.

1841년 성도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할 성전을 나누어 세우도록
명을 받았으며 그것을 행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실패했다면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나의
모든 성도여, 집을 지어 내게 바치라...

“지정된 기간이 끝나기까지 너희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죽은 자와 더불어 교회로서 용납되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
말씀하시느니라.”(교성 124 : 31~32)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불가능하게 여겼을
것이며 극심한 반대에 당면했지만
주님은 그의 선택된 종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임명한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결단코 저의 처소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저들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가
임명한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저들은...축복을 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24 : 45~46)

후에 주님은 성전 의식의 같은 주제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그의
권능을 지닌 종들에게 계시하실 것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얻은 자는 산 자는 물론
죽은 자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인간의
자녀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음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
하느니라.”(교성 128 : 11)

계시에 관한 그 원리는 그 뒤로 계속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지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변경 사항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과정을 거쳐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나 주는 나의 뜻대로 명령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니,”(교성 56 : 4)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 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교성 58 : 32)

주님은 성도들에게 원수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리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삼사대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머리에
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어긴 범법과
죄 값을 치르게 하리라.”(교성 124 : 50)

복음 계획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9조)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전적으로 태초부터
제정된 계시의 통로를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불변이고 영원하겠지만 조직,
프로그램 절차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은
평범한 능력을 지닌 범인들로서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인도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시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영감을 구하고
있으며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같은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여러분 보다 더 낮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나이로 인한 제한적
영향을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우리도
그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결점과 나약함을 보충해 줄
평의회와 보좌들과 정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필멸의 인간이 그 상태에서
일하도록 교회를 조직하셨으며 그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서 계시의
영이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성 1 : 38)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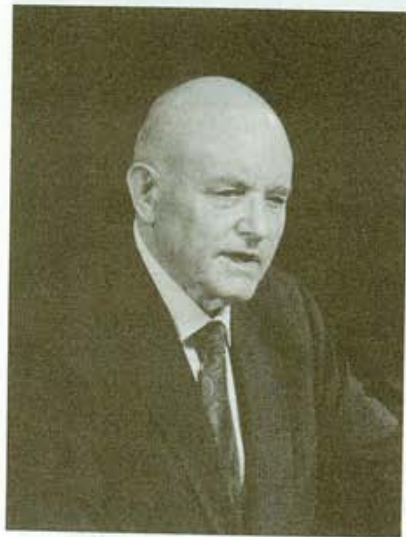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계시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의 속삭임, 꿈, 시현과
방문 및 천사의 성역 등 모든 것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우리
발에 등이요 (우리)길에 빛”이
됩니다.(시편 119 : 105)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선택의 금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과 구원의 길을 선택할 지식과 도움과 인도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자유입니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수많은 회원들을 만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의 탬플 스퀘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현대 텔레비전 기술과 많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덕분에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분으로서 교회 교리 및 믿음에 낯설은 많은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이 되려 하며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를

선택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선 및 영생을 선택하거나 악과 파멸과 고통스런 불행과 낙담으로 이끄는 것을 선택할 기회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한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튼튼한 벽이나 요새가 아니며 우리의 군대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자유에 대한 사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일리노이주 에드워즈빌에서의 연설, 1858년 9월 11일, 존 바틀렛의 인용집에서 인용, 보스턴; 리틀, 브라운 앤드 컴퍼니, 1968년 636페이지)

물론 불신앙으로 자유 의사와 선택 및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간의 독립된 정신에 대한 개념을 배척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이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빛에 계시되었으며 분명하게 이해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대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과 사랑스런 성품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우리 예언자이며 지도자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생은 영원하며 목적을 갖고 있으며...[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

“[그] 모든 중요한 계획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

“선택의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위해...복음 전체를 통해 금실처럼 엮여져 있습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8년, 80~81페이지)

인간으로 자유롭고 숭고하며 진보하는 영에 대한 재확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오래 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우리의 개체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음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일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인생의 영원한 관점, 즉 이 세상이 있기 전의 생과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과 같은 것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 다른 시대에 하나님은 음에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욥기 38:7)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가르쳤습니다.(에베소서 1:4)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그리고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중요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개체를 발전시키고 영적인 능력을 개발시켰던 전세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발전시키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지상에 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택하고 배울 자유를 통해 지상 생활에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자제하고 통제할 새로운 욕신을 갖고 우리 신앙과 의지를 행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및 현대의 계시를 통해 사탄이 지금은 잊어버린 오래 전에 우리의 독립성과 자유의지를 빼앗으려 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은 아버지가 제안한 선택의 자유를 강렬히 반대했으며 너무 강력히 반대했기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문제를 “천국 전쟁”(요한계시록 12:7)으로 묘사했습니다. 사탄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소중한 은사, 즉 우리 모두가 얻기를 소망하는 성스런 미래와 승영을 선택하는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려는 그의 용기를 통해 영원한 목표를 구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요한 전세에서 발전의 한 단계가 지나갔으며 기념할만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영원한 진보의 원리”로 설명한 것을 계속 추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이 말씀하시길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개개인을 온전케 함으로써 사회를 온전케 하실 것이며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만이 개개인은 온전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40년 4월, 118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그가 알고 계시던 예레미야처럼 믿음과 종교적인 확신에 관한 우리 개인적인 좁은 길을 선택할 특권을 갖고 이 지상에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루시퍼를 이기시고 후에 지상에서 아담의 타락의 결과와 모든 인류의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인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헌터 회장에게 인사하시는 벤슨 대관장님(중앙)

“인간들이...영원토록 자유로울 것이요, 선과 악을 알며...스스로 행동하며 중요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로우며...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치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26-27)

이 자유의지의 은사와 그 무한한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은 강요와 강압이 아니라 설득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행하고 계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름답고 훌륭한 소망을 갖고 행하십니다. 그는 항상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유와 독립심을 존중해주시며 행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며 우리를 도울 기회를 바라시지만 우리 자유의지에 위배되게 행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신성한 성품에 상충되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의 법칙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 이것은 영원을 두고 항상 존재했으며 앞으로 올 영원을 통해 계속 존재할 법칙입니다. 모든 예지를 지닌 존재는 선택의 권세를 가져야만 합니다.”(설교집, 11:272)

우리의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궁극적으로는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었으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을 보고 옳은 선택을 찾고, 참된 음성에 응답하고 그의 부인할 수 없는 영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기쁨을 찾게 해주는 그의 부드럽고 평안하며 힘있는 설득은 “시간이 지속되며 땅이 존속하며 땅 위에 단 하나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모로나이서 7:36)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 해를 끼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자비가 큰 힘과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오는 짐들을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선택을 위해 자신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이시며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자주 보게 되는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온사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잘못을 회개하고 그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그의 대속으로 인한 온전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계안은 항상 유효하며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고 가장 비참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돌아와 약속된 땅에 들어가려 했을 때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것에 대해 분명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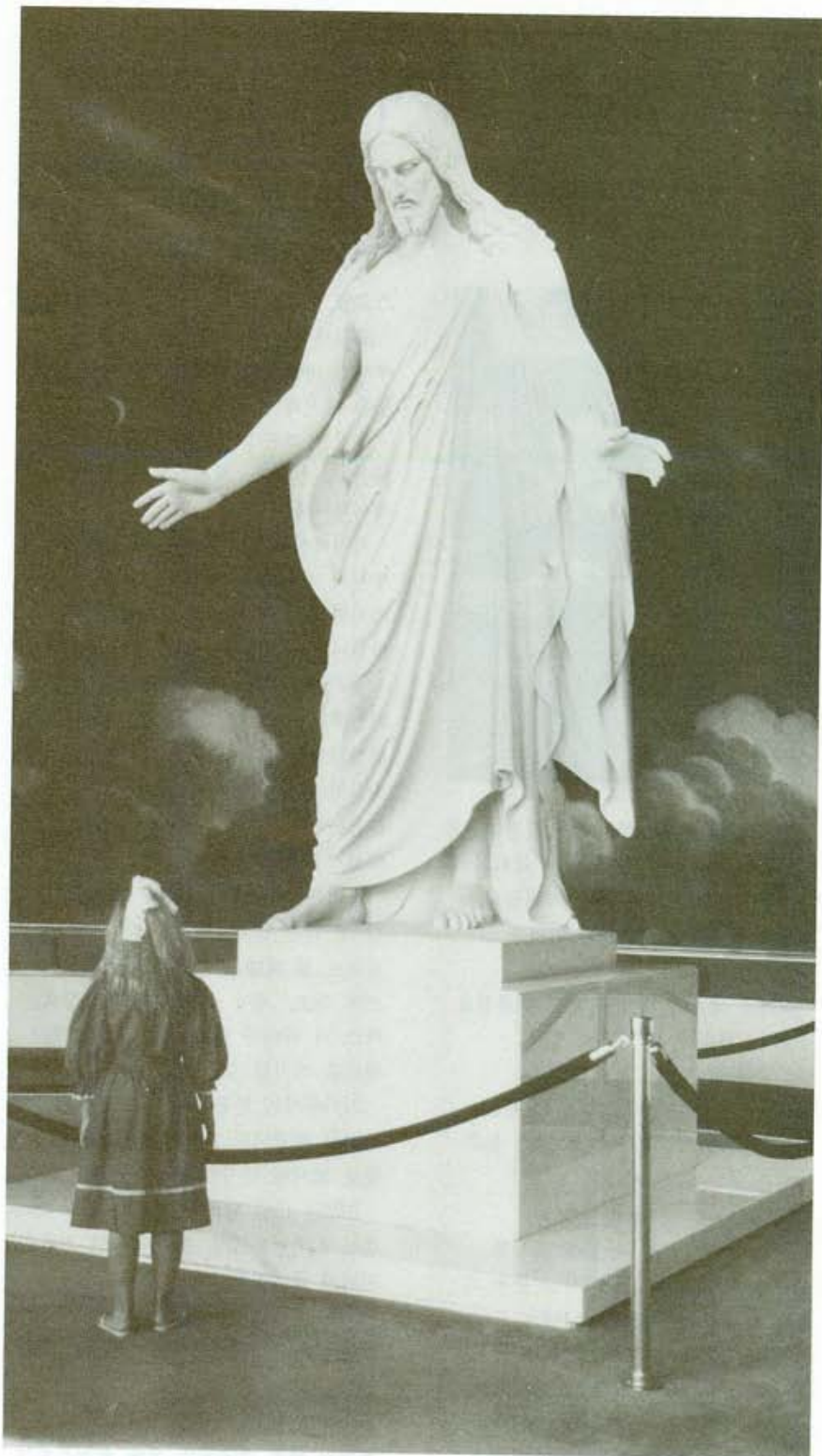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저주를 받으리라”(신명기 11:26-28)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약속된 땅과 밝은 미래를 맞이할 때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과 구원의 길을 선택할 지식과 도움과 인도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으로 실질적인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해왔으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하는 결정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구세주의 위대한 복음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선택하는 데 우리 신앙과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템플 스퀘어의 북쪽에 방문자 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상은 조각가, 베르텔 토르발드센의 작품. 교회의 역사와 신조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시청각 자료가 준비되어 있음.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벤슨 대관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나는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콧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와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단에서 해임합니다. 이 두 장로님의 충실한 봉사에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단으로 던 엘 라슨 장로, 매리온 디 행스 장로,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칼로스 이 애시 장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8년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몇 분의 총관리 역원들에게 총관리 명예 회원의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후로 총관리 역원들 중에서 어느 분들이 때때로 명예 회원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발표도 그때 있었습니다.

오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여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 회원으로서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로버트 엠 심슨 장로, 빅터 엘 브라운 장로, 폴 에이치 던 장로,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로이든 지

데릭 장로, 렉스 시 리브 장로를 지지하고 이 장로님들의 충실한 봉사에 감사를 표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제이 정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최초의 회원들은 5년 임기의 부름을 받고 봉사하는 총관리 역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들 중에서 러셀 시 테일러 장로, 로버트 비 하버슨 장로, 디비어 해리스 장로,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장로, 필립 티 손태그 장로, 존 소넨버그 장로, 에프 아더 케이 장로, 키드 더블류 윌콕스 장로를 해임하며 이 장로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총관리 역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버트 엘 심슨 장로와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해임하며 이 두 분의 장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의 봉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렉스 디 피네가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의 직에서 로버트 비 하버슨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의 직에서 해임하며 이 두 분의 장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로님들의 봉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그 뜻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로, 몬트 이 브러프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을

지지할 것을 계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슨 대관장님, 만장 일치로 찬성 지지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

여성—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충실한 여성은 이기적이기 보다는 좀더 의롭게 되는 일에 관심을 두며, 지배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동정심을 보이기를 원하고, 명성보다는 정직하게 되기를 결심합니다.”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서 활동적인 임무로부터 방금 해임되신 형제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언어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한 위대한 사업과 세상에 크게 미친 선한 영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자를 지지하는 우리의 특권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교성 20 : 63~66; 26 : 2; 28 : 13; 38 : 34; 93 : 51; 104 : 21; 124 : 144 참조)
지지한다는 것은 저가 권능을 갖게 됨을 교회에 알리는 것이며(교성 42 : 11 참조) 아울러 우리 모두가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남성과 여성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형제 자매들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아마도 우리 교회야말로 지상의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여성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 그들이 정당한 위치를 얻도록 돕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교회는 여성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한 운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의로운 여성은 참으로 거룩하고 가치있는 삶의 모범이 됩니다. 충실한 여성은 이기적이기 보다는 좀더 의롭게 되는 일에 관심을 두며, 지배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동정심을 보이기를 원하고, 명성 보다는 정직하게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강한 교회의 모든 청녀들은 개인적인 가치야말로 그녀가 가장 소중히 하는 가치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열심히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청녀 지침서, 3페이지)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딸들은 그들의 거룩한 사명으로 인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여인들로부터 여성의 사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브는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반자로서 남편 곁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구원의 계획을



대의 방문자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계명에 귀 기울였으며 또한 주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아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모세서 5:1~12; 교성 138:39 참조)

사라는 노년에 이삭의 어머니가 되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창세기 18:14)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구세주의 모친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완전한 모범을 보였습니다.(누가복음 1:38 참조)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19 참조) 신앙으로 슬픔을 이겼습니다.(요한복음 20:11 참조)

이러한 이야기와 경전에 나오는 다른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여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남성들은 이와는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남성은 신권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을 부양하고(로마서 12:17; 디모데전서

5:8; 교성 75:28; 83:2, 4 참조), 보호할 책임(교성 134:6, 11 참조)이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태초부터 신권은 오직 남성에게만 조상의 혈통에 따라 부여되어 왔습니다.”(교성 84:6~16; 86:8; 107:40~41; 아브라함서 1:3~4 참조)

신권의 축복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성찬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와 진리에 대한 간증은 남녀의 구별없이 주어집니다. 남성과 여성은 주님의 집에서 가장 높은 의식을 함께 동등하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교성 131:1~3 참조)

영적, 지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는 평등합니다. 남성만이 사고와 이성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칭호들, 즉 교사, 전문가, 충실한

직장인, 신뢰받는 친구, 경전을 항상 상고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신뢰받는 동반자, 사랑을 베푸는 부모 등은 남녀 모두가 합당한 요구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부모! 얼마나 거룩한 칭호입니까! 인생에서 남편과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역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아내와 어머니보다 더 큰 역할은 없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역할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켜 가는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와 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참으로 영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 훈련된 의학적인 안목으로 예견하기도 전에 자녀가 홍역이나 수두에 걸릴 것을 미리 예견하는 어머니를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간질병 발작을 할 때에 매우 차분하게 행동하는 어머니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녀는 때때로 담정이 되어 잃어 버린 물건을 찾아야 하며 매일 매일 발생하는 “누가 했나”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합니다.

흔히 그녀의 열렬한 관중은 그녀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노래해 주기를 요구함으로써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기를 청합니다. 그녀는 크레용과 그림책을 사용하거나 바늘 또는 기타 자료를 사용해서 손수 예술품을 창조하는 예술가입니다.(시편 90:17; 교성 42:40 참조)

대부분의 어린이의 유아기 동안 여성은 벌을 주는 주요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너무 엄하거나 너무 방만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벌을 줘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노동부 장관”입니다. 어머니는 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가지고 노동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몇년 전 어느 무더운 토요일 오후에 어린 딸애가 아이스크림

차가 다가드는 종소리를 들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딸은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야, 너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돈을 버는 것이 어머니냐?” 나는 딸애의 대답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 난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녀에게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여성은 의사 소통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겸손히 기도할 때 가장 훌륭히 의사 소통을 합니다. 우리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옆에서 최초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물론 어머니는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았을 때에만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확실히 여성은 교사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개인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여자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한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제이 에드거 후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를 치료하는 것은 전기 의자가 아니라 식사할 때 사용하는 어린이용 높은 의자이다.”

나는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도 존경합니다. 그들은 모성애가 여성의 역할 중 하나의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선 봉사과 가르침 같은 여성의 덕과 지식 또한 나름대로 다른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선생님이셨던 많은 훌륭한 남성과 여성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에는 미스 크로우, 미스 맥린, 미스 스타 등을 기억하며 후에는 미스 브래포드, 미스 커닝햄과 미스 스노우도 내가 좋아하는 분들중에 속합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얻느냐 보다는 내가 장차 되고자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들 훌륭한 미혼 선생님들은 나의 천사같은 어머니와는 다른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희망과 나를 대신해 느끼는 야망, 그리고 엄격한 요구는 내가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데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현명한 여성은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인생의 직질한 시기에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며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을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길을 밝히기 위해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의 창을 열어 놓습니다.

여성은 교훈과 모범으로 우선 순위를 가르칩니다. 최근에 나는 한 여성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그만두고 자녀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다시 변호사 직을 맡겠지만 지금은 아녜요. 나에게 있어서 그 동기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변호사라도 내 고객을 돌볼 수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나만이 어머니가 돼야만 하니까요.”

그러한 결정은 권리의 견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견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녀는 책임을 나하게 될 때 권리는 스스로를 돌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권리와 자유가 거의 없었으며 참으로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던 리버티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에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권리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는 늘 책임과 의무가 따랐습니다. (교성 121편 참조)

의로운 여성은 경전을 연구하는 학생입니다. 많은 내용이 그녀의 생활에 독특하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창세기 27:46; 시편 113:9; 잠언 31:10~31; 에베소서 5:22~33; 골로새서 3:18; 디도서 2:3~5; 야곱서 3:7; 모사이아서 4:14~16; 교성 25편 참조)

경전에서 그녀는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여성은 “실체가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아니 하느니라.” (교성 131:7)와 같은 거룩한 진리를 알기 위해 물리학을 전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지구와 태양의 관계, 태양과 흑성과의 관계, 흑성과 우주 중심에 관한 관계 및 그 이상을 알기 위해 천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짝 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라는 노래를 부를 때 이미 그녀는 경전상의 해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중요한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연사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장 중의 한사람이었는데, 그는 가깝고도 먼 곳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대표로 파견된 교수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주로 세계의 도서관들은 개인이나 그룹 연구에 관한 자료와 탐구에 대한 흥미있는 사실들로 가득 차있다고 말하며 방향의 큰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으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와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와 똑같은 질문에 대해 밝혀진 대답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일깨워 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잊을 수 없는 연설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확고하게 지니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여성의 인내가 한계점까지 혹사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린이의 심한 장난에 더이상 참을 수 없거나,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현실과 맞지 않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는 자신의 역할에 관한 것

보다 하고자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둘 경우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자존심은 외모, 소유한 것이나 특별한 재능의 결여, 또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에 기초를 둘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자존심은 개인적인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얻어집니다. 여성의 외적인 빛은 내면의 선에 의해 발산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인내는 어떠한 불완전한 요소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교성 67:13 참조)

평온한 마음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때에 우리는 자아를 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신 구세주의 손길이 와 닿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실 때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여성들이 주님의 모범을 따를 때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구세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 여성들은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 손자, 조카들이 세상의 잔혹한 현실에 의해 상처를 입고 돌아올 때에 사랑이 가득찬 여성은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던 간에 그곳은 성스러운 곳, 인생의 폭풍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영육을 살찌울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그곳은 피난처가 됩니다.

때때로 이 참된 사랑은 엄격한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순종과 책임감에 대한 교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또한 출애굽기 20:6; 신명기 5:10; 모사이야서 13:14; 교성 46:9; 124:87 참조)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과 답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하며 구세주께서 하신 것처럼 원조와 영양물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성스러운 은사는 양육하고, 어린이를 도우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상처받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헌신적인 딸이며 여제자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그 하늘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거룩한 사명 중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해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교사로서 혹은 영양을 제공하는 성도로서 여성은 자신의 소망대로 삶의 토기를 주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동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거룩한 사명은 영들이 삶을 누리고 영혼이 들리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것은 고귀하며 교훈이 되며 훌륭한 것입니다.

여성의 성스러운 부름은 사탄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사탄은 가족의 유대를 해쳐놓고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해를

입히든가 존중하지 않을 때나 어떤 여성이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부정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승리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부도덕한 목적으로 그녀의 미를 천박하게 노출시키거나 자신의 순결을 부도덕하게 유린시키는 행위는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분개를 불러 일으키기 마땅합니다.

주님의 빛이 적의 시도를 분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말일에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날은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합당한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요엘 2:29)

여성의 가장 값진 보상은 하나님의 충실한 딸로서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어설 때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왕좌와 왕국과 권력과 영광, 불사불멸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2:7; 교성 75:5; 128:12, 23; 132:9) 그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성들의 잠재력입니다. 그것은 고귀하고 영원하며 신성합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여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우리가 존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오늘날은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문제점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세상은 전례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새로운 부름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봉사하며 왕국을 건설하는 데 내 생애를 바치는 특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말보다 구세주의 생애와 성역을 더 잘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세주의 성역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은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임명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해 율법을 시켜 주님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마태복음 22:36)라고 질문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율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것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응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 “두 계명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사랑하라’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계명 중 하나를 지키는 사람은 두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탈매지, 신앙개조, 386페이지)라고 밝히셨습니다.

오늘날은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문제점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세상은 전례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업 프로그램은 복음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서 주로 자신의 경비를 들여 2년 동안을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때문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곤경과 손실과 위협을 겪습니다.

우리의 십일조와 헌금은 기꺼운 마음으로 바쳐질 때에, 주님의 사업과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및 청소년 조직의 형제애와 따스함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모로나아서 10:32) 될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감독, 스테이크 부장, 상호부조회 회장, 가정 복음 교사, 유아반 교사 및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뜻있는 기독교적 봉사에 사용되는 시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의무감에 의해 이와 같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발전을 위한 최상의 기회는 우리 서로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모든 사랑의 선물 중 가장 값진 것이 될 그 희생을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성역을 마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고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더 친절하고 온유하며 더욱 더 조화롭고 사랑스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원리에 중점을 두는 데 도움이 될 네 가지 세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에 민감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고무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고, 남의 확신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는 흔히 그렇듯이 투쟁적인 변호사의 직업에서조차 신중하며 경의를 표시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칭찬을 자주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속성과 행동을 찾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진지하고 합당한 칭찬에 의해 격려를 받습니다.

셋째,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언자 모로나이는 자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헛됨이라."(모로나이서 7:44)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백성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으로 자비의 중요성을 요약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고린도전서 13:1)

자비로워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비는 이기심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후하게 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바치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시간을 헌신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 버림받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북돋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뒤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모로나이서 7:47)

그리고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여 드리려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이나 공약이 아닌 생활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죄는 보복의 죄보다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복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오래전 졸업식에서 행한 졸업식사 중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 졸업생들에게 들려준 한 이야기를 나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찌기 남편을 여의고 수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는 어떤 과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돈이 궁핍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사를 보태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학업을 수석으로 마치고 사회와 사업계에서 뛰어난 성취를 하게되자 그 가족은 지역 신문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 가정에 파견되어 이제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흰 이 훌륭한 어머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는 그녀의 성공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려는 시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적은 것으로 그처럼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자녀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녀는 눈물을 머금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병든 아이를 완쾌될 때까지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집에서 떠나 있는 아이를 돌아올 때까지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실패한 아이를 다시 성공할 때까지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슬픔을 당한 아이를 다시 행복해 질 때까지 가장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베넷 프리호프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나는 영리한 사람을 좋아했다. 지성적이며... 마음 속의 생각을 거침없이 언어로 바꾸거나 생각을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켜보길 좋아했다. 지금은 그런 기회가 바뀌었다. 때때로 언어의 불꽃놀이에 싫증이 난다. 그것들은 우월심과 허세에서 기인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하고 남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유형의 사람을 더 좋아한다... 오늘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과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행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자존심을 항상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 때 영리한 사람을 좋아했다. 이제 나는 선한 사람을 좋아한다."(리처드 엘 이반스, 리처드 이반스의 인용 서적,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즈 출판사, 1971년, 166페이지)

우리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받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야고보서 1:12) 얻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이같은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 오직 한 가지 만이 온갖 걱정과 고난과
죄악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나는 헨슨 장로와 칠십인 정원회에 새로 부름받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부름을 받아 봉사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목자의 부름을 받을 때에 느끼는 책임감이나 부족감을 충분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나는 한 때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고린도후서 1:8)이라고 기록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또한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과 기도와 위안과 지지를 나의 온 생애를 통해 보여준 식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영원히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 여러분께 지난 4월 나를 지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지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떠받치다” 또는 “들어 올리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게 하며 계속되도록 합니다. 친구나 이웃 혹은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지지할 때 우리는 돕고 함께 힘을 들이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의 짐을 서로 나누며 삶의 개인적인 압박에 눌린 “남의 짐을 나누어”(모사이야서 18:8) 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지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과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강한 팔이 되시며 “모든 것을 참으”(고린도전서 13:7)시는 인내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상 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실 때보다 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나타내신 때는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유월절 주일에 제자들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깊고도 심오한 걱정에 싸여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은 바로 앞에 놓여진 일을 알고 계셨지만 아마 그분조차도 “인자는 모든 자보다 더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교성 122:8)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의 깊이를 완전히 알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찬을 취하며 그같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일어나 겉옷 상의를 벗고 마치 노예나 하인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사도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이 왕국에 속한 이 병 둘러 앉은 소수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곧 혹심한 시련을 겪을 것임을 아신 주님께서는 한번 더 제자들에게 봉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자신의 커가는 고통을 체쳐 두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없이 겸손하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그 이후까지 그들을 지지하는 종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어 모든 기이한 일을 지켜본 요한이 기록한 바와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요한복음 13:1)하셨습니다.

전에도 그래 왔듯이 그 사랑은 어두운 밤과 고난 속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의 힘이 되실 것이며 자신의 영혼의 어떤 고통도 제자들과 그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고요한 달빛 속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인간이 경험한 모든 심한 고통과 모든 마음의 슬픔, 잘못과 상처가 그의 지친 양 어깨 위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그분께 했어야 적합했을 말을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주님은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때로는
박해마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20~22,
33.)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습니까? 이같은 밤이라서
그렇습니까? 곧 받게 될 고통으로
인해서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항상 가져다 주신 축복이며
그분께서 끝날까지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맞이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하신 참으로
솔직한 말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태복음 26:38)
그리고는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은 인간의 동반을 떠나
어둠의 왕과 홀로 싸우기 위해 동산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는
여러분과 나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고통으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잔을 지나칠 수가 없으며 그
쓴 잔을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확실히 피곤하여 곧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무시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휴식이나 숙면을 취하셨길래
그처럼 혹독한 시련을 버티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의 상관할 바가 아니며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인내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결코
주저하거나 우리를 잃지 않으실



대외 방문자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조차 박애 정신과
통치자의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그리고 옆에 달린 참회하는
도적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양 손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시며 요한에게
어머니의 장래를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26~27) 주님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특히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결국 “홀로 [이] 분노에
찬 포도즙 틀을 밟”(이사야
63:3)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두운 순간들과 극도의 고통의 충격을
참을 수 있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가복음
15:34)라고 하신 말씀은 가시관과 못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혼자이라는 공포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견디어 내실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것처럼 큰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해가 부끄러워 그
얼굴을 숨기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인자가 고통을 당할 때 땅이 진동한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로마의 한 백부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뭔가 큰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놀라움 속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마태복음 27:54) 라고
언명했습니다.

인생은 두려움과 실패도 나누어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때로는 사적,
공적인 생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남아 있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삶은 고난과 비탄으로 참으로 외롭다는

느낌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때에 나는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만이 온갖 모든 걱정과 고난과 죄악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만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모로나이는 세상의 구세주에게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니, … 제가 기억하나이다.

이제 당신께서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사랑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이더서 12:33-34)

한 경륜의 시대가 가고 한 민족이 모두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모로나이는 후세(말일)에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을진대 너희는 헛것이라.”(모로나이서 7:46)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만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으며 친절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만하거나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순수한 사랑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모로나이서 7:45 참조)

날 속죄해준 그 사랑
거룩한 사랑 크시며
빛나고 영화로우니
내 감히 감당 못하네
(찬송가, 109장)

나는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의 순수한 사랑은 언제 까지든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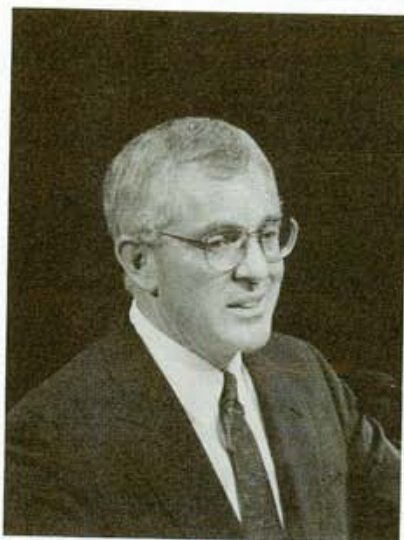
나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들여 주심을 주님의 살아있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오후 모임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함

말린 케이 켄슨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의 이기심과 헛된 야망을 희생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제물 중의 하나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내 캐시는 내가 어떤 유형으로든 부름받게되리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엄청난 것이라고는 우리 둘 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걸쳐 서있던 이 단상에 최초로 서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강한 느낌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두 가지를 다 느낍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 오도록 도와준 작은 산골 마을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나의 훌륭한 조상님들과 친척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의 선행과 나에게 베푸는 관심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던 47년 전부터 시작했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내의 지지와 사랑과 밝은 성격은 내 생활을 매우 즐겁게 해 줍니다. 아내가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덟 명의 쾌활한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았으며, 자녀들의 발전과 행복이 우리의 첫번째 관심사입니다. 나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매우 사랑합니다.

또한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과 매일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나는 이 헌신적인 분들에게 충성과 사랑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에 들어 있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교성 108:7)

마지막으로 구세주에 대해 배우고

그분 교회의 일원이 되신 온 세상에
계신 형제 자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
옆에 서서 함께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겸허한 마음을
느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모든 것
중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수 개월 동안 나의 새로운
부름에 대한 인도를 구하기 위해 경전을
연구하면서 나는 동기와 소망과 태도에
대한 영원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들 중 한
가지,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교성 4:5)며 지상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적인 명성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유혹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원형은 전세에서 사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을 상속받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과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1)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항상
나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서 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행하면서 영예나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은 경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돈을 받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니파이는 “하나님의 일을
금전으로 행하는 자는 나아가 가르치며
저들 스스로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세상의 칭송과 유익을 구하여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않는
자라.”(니파이서 26:29)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말일성도들은 주의를 다른 것에다
돌리는 사람과는 인생을 매우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회원들은 그들의 선행에 대해 칭찬이나
영예를 받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
보다 먹이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친절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감사드릴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에 관해 우리는
아마도 펜실베이니아의 아마쉬 부락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작가들은
자주 시나 종교 문학 작품을 익명으로
출판해서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계약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며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에는 특별히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마음으로 선을 따르”(엘마서 41:3)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순수한 동기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둘째 막내 딸 아이는 이 원리를
세살 때인 한 일년 쯤 전에 간단한
방법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할 때의 기쁨 같은 특별한
내색도 없이 딸 아이는 내 베개 밑에
맛있는 밤참 선물을 숨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맙다고 하며 왜 것처럼
좋은 일을 했냐고 묻자 딸 애는 “그냥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냥 아빠를
사랑해서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말일성도에게는 교회의 직책이나 지위에
관한 생각 또한 거의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명성을 얻는
것 보다는 현재의 부름에서 봉사하기
위한 기회에 초점을 둡니다. 왕국에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열심히
그리고 조용히 봉사하는 그와 같은
회원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고,”(고린도전서
12:23)라고 기록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위에 관계치 않고 충실히
봉사한 분이 몇년전 어느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형제는 교회의 높은 직책에 한 번도
부름을 받지 않은 채 평생 동안 수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고인의 처남이 그가
결코 장로 정원회 회장이나 감독 또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한 적은 없으나
“그 직책을 수행할 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선하게 보이도록 했던”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 살 짜리 어린 아이들을 참을성있게
돌보는 사랑스런 초등학교 유아반
지도자를 바라보거나 주님의 성전
안에서 충실히 봉사하고 있는 백발이 된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의 부드러운 영을
느낄 때 우리는 모두 구세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누가복음 9:48)고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할
때에 우리는 창조의 위대함과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장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일의
왕국에 속하게 된 것에 대해 겸손함을
느낍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기심과 헛된 야망을 희생의 제단 위에 올려 놓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제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로써 나는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모세서 1:10)라고 말한 것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 백성에게 보내는 그의 첫번째 서한에서 비슷한 태도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서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수사학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즉 아블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도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고린도전서 3:5-7)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왕국은 우리 개인에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눈을 떼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이 없어도 신속히 전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깊숙한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목자들인 그분의 사도들조차도 누가 가장 높은가에 대해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복음 22:24 참조)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충실한 말일성도에게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교성 88:67-68)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간증과 더불어 하나님과 아들의 실재하심과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역경을 극복함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칠십인 제이 정원희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역경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삶을 주관하시며 유일한 위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영혼을 돌려야 합니다.”



중 관리 역원이 되어 가족과 함께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던 날 밤 나는 옛날 선교사 시절의 동만자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서 첫 학기를 시작한 그의 장남이 참사를 당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이었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생활에도 충실했으며 세미나리 과정도 마쳤습니다. 2주일 전에 그는 부모님에게 그의 포부와 인생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그는 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영원한 인봉을 받았지만 육신의 헤어짐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한 비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역경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삶을 주관하시며 유일한 위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영혼을 돌려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4 : 27)

몇 달 전에 나는 한 친구의 아내가 또다시 유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기에 관해 걱정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급히 달려갔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이 새로운 역경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와 주실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 그녀는 같은 스테이크에 사는 또 다른 자매가 자기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찬 그녀는 그 자매를 방문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다른 사람을 위한 평강의 은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오래 전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배운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열 다섯명의 자녀를 거느린, 그 중에서도 열 명을 부양해야 할 과부가 되게 하신 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는 참으로 비극이었습니다. 물론 복음과 교회 회원들의 우정과, 우리 자신의 간증은 우리가 이 상처를 굳건히 견디나가는 데 위안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어머니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영혼은 내면의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상가로 가고 있을 때 어머니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위안을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품위를 해치지 않고 우셨습니다. 한 여자 승객이 다가와서는 “무슨 슬픈 일이 있으신 것 같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녀가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열 다섯 명이 있는 데 모두가 약간 씩 남편을 생각나게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남편이 생각합니다.”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편만 잃으셨다니 참으로 축복받으셨군요. 나도 자동차 사고로 남편과 두 딸을 잃어서 지금은 혼자 산답니다. 그래서 댁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해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죠.”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큰 역경과 슬픔을 겪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능력을 키웁니다. 그들은 마치 예언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더욱 높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나에게 이 여인은

천사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키우도록 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쓸쓸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나에게 “애야,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라. 나는 주님께서 내가 열다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은 하나님께서 교리와 성약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밝혀 주신 다음 내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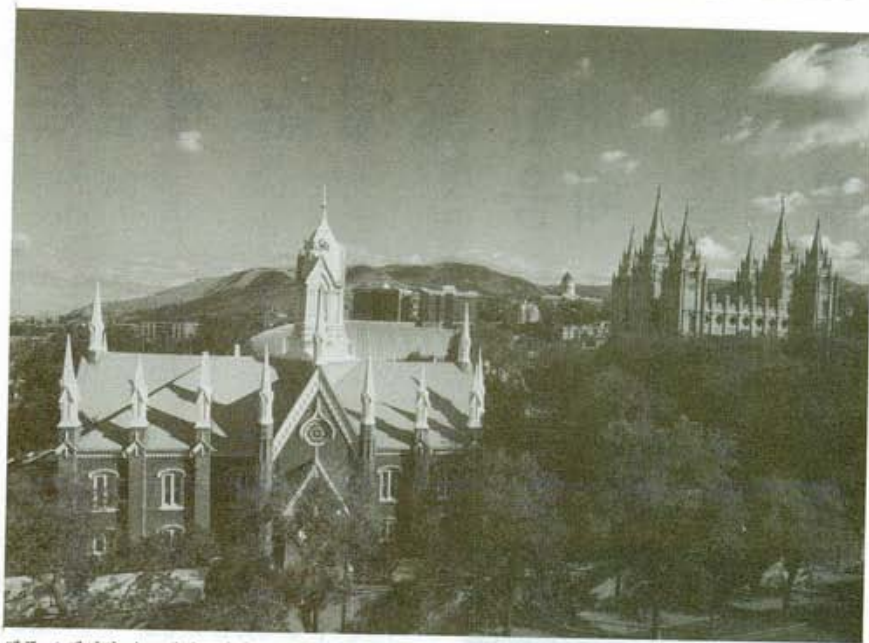
“그 고난은 하나님ियो 모든 자 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 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 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 : 18~19)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 보다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받는 고통을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 주님께서 갯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겪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그로인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 : 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영생을 잃는 것입니다.

경전은 커다란 고난과 반대에 직면했으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보통 사람들인 수 많은 예언자들의 간증입니다. 리하이는 금과 은과 조국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왕위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욥은 토지와 가축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잃었으며, 아비아다리와



템플 스퀘어와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의 배경으로 와사지 산맥이 보임.

스테반 및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가족을 잃을 때나 혹은 생명을 버리도록 요구되더라도 주님께 불평의 말없이 충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 충실한 사람들이 비록 구세주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에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록 더욱 큰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아가 공의를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을 이해하셨으며 그에게 더 큰 시련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교성 122 : 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요셉은 구세주의 뜻과 목적하신 바를 이해하고 생명의 고통을 당함으로써 영광스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필멸의 생을 통해 우리가 겪도록 요구될 수도 있는 시련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러한 시련에 대처하는 태도이며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교훈과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해력을 넓히고 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현존하는 시점에 가장 큰 강조를 줌으로써 시야를 제한시킵니다. 시점을 하늘의 일들에 맞출 때만이 영원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에 의해서만 비극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속주라는 신앙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 : 33)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께서 갯세마네 동산에서 쓰라린 경험을 하시며 가르치신 모범을 따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 : 4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방법을 배움

리차드 지 스코트
십이사도 정원회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는 듯 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못했거나 응답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서 한 여인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찬 나에게 “이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극히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 지를 알기 위해 여러 날을 고투하며 기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번민에 차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전에 손을 올려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으며 다른 모든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데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려 하지 않으실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엔 혼자서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는 듯 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못했거나 응답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실패하도록 지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성공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지하기가 때때로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으로 인생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할 바를 알기 위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들은 필요할 경우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한다는 것은 예상외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때 그것은 신앙과 순종과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모두 즉시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 쪽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특히 간구하지 않은 채로 영감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성장 발달하고 영적인 발전을 얻기 위한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리를 응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도전에 직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느냐가 행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나는 타인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고 경전을 상고했으며 예언자와 기타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친절하시며 지혜와 이해가 풍부하신 아버지에게로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서투른 감정 표현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설명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찬성하시고 때로는 반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안하시기도 하는 데 이는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진리를 활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절대적인 실재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관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사항을 염두에 두시며 그 모든 해답을 제시하실



대회 방문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불순종과 어리석은 행위를 하며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대화의 길이 두절될 때 중재자가 계셔서 그분의 권고에 따르며 회개하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한 분이 우리의 말형인 구세주이십니다.

아마도 올리버 카우드리의 경험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올리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식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이든 관련 지식이든지 얻게

됨은 네 하나님이고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참으로 분명하다.

“나는...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교성 8:1~2) 마음에 어떤 느낌을 받으면 우리는 정신을 사용해서 그것을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고 그 느낌대로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올리버는 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말라니,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이러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구해서는 안될 것을 구하지 말라. “네 신앙에 따라 네게 이루어지리라.”(교성 8:10~11)

“신앙으로 구하라”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리버는 주님께서 이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와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시가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네가 행한 일로 인하여 네게 복이 있다. 이는 네가 내게 간구하였음이니, 보라, 네가 간구할 때마다 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였으리라.

“보라, 너는 내게 간구하였고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었음을 알고 있으니, 내가 이 말을 함은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되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교성 6:14~15)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성구를 깊이 숙고해 보시고 생활 속에서 이미 증거를 주신 응답으로 신중하게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응답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더 많은 증거를 원하면 이러한 일이 참된지를 알기 위하여 네 마음 속으로 내게 간구하던 그날 저녁 일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교성 6:22~23)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한 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간구하라고 권고하심으로써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교성 9:8~9)

주님께서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경험을 얻도록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승락하신다는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하신다는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은 잘못을 방지하시려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고 계명에 순종하며 진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통하여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사전 확신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스스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며 불평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인은 대체로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 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됨으로써 그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주시는 표식과도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릇된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그릇된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도록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됨으로써 그 도움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니파이가 낫쇠판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에서 우리는 그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 일을 하도록 부탁을 받아 “불만을 토”했으며, 따라서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니파이는 “내가 나의 분부에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으리라”(니파이일서 3:6)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니파이의 “가서

행하겠나이다.”라는 대답은 행하며 영적인 법칙을 활용하여 성공하겠다는 적극적인 결심을 보여줍니다.(니파이일서 3:7)

두 번이나 시도하여 실패한 후에도 니파이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대안도 없었지만 그는 도시로 숨어 들어가 레이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니파이일서 4:6~7)

니파이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낙담하지 않고 행하고 주님께 대한 확신을 지녔으며 순종하고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를 받아 나아갔고, 그의 모친이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도록 권세를”(니파이일서 5:8) 받았습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행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불평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수동적으로 도움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실천했고, 영의 율례에 따라 행하기 위한 영감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기 위해 자유 의지를 사용할 때 이 공식은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 남겨 되어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소 회개할 때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위한 영감을 구하면 주님께서서는 넌지시 암시를 주십니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노력하며 때로는 고투하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어떤 매우 중요하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모든 응답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를 알 수 없이 한 번에 조금씩 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을 위해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감사드리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에서 놀라운 평온과 자신의 가치와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고마움으로 차고 넘치게 해줍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테말라의 고지에 사는 회원들은 겨우 연명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성전을 방문하기에는 참으로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한 번 방문하기 위해 일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저축하고 식량을 모으고 새 옷감을 짜서 염색하여 옷을 만들려면 힘들게 일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적은 식량을 가지고 맨발로 걸어서 산을 넘고 이사벨 호수를 건너 버스를 타고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피로에 지친 몸으로 성전에 도착하여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한 후에 새 옷을 갈아 입고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시 흰 옷으로 갈아 입고 영의 가르침을 받고 의식을 받으며 성약을 합니다. 고지에서 온 한 여인은 엔다우먼트의 의미와 영에 의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해의 왕국실을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건히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진하게도 그녀는 입구서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머리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는 20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의 가슴을 털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눈물로 옷이 흠뻑 젖은 채로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성전 봉사자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도와드릴까요?”하고 제의하자 그녀는 “아, 그래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인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드리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 권고는 참됩니다. 나는 그것을 인생이라는 실험실에서 철저하게 시험했습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거보를 내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깨끗케되며 합당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시며 돕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의무, 보상 및 모험

엠 러셀 벨라드
십이사도 정원회

“부모들과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회원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매우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것이라고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후 일부 선교사들은 더욱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 회장단 고문으로서 나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분의 충실한 선교사인 타드 레이 윌슨 장로와 제프리 브렌트 볼 장로가 볼리비아에서 순직하신 것에 슬픔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업을 하던 도중 순교당한 이 두 의로운 젊은이의 소식은 온 교회의 회원들을 슬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울들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충실한 선교사들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찾으리니 곧 영생을 얻으리라.”(교성 98:13)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는 도중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의 모든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위안과 화평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볼리비아 리파즈 선교부장이신 스티븐 비 라이트 형제님의 허락을 받아 그가 꿈속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들 두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어느 아름다운 건물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건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으로 보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볼리비아 인입이 틀림없었다. 나는 언젠가 볼리비아에 세워질 성전을 시현으로 보고 있었다. 윌슨 장로와 볼 장로는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던 영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의식을 보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내하고 있었다. 이 꿈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그들의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이트 부장이 죽음을 초월해서 행해지고 있는 구속 사업에 대해 본 시현은 70년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현과 같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현세를 떠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광대한 세계에서...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교성 138:57)

시련과 고난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직면해 온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지옥이 베스비우스 화산이나 에르나 화산 같은 무서운 폭발력으로 악랄한 분노를 뿜어 낼지라도 ‘물몬이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물, 불,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실재입니다. 물몬이즘은 진리입니다. 물몬이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성이 우리를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초에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물몬경을 받았습니.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그 날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한 군사처럼 끝까지 환란을 견딜 것을 다짐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북크래프트사, 1938년, 130페이지)

금년들어 지금까지 3만 9천여 명이 넘는 충실한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 새로운 회원들은 마음 속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앨마서 5:13)

우리의 선교사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심각한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교사의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에 테러 행위의 가능성에 의한 위험성을 덧붙여야 합니다. 테러 행위는 수 세기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처럼 공공연해지고

매스컴에 중요하게 보도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테러 행위는 많은 희생자를 냅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가족을 부양하고 옹운 일을 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고 발생 지역의 순수하고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선교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으며, 따라서 회원들의 보호를 받을지라도 테러 행위의 무죄한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테러 행위로 인해 어느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때때로 테러분자들은 교회가 어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잘못 믿고 교회 회원이나 자산을 공격합니다. 그러한 오해와는 반대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의 정부 기관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사 및 기타 교회 회원들은 진실하며 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이상도 그 이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와 회원들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많은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과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회원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매우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것이라고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밝혀진 기록에 의하면 1981년 이래 사고나 질병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목숨을 잃은 선교사의 총 수는 매우 적습니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 전이나 그 기간 동안의 생활 방식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대회 방문자

봉사하고 있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의 사망율은 유타에 살고 있는 젊은 남성의 사망율에 비해 20%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미국 총 인구 중 같은 젊은 남성의 사망율에 비해서는 14%밖에 안되는 비율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장수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선교사들은 분명히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사망율이 훨씬 적습니다.

교회는 질병과 사고의 개연성을 줄임으로써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말일성도 의사진이 개발 도상 국가에 있는 여러 선교 지역을 방문해서 선교사들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용해야 할 중요한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줄이기 위해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거나 선교사들이 결코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선교사과에는 선교부장과

선교사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여섯 명의 전 선교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교회 자원을 가지고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최근 콜롬비아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지역 회장단의 모든 지도력을 동원하여 매일 매 시간마다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선교사의 안전과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항상 교회의 최대 관심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한 소란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선교사들을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가르쳐 지키게 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19)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한 전쟁은 전세의 천국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7 참조)

같은 전쟁이 오늘날에도 선과 악 및 복음과 그릇된 원리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에서 선봉을 서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리의 검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지 않는 전쟁은 없습니다. 말일의 예언을 통해 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인간 영혼을 위한 전쟁이 더욱 격심해지며 더욱 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도전에 대해 자신과 가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를 적대하고 위협하는 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말라. 어린 양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교성 6:34)

그 비극이 있는 직후 내가 볼리비아와 페루와 에콰도르를 방문했을 때, 나는 선교사들이 그들이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에 대해 느끼는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부 지역 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들의 강한 열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부모와 가족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걱정하여 불안해 하지만 선교사들이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고 있는 곳의 사람들을 깊이 염려하며 일반적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적인 선교사들은 우리들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한일서 4:18)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회복 초기와 비교해 지난 60년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지내왔습니다. 박해와 환란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아마도 최근의 이 몇몇 사건들은 우리가 어깨를 펴고 지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연단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한 강하고 열렬한 간증을 갖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해서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용기와 개척 시대의 선조들이 가졌던 결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봉사하는 데 따르는 희생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위해 그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여 이 희생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그는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신앙에 관한 강론,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북크래프트사, 1985년, 69페이지)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이 시카고 민주 신문 편집자인 존 웬트워드씨에게 보낸 편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어떠한 간악한 손도 이 사업이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박해가 들끓고 폭도들이 연합하여 군대가 모이고 중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질 때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죄악을 찾아 가고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0)

주님께서는 아직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예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교회를 관리하신 4년 동안

8만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이 기쁜 회복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선별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계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번창할 것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주님의 종들은 동독, 폴란드,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에서 자물쇠를 풀고 이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지리아, 가나, 자이르, 리베리아,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 아이보리코스트, 나미비아 및 파푸아 뉴기니아를 포함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3개 국과 지역이 선교 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문을 개방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불결한 손길도 생명과 구원을 전파하는 이 신성한 사업을 멈출 수는 없지만 도전과 위험은 계속해서 따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업에는 모든 회원들의 지식, 신앙, 희생 및 최선의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42년 나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 용기를 내라...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라.”(교성 128:22)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자 요셉의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교사들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매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절대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이 위대한 사업이 마지막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아갈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당당하고 용감하게 서서”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젊은이 여러분, 신권 소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모든 적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용감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년 전 나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주 선수권 육상 경기를 관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500미터 경주를 관전하면서 얻은 교훈은 가장 인상적인 것이었으며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열두 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학교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오랫동안 열심히 훈련을 쌓은 젊은이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명의 선수가 가까이 모여서 선두 그룹을 만들어 달렸습니다. 갑자기 두번째로 달리던 선수가 앞에 달리던 선수의 발을 그의 스파이크로 찔었습니다. 선두 주자는 다음 발을 내디뎠을 때 신발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선두 주자는 경쟁자가 저지른 우연한 실수로 인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발자국 빨리 뛰어 가서 선두 자리를 뺏은 그를 따라 잡고 주먹으로 쳐서 분풀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코우치에게로 달려 가서 “오늘을 위해 이제까지 열심히 연습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관중석으로 뛰어 올라가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여자 친구에게 이런 비참한 경우가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트랙에 주저 앉아 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나는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뛸 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첫번째 한바퀴를 반쯤 뛰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하는데, 네 바퀴 중 첫바퀴를 뛰고 나서 조용히 물러나겠지.” 그러나 첫바퀴를 뛰고 나서도 그는 계속 뛰었습니다. 두 바퀴를 뛰고 나서 세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을 내 디딜 때 마다 양말을 뚫고 석탄 가루가 올라와 발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트랙에 석탄을 깔아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용기와 자제력의 표현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부모와 코치 및 지도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그는 결국 완주를 했습니다.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의 용기있는 행동을 치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침착했고 자신을 완전히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중단하는 일이 훨씬 쉬웠을 텐데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사도며 아론 신권 소유자와 그들의 지도자들의 특별한 친구였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약 4년 6개월 전 작고하시기 직전에 침대 머리에 앉은 그의 아내이며 영원한 동반자인 아멜리아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맥콩키 자매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약하고 꺼져가는 소리였지만 그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는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용기를 위해 이와 같이 강력한 뜻을 가진 두 단어를 활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에 관해 다방면에 걸쳐 연구하고 생각하고 집필하셨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선택된 종 가운데 한분이었습니다. 그후로 맥콩키 자매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전진하십시오”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와 그 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맥콩키 장로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1, 32)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원과 승영은 근본적으로 확고한 결의와 인내에 달려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내 또는 계속 전진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묵인하고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기쁘게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에 나는 아이다호주에서 분기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회중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나는 앞 줄에 있는 세명의 어린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농아였기 때문에 손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노래를 음성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영에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나는 그 스테이크의 회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노래를 들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성으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침묵 가운데 그들은 영으로 가르쳤고 정신으로 가르쳤고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음성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노래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하는 일에

대해 가르침 받았습니니다.

“나가세”라는 노래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둘러싼 산과 같이
우리 위해 세운
선조의 반석에
굳세고 용감하게 서리라
영애와 덕과
믿음의 반석 되시니
선조들은 사막 위에
깃발 휘날렸네
사막에 노래 들린다.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산과 골짜기 울리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우리 깃발 높이 세워
씩씩하고 힘차게
오 주님의 청년들아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선조들이 세운 반석 위에
우리는 주님의
황홀한 궁전을 세우며
주께 찬양하리니
선조들이 남긴 유산
금과 은이 아니라도
영원한 축복 되시니
사랑 기쁨 건강

사막에 노래 들린다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산과 골짜기 울리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우리 깃발 높이 세워
영광의 아침 향해
오 주님의 청년들아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59년 전 이 “나가세”라는 찬송가가 교회에서 처음 불리워졌을 때 그것이 당시에 시기적절했다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의 지침이요 첫번째 우선 순위이며 명백한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계속 전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약해지지 마십시오. 오직 불행과 절망만을 가져다 주는 세상적인 방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적인 영향이 쉽게 실패하거나 넘어지게 할 때에라도 굳세게 서있는 젊은이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젊은 남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교회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젊은이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대부분은 의로움과 진실 가운데 전진하는 개척자들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충실하며 모든 면에서 그릇된 행동을 유도하는 유희와 계책을 잘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젊은 남녀들이 선교 지역에서 굳은 결의를 갖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위협과 파괴와 만행,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경험을 해 왔으나 우리 선교사들의 태도는 두려움 없이 오직 “전진하세”라는 정신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방화나 파괴 및 위협의 바람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다 해서 해임이나 이동을 요청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주위에 둘러 싸인 산처럼 담대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진하도록 계속 도와 주실 것이며 그들의 사업은 좌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한층 박차를 가해져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나는 벤슨 대관장님께서 대관장이 된 뒤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재림 이전의 마지막 날에 등장하도록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는 배도했지만 우리의 시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분의 왕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가장 훌륭한 자녀들 가운데 일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잘못 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시대처럼 짧은 기간 내에 충실한 자를 그토록 많이 필요로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가야할 길을 나타내 보이는 개인적인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 결과는

분명합니다. …의로움의 세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나머지 보여져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이 싸움의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높이 우뚝 서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임된 우리의 마지막 날의 사명에 충실하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뉴질랜드의 피터 스넬은 1,600미터와 800미터 경주에서 세계 제일인 자였습니다. 나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스넬이 어디서 훈련과 달리를 하는지 보고 싶으십니까?” 나는 보고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경기장이 아닌 해변으로

안내되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뛰고 있습니까?” “모래가 발 위까지 잠기는 물가에서 뛰지요”하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뿔 때마다 모래 속에서 발을 빼내기가 힘들지요.” 나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연습을 하지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장에 서면 그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젖은 모래에서 발을 빼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가 힘든 연습장에서 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얼마후 그들은 피터 스넬이 연습하는 또 다른 장소인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연습트랙을 찾아 보려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연습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는 가파른 언덕 위를 달리지요. 그래서 그가 경기장에 설 때는 달리기가 무척 쉽습니다.” 그것이 그가 기록을 깨뜨리는 이유이며 또한 내가 그의 모범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내게 그가 날씨의 조건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피곤할 때이라도 매일 뛰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쟁 중 영국이 가장 어려웠던 때에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이 한 몇 마디에 늘 감동을 받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것을 꼭 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장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지상과 바다와 공중에서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겠지요. 한 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것이요,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이요,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신권 소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모든 적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용감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7절과 8절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야,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숭고한 예언자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계속 전진해야 함의 중요성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2편 4절에서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에게 주신 똑같은 확신으로 오늘날의 젊은이에게 약속합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네 곁에 서 계시리라.” 오늘날 우리가 전진하듯이 이 약속은 유효하고 영원합니다.

고귀한 신분으로 출생하여 일하고 계속 전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생활하는 젊은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모시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지금 까지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며 친구입니다. 주변 사람의 오해와 불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고 고뇌를 겪었던 상황에서도 계속 전진하는 일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께 행동과 기도를 통해 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은 계속 전진한다는 결심과 실천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시고 현재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순결 : 참된 성품의 근원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순결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발전에서 최종적이며 완전한 표준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나는 잘 생기고 젊은 예비 선교사와 마주 앉아 슬픔과 고뇌와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소위 친구들의 압력에 못이겨 그는 술좌석이 마련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옳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어겨가며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굴복하여 술에 취하게 되었고 그 밤이 가기 전에 순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면했던 친구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결을 지키려던 결심은 그가 처해 있던 상황에 의해 깨어져 버렸으며 그가 평생 꿈꾸어 왔던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은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수치와

깨끗하지 못함과 합당치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의 기회를 잃은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땅이 입을 벌려 나를 삼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환락의 길로 끌고 가서 그에게 그들이 가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순결이란 남아빠진 유물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했던 그들에 대해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42)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대관장단은 도덕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다른 시기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깨끗하게 생활할 것을 간청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생활은 오직 고통과 비참함으로 이끌려질 뿐이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깨끗한 젊은이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천사가 가깝습니까. ...성적으로 순결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것은 모든 의로움의 기초가 됩니다. ...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견디어 내기 위해서 건강과 힘과 영적인 권세를 얻어야 할 때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대관장단, 1942년 4월 6일)

“시온의 청소년 여러분, 사통이라 칭하는, 결혼 이외의 불륜한 성관계를 갖고 이 죄에 대해 주님께서 선포하신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듯이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대관장단, 1942년 10월 3일)

이 눈물에 젖은 친구는 그가 취한 행동의 영향력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결국 얼마가 한 말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니라”(엘마서 41 : 10)

그 비탄에 빠진 젊은이와 슬픈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주님의 집에서 인봉을 해준 다른 젊은이들과 그 젊은이의 느낌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그 행복한 부부는 완전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고 서로의 영혼을 바라 보면서 그들의 결혼이 깨끗하고 그들 머리 위에 부어질 해의 왕국의 축복에 합당하기를 고대하며 성스러운 제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그들 서로에게 맺은 엄숙한 성약에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른 신권 소유자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순결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발전에서 최종적이며 완전한 표준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은 행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니파이삼서 27 : 19)

나는 여러분이 깨끗하고 합당하고 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악한 자의 불화살”(교성 27:17)에 맞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인내하십시오. 너무 조급하게 성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인이 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하고 기대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젊은이가 되는 기회는 한번 뿐이며 오랜 동안의 노쇠 기간이 있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급함은 자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있게 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남녀가 유혹에 굴복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고 젊은 인간 나비가 죄의 불꽃에 유혹되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로 날아 올라야 할 날개를 가진 많은 인간 나비들이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날개가 상하고 타버려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나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데 만족하기 보다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죄를 범한 다음에 오는 지옥의 밤에 대해 경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빨개지고 심장의 고통이 요란스럽게 뛰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봉대로 영혼의 눈을 가리고 조그만 음막을 지어 그 안에

숨어 들어 잠을 이루려 노력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어’ ‘아무도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을거야’ 그러나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둠을 뚫고 온 손이 영혼에서 봉대를 풀어내고 비겁한 영을 위해 만든 음막을 허물어 버렸습니다.”(청소년과 교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0년, 87-88페이지)

젊은 친구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둘째—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역점을 두십시오. 주님께서 충실한 자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성 84:38)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에 한계를 정하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경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러분이 넘지 않을 한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비하여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영원토록 유혹에 당면할 방법과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십시오.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누군가, 아마도 친구가 여러분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가 말한 것을 다시 물어 보십시오.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다음에는 자신에게 물어 보십시오. ‘친구가 말한 것을 행한다면 나 자신의 규칙이나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다음 질문의 양면을 살펴 보십시오.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며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 모든 결과를 사정해 봤으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면 친구와 함께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된다고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존 더블류 라슨, 청소년의 경계선, 윤리적 결정을 내림에서, 아이빙, 미 소년단, 1985년, 14페이지 참조)

강해하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본 대관장님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청소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훌륭한 모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년시절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밖에서 혼자 우유를 짜거나 건초를 쌓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거듭 생각한 뒤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스펜서 킴본은 어떤 술도 맛보지 않겠다. 나 스펜서 킴본은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결코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또한 홍차도 손대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금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것들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요점입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나는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결코 그러한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일단 결심을 하고 나자 그대로 하는 일은 쉬웠고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많은 유혹이 따라 왔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 다. 나는 멈추어 서서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 다. 나는 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 걸. 그래서 나는 하지 않을거야’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보다 좀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는 다음 해에도 결코 홍차, 커피, 담배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술이나 약물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건방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 점을 말씀드리려 할 따름입니다. 만약 모든 소년 소녀가 좀더 성숙해지고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자립하게 될 때에 모든 소년 소녀가 양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결심했어. 그것은 정해졌어'라고 말할 것입니다."(대회 보고, 스웨덴 지역 대회, 1975년, 86~87페이지)

세째-신님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통제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루는 것은 영의 의복인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자신의 식욕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영이 육신을 통제할 수 있을만큼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항할 때, 특히 친구의 강요를 뿌리칠 때 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제는 연습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십시오.

2차 대전 중 용기있었던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 우리 모두에게 확고한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결코! 결코, 크던 작던 어떤 것도 영예롭고 좋은 일이라는 확신에 굴복하는 일 이외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1941년 10월 29일 해로우 학교에서 행한 연설, 존 바틀렛, 인용집 15판 보스턴, 리틀 브라운 출판사, 1980년, 745페이지 참조)

넷째-회개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죄 그리고 양심을 내리 누르는 짐이 우리를 파멸 지점에까지 이끌어 가는 후회로 인해 발전이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피너츠라는 만화에서 찰리 브라운은 루시에게 새해의 결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거야. 루시, 나는 금년을

결정하는 해로 정했어. 이것이 내가 나의 생애에서 고칠 일들의 목록이야...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거야."

루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난 아니야... 나는 금년 내내 지난 일을 뒤우치며 보낼거야... 찰리 브라운, 그게 유일한 길이야, 찰리 브라운... 나는 업질러진 물을 아쉬워하며 사람을 잃은 것에 한숨 지을거야... 그것이 훨씬 쉬워. 향상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한번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그것이 나를 속상하게 했어. '미래를 잊어라.' 그것이 나의 모토야. 과거를 후회하라! 오, 어떻게 과거를 후회할 것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나는 그 모든 것을 후회해. 오, 이 후회스러움, 양심의 가책, 번민이야" 찰리 브라운은 한숨을 쉬면서 그의 새해의 결심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조건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곤경에 처한 나의 친구의 질문과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나는 여러분이 아직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주님의 교회에 의해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복음의 두번째 원리는 회개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의 원리가 없이는 불완전한 우리 모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이사야 1:18)

영광스러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길이 멀고 힘들지라도, 고통과 슬픔이 심할지라도, 교회가 공의와 자비를 위해 사랑의 조치를 취할지라도 회개의 과정은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은 다시 성령의 빛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고 영혼은 순결케 되고 성결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단계를 아십니다. 늦추지 마십시오. 보다 나은 삶을 꾸미기 위해 사용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진실한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지금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소중한 젊은 형제 여러분, 순결은 남성의 근본이며 아름다운 여성의 왕관이며, 행복한 가정의 기초요 모든 영적인 발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표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준비의 중요성

벤 비 벵크스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할 결심을 하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고 진지한 경험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녁 나는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여러분과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가의 여부로 망설이고 있는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9년 전 봄에 나의 아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금년 여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동쪽으로 350킬로미터 떨어진 플레이밍 고지 공원에서 가족 친목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아빠와 저와 가족 중에 며칠 앞당겨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나머지 식구를 만나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만 우리에게는 오토바이가 한 대 밖에 없지 않니?”

벤이 말했습니다. “아뇨, 아빠,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자전거예요” 나는 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겠어요. 우리는 토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지정한 코스를 세시간 동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할 때가 왔을 때 준비가 갖추어져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꾸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전거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전거가 없었기 때문에 말에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 되고 무겁고 안장이 딱딱한 십단 기어의 자전거였습니다. 또한 나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몇 명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훈련과 준비를 할 시간 되자 나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기 위해 온갖 구실을 다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되자 나는 결국 아들과 함께 팔리스 캐년 꼭대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힘들었지만 관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행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첫날에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날에 아이들에게 합세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가 한 여행은 히버 시티에서

루즈벨트까지 약 160킬로미터나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텔에 투숙한 뒤 나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생애에서 그렇게 몸이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근육과 뼈와 살이 모두 아팠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당신 내일 나머지 가족과 함께 올 때 집에 있는 모든 연고와 로손을 가져 오구려.”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여보, 당신 무척 고통스러우신가 보군요.”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괴롭소.”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자 끔찍스러웠습니다. 딱딱한 안장에 앉아 다시 한 번 우리의 목적지까지 페달을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버널부터 플레이밍 고지까지 약 60여 킬로미터는 언덕길인데다 날씨는 섭씨 30도나 되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에게 있어 그 여행은 힘들고 끈기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리고 준비되지 않은 아빠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는 것을 언덕 꼭대기에서 기다리며 짧은 시간을 보낸 아이들에게는 그 여행이 가슴설레고 흥미있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나는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어야 할 그 일이 내가 시간을 내어 충분히 훈련하지 못한 관계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나와 어린 두 아들들을 위해 자전거를 샀으며 훈련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여름에는 480킬로미터나 떨어진 포웰 호수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세인트 조지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했으며 그로부터 매년 우리는 2년전 스코틀랜드에 선교 사업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자전거로 포털 호수까지
갔었습니다.

청남 청년 여러분, 자전거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 생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서 선교
사업은 영원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음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태복음
28:19)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고린도전서
9:16)

나의 젊은 친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로마서 1:16)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로 부름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생활하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뻔스 대관장님께서 권고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물문경을
연구하십시오. 지혜의 말씀대로 살고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나는 젊은이들이 동료로부터의 압박과
더불어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교육과 직업에 대한 소망 또는 이제 막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아니면 애인을 두고 떠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도 일곱 명의
아들과 한 명의 사위가 있는데 그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각자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권고를 들어
보십시오. “이는 내가 여러분 가장
값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심히
원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 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성 15:4~6)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할 결심을 하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고 진지한
경험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버스를 탔는데 그들이
앉아 있는 앞자리에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탄 손자가 울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선교사들이 흔히 그렇듯이
임기응변에 능한 이 두 장로는 이 어린
아이를 달래고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 소년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그 모자를 벗겨
창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한 뒤 재빨리
그것을 의자 밑에다 감추었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를 만지작거리자 선교사들은
그 아이에게 모자를 정말로 다시 쓰고
싶어한다면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자 선교사들은 재빨리 모자를
다시 씌워 주었습니다. 소년은 머리에
모자가 있는 것을 알고는 다시 벗어서
그것을 창밖으로 내던지면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한 번 해 봐요” 그 선교사들은 아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이 경험들은 영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할 때
가장 기쁘고 보람있으며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서 교회에 가입하여
스코틀랜드로 선교 사업을 나온 찰드도

자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차르도 자매가 선교사로 떠날 때 그녀의 어머니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다시는 환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여인의 신앙은 기적을 가져 왔습니다.

차르도 자매가 선교사로 나온지 약 일년쯤 되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찾아 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례를 받았으며 아버지도 교회에 참석하며 곧 토론을 공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약 2년 전에 침례를 받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토니 리든과 트레이시 맥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몇달 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의 송별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차르도 자매, 토니 리든, 트레이시 맥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 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그런고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10~11, 14~15)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청소년 여러분,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할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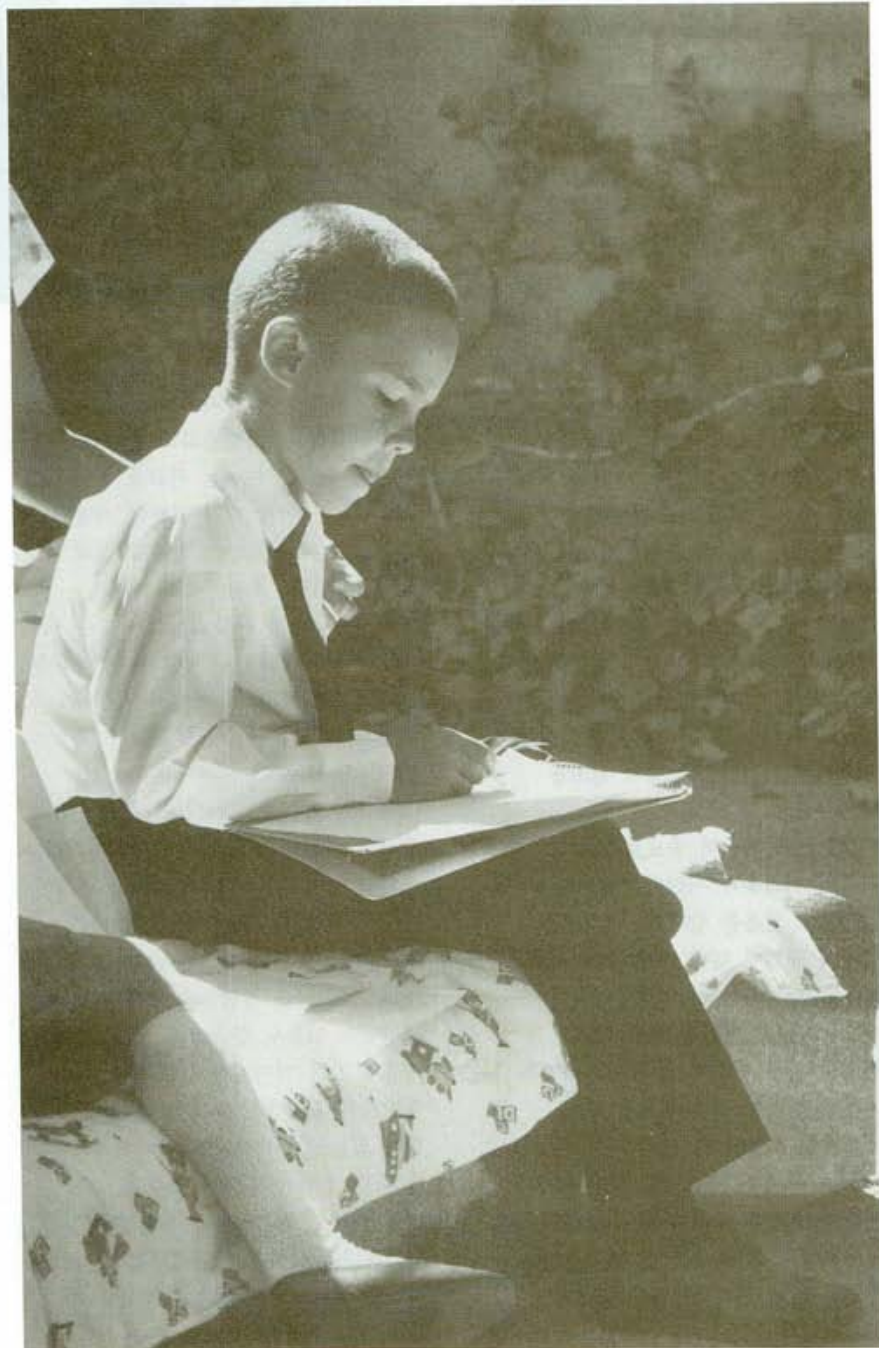
선교사로 나가 그분의 복음을 가르친다면 참으로 큰 축복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구세주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간증은 하늘에 기록되어 천사들이 볼 것임이라. 천사들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함받았도다.”(교성 62:3)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베드로전서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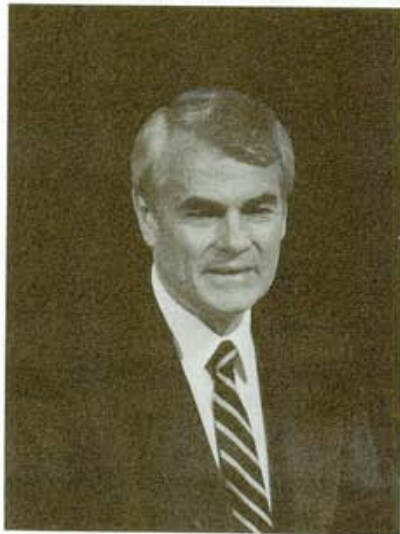
주님의 편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과 성취를 맛볼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우리의 살아계신 예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훌륭한 추억은 참된 축복임

조 제이 크리스티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훌륭한 추억은 결코 추방당할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 과 같습니다.”



형 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적이기 보다는 약간 시적이었던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결코 추방당할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다.” 훌륭한 추억은 참된 축복입니다. 오늘 저녁 나는 내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온 몇 가지 추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여기 계시는 집사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 나이쯤 되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동남부 아이다호주에 있는 바나다라는 작은 농촌에 있는 워드 감독이었습니다. 나는 부친께서 처음으로 나를 데리고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 늘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그분은 38세 쯤 되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북쪽편 바로 저 위 발코니에 앉아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는 단상에서 어느 분이 히버 제이 그랜트 내관장님이며 어느 분들이 그의 보좌인지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나는 십이사도와 다른 총관리 역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생겼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감독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그날 저녁 내가 느낀 그러한 느낌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경에서 얼마나 이렇게 절문했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나?”(엘마서 5:19)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지녀야 할 필요성이 나에게 매우 필요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친구 데이비드 칼슨과 함께 프레스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오네이다 스테이크 아카데미에서 프레스톤 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과 해롤드 비리 대관장이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그 학교를 다닌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 건물에서 몇 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1946년 프레스톤 고등학교의 운동 선수들에게도 최고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해에 우리 팀은 각종 지방 경기에서 우승을 했으며 농구팀은 주내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작은 고등학교가 큰 학교들과 시합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나에게도 좋은 친구였지만 학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년단과 신학연구원에서도 우등생이었으며 훌륭한 운동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농구선수였으며 주내에서 우승을 한 것은 그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데이비드는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병에 감염되었고 그후에 우리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18세에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스테이크 센터에서 행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서 참석해야 했던 스테이크 대회 같았습니다.

에버하드 감독님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성찬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곳에서 성찬을 축복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그가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토요일 저녁에 어떤 일을 했을까에

관해 전혀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친구에게 주는 가장 훌륭한 칭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독님께서 내가 전날 밤 어떤 일을 했는가에 관해 전혀 걱정하지 않을 그러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결심을 한다면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교 사업을 성취하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 나에게 보다 많은 것을 깨우쳐 준 또 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의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사무실을 찾아온 한 선교사의 방문을 받았습니 다. 그는 외관상으로도 보통의 선교사들에 비해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약 25세 가량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는 열여섯 살이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유럽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의 부친은 교회에 대해 관심은 없었지만 아내와 아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가였으며 그의 아들도 커서 그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경전 공부 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 “그러한 것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반대를 할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열여덟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늦은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일본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꿈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된다. 2년 동안이나 선교 사업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너는 대학 공부나 열심히 해야 해.”

아무튼 그는 당시 선교사로 나가기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지망했습니다. 그는 학사 과정으로 재정과 은행학을 공부했고 석사 과정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있는 어느 국제 은행에 채용되었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중역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여러 해 전에 일본에 선교사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생생한 꿈 이야기를 스테이크 부장에게 했을 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부름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대개 대륙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가거나 더러 영국으로 가기도 하지요.”

그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의 부친이 그 사실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2년의 공백이 아들의 경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에 건너 와서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프랑크프르트에 있는 중역 한 사람이 와서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부름을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게, 이 일이 자네에게 봉급과 진급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지 아는가? 앉아서 차분히 계산해 보게.”

그 장로는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150,000불 이상의 돈을 벌 수 없게 된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장님, 그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못벌다 하더라도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독일식 액센트로 일본말을 배워 선교사 훈련원을 떠난 몇 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일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나는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그를 채용하기 원하는 국제적인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유 경제 국가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 독어, 일어를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행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오늘 저녁 우리가 이미 뱅크스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다음과 같은 경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게 가장 값 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성 15 : 6, 16 : 6)

우리는 오랫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열의를 실행에 옮기며 그들 중 몇몇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회생을 치르는 수 많은 선교사들을 리스 대학 및 기타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보며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의 친구 데이비드가 너무나도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의 감독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신권에 대한 책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나와 함께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참석하는 아들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오늘 저녁 부친과 함께 이자리에 앉아 있지 못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을 갖게 되면 그들을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데려 오겠다는 결심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북쪽 발코니를 쳐다보니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는 청소년들이 보입니다. 나는 오래 전 내가 처음 이 자리에 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의 부친께서는 4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연차 대회 신권 모임 때면 나는 특별히 그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지상의 부모님께 누가 되거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훌륭한 추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추억은 "결코 추방당할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개개인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이 신권 대회를 감리하시는 살아계신 예언자에 의해 인도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신권 모임

중요한 봉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주님께 봉사하도록 데려올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는 길에 나는 앞문 옆에 간판이 걸려 있는 세탁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사입니다." 나는 세탁업이나 다른 많은 업종에서처럼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한 업소가 다른 업소와 구분지어지는 중요한 요인은 사실상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간판에 적혀 있는 글씨가 내 마음에서 쉽사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봉사는 중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봉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몬경의 위대한 왕인 베냐민 왕의 명성을 칭송하고 존중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권고를 받기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존경받는 왕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에게 크게 흥미를 끄는 것은 백성들이 "성전 둘레에 천막을 치되 각자의 천막문이 성전을 향하게 하여 저마다 저의 천막에 남아서 베냐민 왕이 저들에게 전할 이야기를 들으려 하였"(모사이야서 2:6)다는 것입니다. 그 곳에 모인 백성들이 베냐민 왕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심지어는 높은 대를 쌓아야 했습니다.

영감받은 지도자인 베냐민 왕은 참으로 겸손하게 그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 했던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너희를 위해 봉사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스스로 뽐내려 함이 아니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였을이라.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 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야서 2:16-17)

형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봉사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봉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가 중요한 봉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업에 참여시킬 때에 우리에게 그분께 가까이 나아 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그의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마련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훌륭한 모범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비관보다는 따라야 할 많은 표본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주님께
봉사하도록 데려올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그리고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کم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 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이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10-11,
13-16)

몇해전 모뉴먼트 파크 웨스트
스테이크 대회의 신권 지도자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이 성구가 복지 위원회에서
온 방문자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예전 스테이크 부장님, 폴 시
차일드였습니다. 차일드 형제님은 그의
독특한 스타일로 연단을 내려와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모여 있는 사이로
나있는 복도를 걸어가시며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کم을
기억하라”(교성 18:10)는 성구를
인용하신 다음 “누가 인간의 가치에
대해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차일드
형제님께서 자기에게 질문할 경우에
대비하여 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그러한 지도력 아래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고등
평의원이나 감독단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받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형제를
부르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명단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형제는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차일드 형제님은 경전을 덮고 단으로
걸어 올라 가며 내 곁을 지날 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심오한 대답이요,
심오한 대답이야.”

미래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마음 속에
확고히 갖게될 때 우리는 영들을 그에게
데려오는 훌륭한 사업에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인 지금부터 주님의 대업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일년 전 쯤 추수감사절이 지난 뒤
나는 내가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던 때에 알게 된 미망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감독단이 주최한 만찬에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그녀가
느낀 평안함과 가슴에 가득찬 감사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몬슨 부대관장님,

“나는 지금 바운티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 스테이크의
사람들이 그림지만 내가 겪은 훌륭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월 초에
모든 미망인과 연로한 사람들이 훌륭한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와드의 청년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정말 멋진
젊은이가 찾아와 나와 다른 자매를
스테이크 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차를 세우자 다른 두 젊은이가 우리를
예배당 안으로 안내했으며 그곳에서 다시
젊은 여성들이 우리를 홀로
안내하였으며 우리는 걸옷을 벗고 홀로
들어와 잠시 앉아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리를
식탁으로 안내하여 양쪽에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훌륭한 추수감사절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그후에 훌륭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후식이 나왔는데
사과 파이와 호박 파이였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그곳을 떠났는데 떠날 때
얇게 썬 칠면조 고기와 빵이 두 덩이씩
들어 있는 비닐 백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보여 준 사랑과 존경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다른 사람들 이처럼 대해주는 훌륭한 젊은이들을 볼 때 나는 교회가 훌륭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은 나이를 먹었지만 늘 주님께 봉사하는 이 훌륭한 젊은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의 서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

나는 이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고 그들의 영혼에 화평을 가져다 준 지도자 및 젊은 남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봉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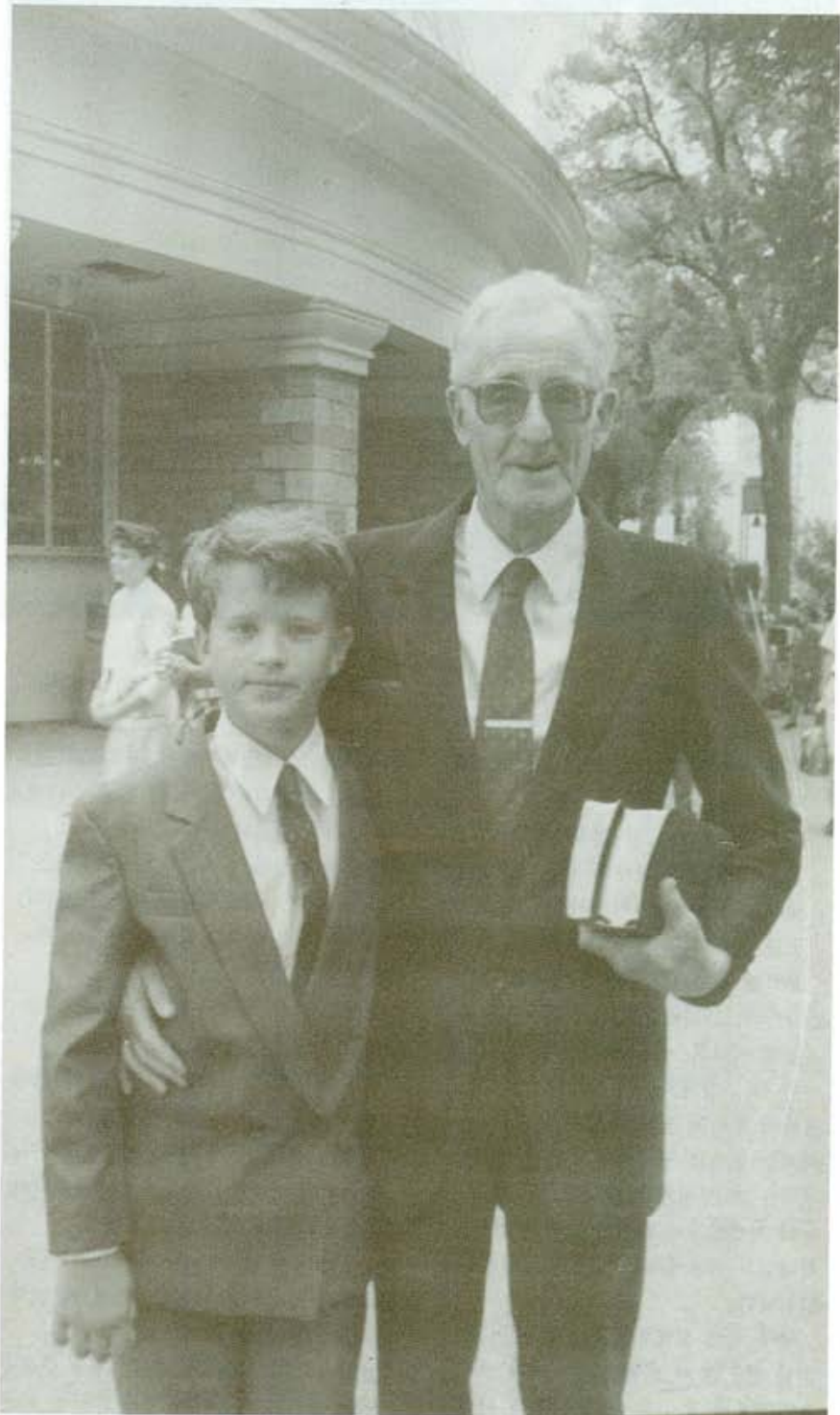
조셉 밀레트렛은 개척 당시 훌륭한 선교사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불과 18세 때에 캐나다의 메리타임 프로빈스 선교부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실망도 했지만 주님의 기적적인 증제로 신앙을 강화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봉사한 이 사람은 선교 사업을 통해 궁핍함이 무엇이며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으며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지에 적어 놓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뉴튼 홀 가족에게 식량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나는 홀 형제 가족에게 보낼 밀가루를 자루에 담고 있었다. 그때 홀 형제가 들어 왔다. 내가 말했다. ‘홀 형제님, 식량이 없으시다면서요?’

“밀렛 형제님,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님, 저 자루에 밀가루가 좀 있습니다. 형제님에게 보내려고 따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님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식량이 떨어졌다고 말했다더군요.’

“홀 형제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식량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나무 숲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주님께서는 조셉 밀렛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홍 형제님,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감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님은 저에게
빛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조셉 밀렛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형제님은
모르실 것입니다.”(유진 잉글랜드,
뉴이라, 1975년 7월호, 28페이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참새가 죽는 것까지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필요 사항과 우리가
바치는 봉사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친한 친구인 지 매리온 헝클리가
유타군에서 그의 두 손자와 함께 나의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이 손자들은
형제로서 한 명은 일본에서, 다른
한 명은 스코틀랜드에서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헝클리 형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자들이
경험한 훌륭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소.”
그는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멀리 일본의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생을 불러 세우고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어느 선교사와 그의 동반자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찰을 가리키면서 자신들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사지 않았습니다.

몇달 후에 스코틀랜드에서 봉사하고
있는 형은 두 명의 선교사에게 왜 지역
모임에 늦게 도착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끈질긴
어느 거리의 사진사가 일본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어린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팔려고 해서 사진에 관심은 없었지만
지역 모임에 더 늦지 않기 위해 그
사진을 샀다고 했습니다.

“있을법한 이야기군요.” 램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램
장로에게 그들이 산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봉사하는 자기 동생의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내 사무실에서 그들은 사진 두
장을 보여주면서 빙그레 웃으며 허락의
뜻을 보이는 할아버지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그의 종들을 지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무실을 떠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주님께서는 그의
선교사들을 돌아 보시고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손자 및 선교사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사람을 돌아 보시지.
그리하여 고귀한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도록 말아야.”

오늘날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의
선봉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기억하실까요? 그들의 필요
사항과 마음의 소망을 아실까요?
영예롭게 일했지만 충실히 봉사하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 이제는 해임되어
무수한 교회 회원 가운데로 돌아가 그
이름이 잊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한 개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나는 간증합니다.

몇년 전에 나는 모데스토 캘리포니아
스테이크를 분리하도록 지명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 모임을 가졌으며
새로운 부장단이 결정되고 일요일
총회에서 발표할 내용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일요 총회가 시작될 무렵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전에 모데스토 스테이크에
와 본 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였을까 하고
나는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모데스토는 여러 해 전에 산 조아킨 스테이크에 속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클리프톤 루커였습니다. 대회 중 나는 그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해 전 일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고 나는 스테이크 부장단이 연단에 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스테이크가 클리프톤 루커가 감리하던 스테이크인가요?”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에 우리 스테이크 부장님이었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루커 형제님은 오늘 여기에 오셨나요?”

그들은 “네. 오늘 아침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스테이크가 분리되는데 그는 어디 앉아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요.”하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건물은 사람들로 packed 있었습니다.

나는 연단으로 걸어 나가 물었습니다. “회중 안에 클리프톤 루커 형제님이 계십니까?” 그는 설교단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먼 활동실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그에게 이야기하라는 영감을 느꼈습니다. “루커 형제님, 단에 형제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올라 오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 클리프톤 루커는 건물 뒤에서부터 앞까지 걸어 나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 스테이크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를 지명하여 간증을 하도록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께 바친 봉사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베푼 봉사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커 형제님, 고등



평의원실로 와서 새로 부름 받은 두 스테이크 부장단의 안수를 도와 주시겠습니까?”

그는 “큰 영광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고등 평의원실로 가서 해임되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더불어 새로 부름받은 두 스테이크 부장단을 성별했습니다. 루커 형제가 집으로 가며 작별 인사를 할 때 우리는 포옹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클리프톤 루커의 아들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몬슨 형제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 가시기 전에 어제가 그분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커 형제의 아들로 부터 메시지를 전해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 훌륭한 사람을 초청하여 아직 그가 살아 있을 때 그가 봉사했던 스테이크의 회원들 앞에서 치하를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영감을 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과 이런 헌신적인 봉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구속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31~40)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불법 마약의 재앙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이 약품을 취하는 것이 성스럽지 못한 행동임을 의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이 파괴적인 물질로 인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시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대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취되고 동기를 부여받은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속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많은 청남들과 성인 형제들이 모인 이 반 연차 대회는 독특하고 훌륭한 종교적인 대회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활동적으로 봉사하시다가 영예롭게 해임되신 칠십인 정원회 형제들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다른 분들이 점차적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행정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 요구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일정한 기간 동안 온 시간을 다 바쳐 일할 신앙과 능력을 지닌 형제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광고된 바와 같이 칠십인 형제들에게는 로테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령과 건강 상태가 형제들에게 요구되는 봉사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해임되시는 분들과 명예 역원으로 남게 되시는 분들에게 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를 포함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 사업에 여러분 자신을 헌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지역 어느 곳이나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갔습니다. 여러분은 길고 피로한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회원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건강이 위태로울 때에도 봉사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때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겨질 때에도 여행을 했습니다. 맡겨진 임무 수행에 온 시간을 바치기 위해 개인적인 재산까지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의 권세를 행사하였으며, 주님의 성전에서 성스러운 인봉의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설교단에서 권세와 확신과 위대한 설득력으로 청중에게 말씀하셨으며 마음 속에 있는 강하고 분명한 간증으로부터 솟아 나오는 진지함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부인들 또한 이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들도 희생을 치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남편이 성스러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동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과 걱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깊고도 진정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형제님들은 총관리 역원의 부름으로부터 해임되기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판단력과 지혜를 지닌 분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워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엄청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의무를 수행하도록 부름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형제님들은 결국 우리 모두가 먹게 되는 나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일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이나 감독 여러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낸 뒤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들은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서 온 세상을 관리하는 일에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존경과 이해를 받음이 합당합니다. 그들의 상태와 환경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훌륭하게 성취한 업적에 대한 치하와 함께 총관리 역원의 활동에서 물러납니다. 그들과 그들의 동반자와

더불어 우리가 누렸던 훌륭한 관계로 인한 사랑과, 그들의 삶에서 보여진 선함과 굳건함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건강과 힘과 그들이 이제까지 생활해 온 바쁜 계획으로부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과 더불어 주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동반자를 축복해 주셔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세월 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들은 떠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온전히 자신을 바쳐 헌신하던 의무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봉사하던 활동으로부터 갑자기 물러나는 것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강하고도 운동력 있는 간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진실하며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욕은 진지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한 것으로 인해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다른 주제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최근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문제로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적인 약물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수년 동안 불법적인 약물 퇴치에 관여해 온 공무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와 다른 나라가 불법적인 마약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세상의 인적 및 금전적인 자원의 유출은 측정할 수도

없으며 자유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약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도덕이 무너지고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이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와 교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개인적으로 마약에 접한 경험이 있으며, 반 정도가 약물을 직접 사용했던가 가족 중에 사용한 사람이 있다. 놀랍게도 전 국민의 43%가 마약이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했다.”라는 전국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놀랍게도 조사에 응한 사람의 70% 이상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반 이상이 마약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70%가 학교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다시피 미 대통령은 마약 문제를 국가가 당면한 가장 무서운 공포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찰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교도소를 짓고 기타의 일을 하는데 79억 달러를 들여 마약과 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에 대답한 사람들은 이 싸움이 승리하리라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다만 삼분의 일이 정부의 프로그램이 마약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상당히 좋은” 또는 ‘꽤나 괜찮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한 한 여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는 육신이 하나 뿐이야. 나는 그것이 평생 필요할거야’”(월 스트리트 저널, 1989년, 9월 22일, 1페이지)

나는 이 여인의 말에 동의합니다.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약물 복용의 결과가 오직 슬픔과 고통과 후회와 심지어는 죽음 뿐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에만이 상황이 상당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비록 유타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이들 가운데 약물의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우리는 국가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며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 지혜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서투른 변명입니까! 지혜의 말씀에는 물없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고속도로를 가로 질러 뛰어 다니는 일의 위험성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의 치명적인 결과를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불법적인 물질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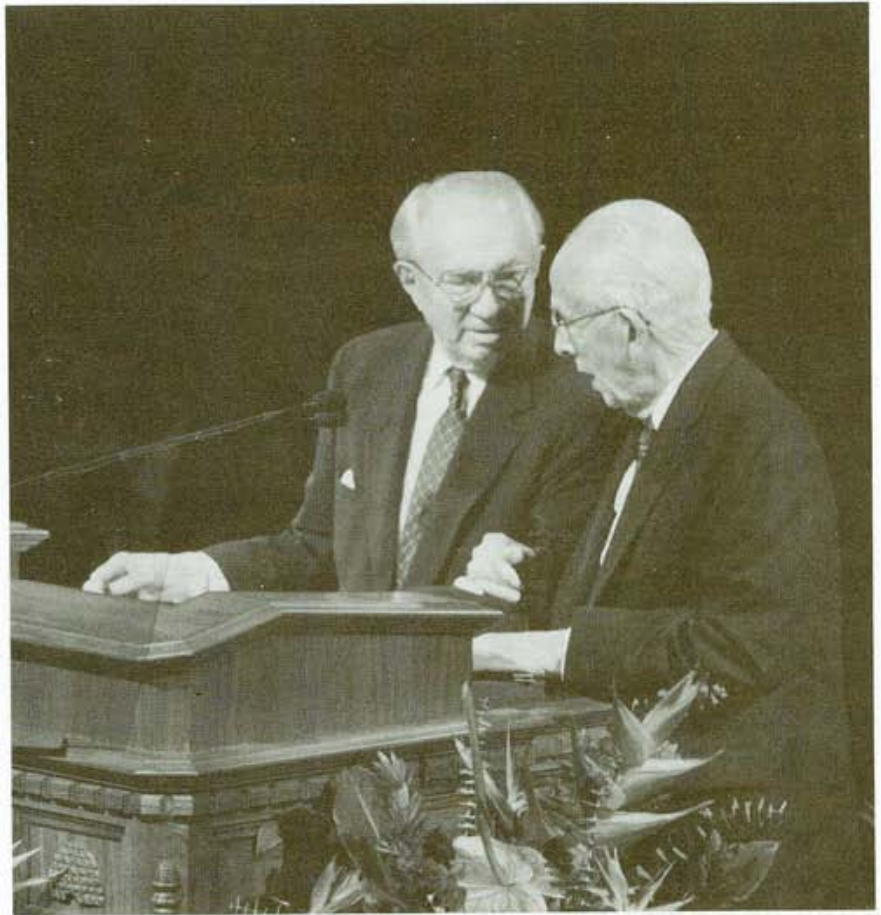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놀랍고도 훌륭한 육신은 그분의 솜씨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가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우리는 육신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거듭 거듭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주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니파이 민족과 레이맨 민족이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때 강했던 니파이 민족이 “저들의 형제 레이맨들처럼 연약해졌음을 알았고, 주의 영이 다시는 저들을 지켜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영은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심에 저들에게서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라맨서 4:24)

엘마는 제이라해틀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성스럽지 않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든 더러운 것과 정결치 못한 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엘마서 7:21)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이 약품을 취하는 것이 성스럽지 못한 행동임을 의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성전이 이 파괴적인 물질로 인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시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면 다시는 그러한 것에 손을 내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권은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은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바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적용되도록 즉시 시작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약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이 불법적인 물질을 원할때 그것을 거부하기는 더욱 더 어려운 것입니다. 힘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반 연차 대회 신권 모임 중 설교단 옆에 힐러리 부대관장과 함께 계시는 벤슨 대관장님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마약의 늪으로 함께 잡아 끌고 들어갈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결심을 지키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 남미의 한 나라에서 미국 선교사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도 훌륭한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 들입니다. 대부분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며 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재가 마약을 만들어 관리하고 판매하는 강력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마약 거래를 거부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상황입니다. 상당한 요구와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공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파괴적인 산물을 재배하고 거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싸우다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의 피를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분명 여러분은 인간의 지상 생활의 본질인 육신과 정신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이 가장 값진 재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친지의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신체적인 건강과 깨끗한 정신이 필요함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흥미를 위해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부러진 뼈는

접골되고 다시 정상 기능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악한 물질로 인해 약해지거나 상해를 입은 육신은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마약이 가져온 자기 가치와 자신감의 파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장 중지하십시오. 앞으로 언젠가 유혹을 받게 될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거절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그의 거룩한 신권으로 축복을 받았으며 여러분이 살게 될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육신과 정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내던져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후손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코카인 아기라고 불리는 내용의 기록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엾은 내용을 본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중독자의 어머니에게서 잉태되어 끔찍한 불구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듯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어린이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사회 복지 기금으로 평생 보살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납세자로서 이러한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를 거의 파괴시켜 버린 마약을 거부할 능력조차 갖지 못한 부모에 의해 생명의 선물을 심하게 학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영국과 유럽 제국을 휩쓴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현대의 마약은 세상의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것이 가져오는 죽음은 빠른 것이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과 후회 가운데 보내는 오랜 시간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의 질병과는 달리 불법적인 약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법이 분명하고 비교적

쉽습니다. 단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 태버나클 내에 있는 청소년을 보면서 나는 약 10년 후면 이 자리에 있는 최 연소자일 경우라도 스물두살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때 쯤이면 영예롭게 선교 사업을 마쳤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있는 제사들은 대개 교육을 마치고 선택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10년은 빨리 지나 갑니다. 그 세월은 마치 해가 떴다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신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약이 지혜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악한 파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계시에 담겨 있는 축복이 똑같이 적용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18~21)

성인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든 이 교회의 어느 회원도 이 무서운 재앙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나처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어서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따르는 이 무서운 파괴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형제로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붉은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자 제럴드 디 오블리 형제, 붉은 태버나클 합창단은 일요일 오전 모임과 오후 모임에서 합창을 했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펠슨 대관장



토머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십이사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모이드 케이 패커



아민 케이 예쉬란



윌 롬 페라



데이비드 비 웨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영 닛슨



앨런 에이치 욱스



앨 러셀 벨라드



조셉 피 웨스턴



리차드 커 스크로트

칠십인 회장단



단 엘 러슨



메리온 디 랭스



로버트 엘 맥켄



제임스 펄 캐리모어



제이 리차드 클라크



크리스 디 파미가



칼로스 이 예시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안원 아브라함



윌리엄 알 브러드포드



테드 이 브루어블



에릭 앤저오 부러



론 캐이 카맥



조 케이스틴슨



킨 알 클



테리 레이 커스버트



아담 디아가



폴스 디네이



로렌 시던



론 케이 퍼디스도운



켄 에이치 고슬린드



켄 에이치 그로버그



티블류 유진 엘슨



세프리 말 플린드



에프 버논 하워드



맷틴 케이 플슨



에드나 와이 고마프



윈스 비 링거



에이치 버크 피터슨



휴 디블류 피녹크



로날드 이 포플렐



하드만 에티 이네



에드나 와이 고마프



모버트 이 웨스



로날드 이 포플렐



하드만 에티 이네



에드나 와이 고마프



윈스 비 링거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



칼로스 에이치 아머도



에이치 빌란 앤더슨



앤저민 피 뎅크스



몬트 케이 브러브



필도 피 콜



필리오 알 카마고



조지 아이 캐년



앨버트 줄즈 이케



스탠서 케이 콘디



토이트 피 조오저



프랜시스 엘 기만즈



에프 앨민 하운드



조지 알 힐 3세



명문 셋 플슨



엘 리오넬 렌드러



존 알 라스터



리차드 피 린지



말린 텍스 리버트



다글러스 케이 마운



제럴드 이 필핀



앨런산더 비 모리슨



셀 알든 포터



글렌 엘 레드



가드나 에이치 러셀



모버트 이 색플리



미클러스 에이치 스미스



린 에이 소린슨



호레이오. 에이 테노리오



미클러스 에이치 스미스



클렌 엘 페이스



로버트 다 매일즈



필리 비 아이어링

관리 감독단

미클러스 에이치 스미스 린 에이 소린슨 호레이오. 에이 테노리오

만방에 기를 세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형 제 자매 여러분, 커스버트 형제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태버내클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언제나 대단히 훌륭한 임무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잠시 142년 전의 이곳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태버내클도 없었으며 성전이나 성전 광장도 없었습니다. 1847년 7월 24일, 이 백성들의 선발대가 이 계곡으로 들어왔으며 그들 중 선두 그룹은 그보다 하루나 이를 먼저 도착했습니다. 브리감 영이 도착한 것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과 오후에 안식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회당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7월의 폭염 속에서 형제들이 말씀할 때에

수레 위에 걸터 앉거나 바퀴에 기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을을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하느냐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영 대관장은 그 당시나 또는 그 후에도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주위를 탐사하기 위해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브리감 영, 윌포드 우드럽 및 그들의 몇몇 동료들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그들의 야영지로부터 이곳을 지나 우리의 북쪽에 위치한 언덕까지 산을 올라갔습니다. 당시 영 대관장은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등근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형제들은 정상에 올라서서 남쪽에 있는 이 계곡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은 산맥으로부터 호수로 물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 자라는 수목들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브리감 영이 “이곳이 그곳이다”라고 말씀했던 곳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었던 정상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기봉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기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 올 것이로되”(이사야 5:26)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이사야 11:12)

윌포드 우드럽이 주머니에서 바나나색 손수건을 꺼내 이곳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나아가야 하며, 이곳으로 지상의 온 백성이 모여야 할 것이라고 만방에 깃발로서 혹은 표준으로서 흔들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당시 그들이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날 이곳에서 몇피트 동쪽에 서있는 성전 건물에 관해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이사야 2:2-3)

어떤 사람이 1847년 7월 아침 이들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커다란 꿈을 지닌 정치가들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다. 그들은 지도를 살피며 제국을 구상하는 지배자들 같지도 않았습다. 그들은 미시시피강변에 건설한 자신들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서부의 이 황량한 지역으로 쫓겨난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전과 계시의 말씀에 따른 이상향을 소지하고 있었습다.

이 작은 무리의 통찰력에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고 야심에 찬 것이었으며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부로 가는 가장 인접한 거주지와는 약 일천 마일 떨어져 있었고 태평양과는 약 팔백 마일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었습다. 그들은 생소한 기후속에 있었으며 토양도 그들이 가장 최근에

살았던 일리노이와 아이오와의 검은 토양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곳에서 곡식을 재배한 적도 없었으며 겨울을 지내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곳에서 건축물을 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부로부터 이 계곡까지 일천 마일 이상의 여행으로 인해 다 낡은 장화를 신고 해진 옷을 입은 이 예언자들은 복천년의 시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때의 놀라운 상태에 대한 예언자의 시현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그날 언덕을 내려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좁은 길만을 바라보고 걸으며 세상적인 책임만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웅대한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에는 말을 끌고 다니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마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의 고삐였습니다. 고삐에는 양측에 하나씩 눈가리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앞으로만 똑바로 볼 수 있으며 옆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놀라거나 주의가 산만한 것을 방지하고 오직 앞으로 길을 가는 데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몇몇 사람은 자신의 눈에 눈가리개를 차고 있는 것처럼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오직 작고 좁은 통로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다 넓은 것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이 교회 내에서 작은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 책임이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해럴드 비 리 대관장님은 언젠가 이 연단에서 저자 미상의 "넓은 지역을 내다 보며 작은 것들을 개발함"이란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프로그램에 관한 폭과 깊이 및

높이, 웅대함과 훌륭함, 그리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인식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가지씩 개발해야 할 작은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성스러운 이 사업의 보다 중대한 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며 우리 각자는 그 훌륭한 비단을 짜는 데 있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헌이 비록 작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다음과 같은 자장가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

작은 물방울과
작은 모래알이
드넓은 바다를 만들고,
쾌적한 육지를 만드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수 많은 작은 노력들과 활동들이 범세계적인 위대한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1907년 3월 26일 대관장단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관심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악의에 찬 비평을 하는 세상에 대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관장단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편협하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에 존재하며 미래에 존재하게 될 필멸의 존재인 인류를 생각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하여 영원처럼 넓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깊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임프트브먼트 이라, 1907년 5월호, 495페이지)

우리는 정원회와 보조 조직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가족

역사과의 조사자로 그리고 성전 봉사자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들로부터 그 포괄성에 있어서 광대하며 이 지상 만큼이나 넓으며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주목할 만하며 경이로운 행동 양식이 생겨납니다.

우리 각자 해야 할 자신의 직분을 잘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되며 모든 천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해 준다면 그곳에 힘과 아름다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동기가 일상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했던 동기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 시온을 건설하는 일이며 고대에 받은 예언과 이 경륜의 시대에 계시된 시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직으로써 그것은 이제 겨우 일세기 반 조금 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다스릴 권능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위대한 복천년 형태의 일부로써 이 지상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퍼져나갈 것입니다.

영 대관장과 그의 형제들이 이곳에서 북쪽에 있는 봉우리에 서서 만방에 전파될 기호에 관해 말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곧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불과 오년 후인 1852년 8월에 이 광장에 있었던 옛 태버나클에서는 특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허버 시 킴볼 회장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약속에 따라 평소보다 한달 먼저 이 사업을 수행키 위해 특별 대회를 열고자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선택될 장로들도 전보다 일찍 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동안에 부름받게 될 선교사들은 그리 오랜 기간 봉사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삼년에서부터 길어야 칠년 정도 가족과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는 해외의 선교부로 예정된 98명의 이름을 낭독하였습니다. (조셉 아이 얼, 가족 역사)

이 백성들이 이 산지에 발판을 구축하려고 투쟁할 때에 그들의 안락이나 안전, 가족의 복지 및 그밖의 다른 것들을 고려하기에 앞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나에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서부와 미주리강 및 미시시피강 사이의 광대한 평원을 가로질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무리의 말일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동부의 제주와 유럽으로 여행하던 선교사들은 자신이 살던 땅에서 서부의 시온으로 집합하는 개종자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한편 서해안으로 가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나 심지어는 홍콩, 중국, 사이암, 실론 및 인도까지 가는 장로들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방에 기호를 세우는 위대한 모습의 전부였습니다. 그 일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여개의 국가에서 교회 선교사들이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 이후의 세대들은 오늘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있게 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에 관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한 고대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14 참조)

나는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 광장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거리가 만들어진 이면에 숨겨진 시련들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약 삼백 오십만의 방문객들이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모든 주와 캐나다의 전지역 그리고 기타 지상의 여러 나라들로 부터 왔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논평은 말일에 열방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의 길을 따르기 위해 올 것이라는 고대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논평들 중 몇 가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온 한 신교도: “나는 물몬이란 말에 관해 자주 들어 왔으며 그것을 광적인 집단으로 연상해 왔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메사추세츠주에서 온 조함교회 신자: “나는 종교란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그것을 보여줍니다!”

메인주에서 온 한 기독교도: “이곳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심을 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온 한 천주교도: “나는 여러분의 생활 방법이 부럽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장로교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기독교도: “나는 이곳에 있는 나 자신이 아주 즐겁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면서도 아무런 돈을 요구하지 않는 곳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편견을 갖고 왔다가 감사와 호기심을 갖고 떠납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업은 모두 우리가 지상의 하나님 왕국으로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모습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성전과 그밖의 교회에 다른 성전들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지역적인 교회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넓은 시야를 갖고 광범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집단이 온 세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확실히 이 성스러운 집에서 계속되는 사업은 모든 사업 가운데 가장 현직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죽음의 장막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의식과 성약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까지 성스러운 의식을 받아들여가서 거절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그의 회생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며 산자건 죽은 자건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영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구원의 주이신 아들에 관한 위대한 본보기의 일부가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과 주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인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깃발을 날리며 주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한 왕국의 열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교성 113:6 참조)

이 위대한 왕국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나는 만방에 기준이 될 깃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처에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걸으며 주님의 길을 배움시다. 이곳에 이 말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위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의 열국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만스럽게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말하며 인간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말합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즉
여러분이 부름받은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
목적에 관련된 장엄하고 놀라운 영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화려한 비단을 여러분의 조그만 실로
아름답게 엮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표준을 높게 세우십시오. 그 깃발
아래에서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도록
근면하고 진실하며 유덕하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국의 이상은 해가 뜨면 사라져
가는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며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국의 주초를 놓기 위하여 이 서부
계곡의 잡목을 제거할 때와 살아남아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큰 이념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조들이 간직했던 것과 같은
이상을 갖고 우리가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난 후에도 계속될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뜻에
따라 부름받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미완의 손으로 왕국을 세우며 하나의
완전한 원형을 이루기 위해 함께
결합하도록 도움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성찬—희생 제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찬식에서 갖는 가장 값진 경험은 성스러운 성찬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구세주와 그의 희생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말씀이 “진리의 영”에 의해 이해되고 또 나의 표현들이 “진리의 영”을 통해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덕으로 인도되어 함께 기뻐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간구합니다. (교성 50 : 21~22 참조)

나는 오늘 여기에 서서 감사의 말씀과 성스러운 중재에 관한 고마움을 말씀드리려 하지만 내 영혼의 느낌을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6개월 전인 4월 연차 대회 때에는 아주 큰 수술에서 회복중이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을 면제 받았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 났고 이제 나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및 그밖의 동료들의 축복과 위로 및 따뜻한 도움과 더불어 나의 사랑하는 아내 루비와 가족에게

그들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기도를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감어린 의사들과 사려 깊은 간호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된 세계 각지로부터 받은 사려 깊은 편지와 신앙과 소망의 메시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감사하게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특별한 카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밤하늘에 떠있는 아르타 룬니 발리프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설명문에는 시편에서 인용한 글귀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시편 147 : 1, 3~5)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관해 명상에 잠겼으며 메리온 지 룬니 회장의 여동생이 그린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그림과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는 시편의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별의 이름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개개인 즉 여러분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씩우셨나이대”(시편 8 : 3~5)

남에게 기억되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건강이 위기에 놓여 있던 그날 저녁에 나는 아주 중대한 일이 내게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너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극심하게 몰려왔고 나의 사랑하는 루비는 의사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나는 목욕탕 욕조에 무릎을 꿇고 기대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위안 및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그분의 뜻이라면 그의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차의 사이렌을 마지막으로 들으며 나는 의식을 잃었고 그것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무서운 고통과 사람들의 소음이 멎었습니다. 나는 아주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에 있었으며, 모든 것이 맑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멀리 언덕 위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중 한 분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계셨습니다. 자세한 얼굴 모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은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거룩한 분의 면전과 분위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감에 따라 인자의 영원한 사명과 승영하신 상태에 관한 느낌이 더욱 더 내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구세주요, 모든 인류의 구속주이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 및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진리를 전에 알았었고, 결코 의심하거나 의아해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내 영혼에 감동을 준 영의 영향을 통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써 이 신성한 진리를 압니다.

나는 침례, 가르침, 병자와 앓은뱅이를 고치심, 조롱을 당하시던 고통,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과 승천 등 구세주께서 베푸신 지상에서의 성역을 연속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경전에 나오는 목격자들의 설명을 확인시켜 주는 구세주의 초기 성역의 장면이 감동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졌습니다.

나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해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주님이 배반당하시던 날 저녁에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후, 주님께서 그의 회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만찬인 성찬에 대해 가르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도들 개개인에 대한 구세주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는 너무도 인상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사도들 각자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 주시고, 빵을 떼어 축복하시며, 또 포도주를 축복하신 다음 한 사람이 그를 배반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떠날 것을 설명하시고 곧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구세주께서는 열 한명의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 : 33)

구세주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며 아버지가 그의 권능과 권세의 근원이시며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근원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경건하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 : 3~5)

구세주께서는 자신에 대한 간증이 충실하여 세상 중에서 부름받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요한복음 17 : 20) 간구하셨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나서 예수님과 열한 명의 사도들은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 동산에서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누가는 동산에서의 주의 고뇌가 너무도 커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 : 44) 그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짐과 고뇌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구세주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영광에 오르신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멀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그런고로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 내가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너희를 낮추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여 내가 말한 형벌 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겪지 않게 할지니...”(교성 19 : 15~16, 18, 20)

의식을 잃었던 며칠 동안 나는 성신의 온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에 관해 보다 완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충실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의 이름으로 하늘 왕국의 신비를 풀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관해 보다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배반에 관한 사건과, 조롱의 시련, 신화의 한 분이신 바로 그분의 육신에 가해지는 채찍질 등에 관해서 여러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쇠약해진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언덕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았으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두 발과 손과 손목에 못을 박으려고 십자가 위에 누어진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겪으셨던 끔찍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심은 창세 이전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활을 통해 만물보다 높게 들리우시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돌아가심으로써 만물보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교성 88 : 6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며 그의 육신은 무덤에 누워졌습니다. 불멸이 되신 예수의 영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등급으로 필멸의 생을 마친 수많은 영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의 굴레에서 구제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극히 영광스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일은 인간 가족을 위하여 구세주께 예임된 독특한 사업이었습니다.”(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671페이지)

이러한 장면들이 내 영혼에 확신을 준 그 깊은 영향력을 여러분께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들의 영원한 의미를 느꼈으며 다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계획 중 어떤 것도 중요성에 있어서 모든 일 중 가장 위대한 사건인 대속을 위한 주님의 희생에 비유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복음과 그 이외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브르스 알 맥켄키, 물론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6년, 60페이지)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아곱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성스러우신 메시아의 뜻 안에 성스러우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시나니, 그는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라.

“보라, 주는 죄 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뜻을 이루시나니, 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그러하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거룩하신 메시아는 육체를 따라 생명을 버리시나, 영의 권세로 생명을 다시 취하시, 일어설 자 중에 첫째가 되시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저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사, 만 인류를 위하여 중재하시어 변호하시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니파이서 2 : 6~9)

성찬식에서 갖는 가장 값진 경험은 성스러운 성찬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구세주와

그의 희생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게 주님의 빵과 잔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 : 27~30 참조)

구세주께서도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니파이삼서 18 : 29)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의 죄에 대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주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일 우리가 끝까지 충실할진대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요셉 스미스에게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고” 계시하셨으며 구원의 계획에는 구세주의 것으로서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회원은 자주 모여 주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필요가 있느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성 6 : 13; 20 : 75)

불멸은 의로운 행위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주님의 복음에 따른 율법과 의식에 순종할 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간구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간증드립니다. 내가 추가하여 알게 된 지식은 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원한 기쁨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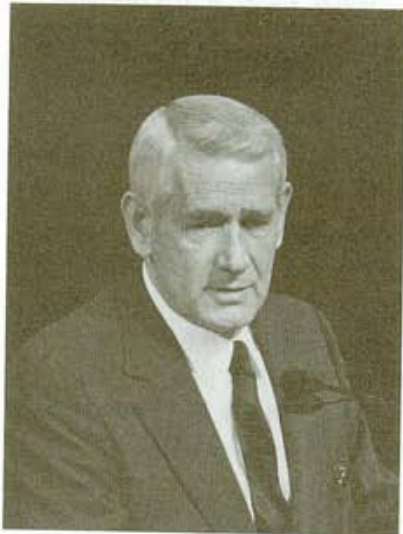


태비내골에 들어오시는 벤슨 대관장님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맥스웰 장로가 인사함.

우리 영의 시계에 태업을 감음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및 휴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 경전 공부, 안식일 예배, 성찬 참여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우리의 영적인 활력에 필요합니다.”



어제 몇 명의 칠십인 정원회 회원의 지위 변경에 대한 발표 이후 나는 이들 훌륭한 분들에게 적절한 찬사의 말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말로는 적절하지 못하며 실제로 그들에 대한 진정한 찬사는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 영향력이 후세에까지 계속 미칠 온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비록 그들 중 몇 분들과는 과거처럼 자주 접촉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예전처럼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세상 곳곳에서 교회의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나머지 중 일부가 곧 뒤따르게 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기도, 깊은 존경과 찬미 및 우리의 영원한 감사를 받으며 가십니다.

우리집 부엌에는 시계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것은 태업을 감는 시계입니다. 말하자면 7일이나 8일에 한번씩 열쇠로 태업을 감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 시계는 점점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시계 종소리는 둔해져서 제 소리를 잃게 되며 결국 다시 태업을 감을 때 까지 그 시계는 멈추게 됩니다.

때때로 이 시계에 태업을 감으면서 나는 만약 내가 나의 육신의 힘을 이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젊고 왕성하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방법에 따라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운동이나 휴식 또는 적당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부분적이거나 옛날의 원기를 되찾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육적인 시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계의 기능은 점차 둔해집니다. 종소리는 점차 약하게 울리며 어떤 때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시계를 계속 가게

하고자 하는 나의 온갖 소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 시계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 중 한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갖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인생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시계가 느려짐에 따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과 함께, 심지어는 다른 국면이 전개될 보다 위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까지 갖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진지하게 현실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작동하는 또 다른 상상의 시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시계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시계와 몇 가지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시간이 맞고 또 올바른 음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태업을 감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시계와는 달리 영적인 시계는 꼭 종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적당한 주의와 정기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것은 더욱 활기차고 그 움직임이 더 완전해지며 음조가 더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 부엌 벽에 걸려 있는 시계처럼 정기적으로 태업을 감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박자가 느려지며 또한 느려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시계는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정기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시계는 매우 빨리 고장나게 됩니다.

바로 40년 전, 194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평의회 엘버트 이 보인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필멸의 상태로 있으며 연약한 결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즉흥적인 욕망에 따라 완전한 율법의 높은 표준을 떠나도록 유혹받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높은 곳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고결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들을 피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의 주문에서 풀려나 생의 복잡한 추구에 빠지다 보면 자신들의 고귀한 목적에 굳건히 매달려 있기가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을 그릇된 길로 유도하는 유혹의 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요새를 구축하고 나아가기 위해 선한 결의를 하게 하는 영의 온기를 새롭게 불당기는 영향 아래로 자주 되돌아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고결한 영향력하에서 자주 자신들을 새롭게 한다면 회개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은 유혹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그만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1949년 10월 대회 보고, 139페이지)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시계에 태업을 감기 위해서 보웬 장로가 말한 “고귀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및 휴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 경전 공부, 안식일 예배, 성찬 참여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우리의 영적인 활력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애 있어서 이러한 지속적인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계는 둔해지게 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가르쳐 기도하면 안된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며,…”(니파이이서 32:8-9)

엠올레크는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영향력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며 쉬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엘마서 34:19, 26)

엠올레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들판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엘마서 34:27)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 만큼 경전 공부를 강조하신 지도자는 없습니다. 교회 회원들 및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분의 영감에 찬 권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전, 특히 몰몬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경전 공부의 가치를 증거하는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경전 속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매일하는 기도와 더불어 하는 경전 공부는 오늘날 우리를 금지된 길로 인도하는 세상에 만연된 영향력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내적 힘을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리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 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 (엘마서 32:28)

나는 엘마의 비유가 아주 타당한 것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화되고 교화되기 위해서 정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영적인 맛이 정말 좋고 달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시키며 성장한 씨앗은 큰 나무로 자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소홀히 생각하여 잘 가꾸지 아니하면, 보라 나무는 뿌리를 뽑지 못하여…

“이는 씨앗이 나쁘거나 열매가 탐스럽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의 토지가 메마르고 너희가 나무를 가꾸지 아니한 때문이니,…”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꾸고 갈아서…뿌리를 퍼리니, 영생으로 뻗어 오르는 나무가 되리라.”(엘마서 32:38, 39, 41)

우리의 영적인 시계에 태업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며 성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장을 바칠지이다.”(교성 59:9)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런 경험을 갖지 않을 때 영적인 시계가 느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경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건물만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예배를 보기 위해 집으로 간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집이 어떤 다른 장소보다 주님의 영이 더욱 환영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시계를 감는 것과 연관지어 봉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은사에 관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복지에 이러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에게 베풀 때 결국 그것은 더 큰 것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봉사를 통해 봉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할 때는 단지 우리의 행동이 그들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다 신선한 안목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봉사를 통해 오는 기적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잃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찾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영성에는 위대한 안전 장치가 있으며 우리는 봉사 없이는 영성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엔사인, 1974년 12월호, 2, 5페이지.)

물론 다른 미덕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봉사의 면에서 주님은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말씀이 참됨을 증거합니다. 보웬 장로가 말씀한 “고귀하게 하는 영향력”이 우리 생활에 정규적으로 임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계가 계속해서 강하고 변함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의 개척자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말일성도 가운데는 숨겨진 남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지막 마차 부대’가 의무에 충실하고 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그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알아내지 못합니다.”



데이비드 에이치 안 이세 편, 프로보 유타, 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사, 1984년, 67~68페이지 참조)

목적은 추구하는 모든 훌륭한 단체에는 지도자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마차들의 행렬에서 지도자들은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파아란 하늘을 막힘없이 볼 수 있는 앞쪽”(제이 루벤 클라크, 발췌 논문, 69페이지)에 섰습니다. 그러나 클라크 부대관장이 말씀하셨듯이 “마차 행렬 뒷쪽에서 따라오는 성도들은 멀리 앞에 있는 형제들을 항상 볼 수는 없었으며 푸른 하늘도 모양이 일어나는 흙먼지 때문에 가려져서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차 행렬의 후미에 있는 성도들은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신앙과 회복된 복음이 참되고 주님께서 선두에 선 형제들을 인도하신다는 신앙에 의지하여 때로는 자신을 잃기도 했지만 지치고 아픈 발을 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69페이지.)

주님의 목적은 클라크 부대관장이 말씀했듯이 “아주 빈약한 칭찬과 많지 않은 격려와 과찬의 말 하나 없이”(제이 루벤 클라크, 69~70페이지.) 앞으로 나아갔던 수천의 충실한 성도들의 굽힐줄 모르는 충절과 등뼈가 휠 정도의 노동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작은 부름과 운명을 브리감 영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부름과 운명을

측량하듯 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와 생각 및 행동과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승화된 상태의 개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추억들을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해주셔서 그들이 의무를 수행했듯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73~74페이지.)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찬사의 말씀은 오늘날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국가, 모든 합당한 직업 및 활동에서 이 교회의 회원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어느 시대의 개척자들과 마찬가지로 용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따릅니다. 그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나 교회 자원 봉사자로 봉사하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목표 추구를 늦추는 훌륭한 젊은 어머니들처럼 그들은 영원한 결의를 지키기 위해 즉흥적인 쾌락을 희생시킵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기꺼이 그들의 시간과 때로는 생명을 바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9:23) 이들은 구세주께서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에 비유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15)

복음의 열매는 출신 성분이나 현재의 교회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정직하고 착한 마음에서 결실이 됩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교회 안에는 출생시부터 특권층인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자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발췌 논문, 13페이지)

개척자들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아직도 그들의 업적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1세기 이전에 광야를 횡단했던 개척자에 대한 메시지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모든 시대의 개척자에게 다 어울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차 부대”라고 묘사한 그의 글에서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평범한 개척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위대한 영혼들은... 역사의 장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기억되지도 존경을 받지도 않지만 그들의 자녀와 그 후손의 가정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종교, 교육 및 청소년에 관한 발췌 논문,

나는 오늘날의 개척자에 대한 몇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들은 꼭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 말일의 위대한 사업의 가슴과 손이 되는 평범한 말일성도의 전행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2,600명이 넘는 노부부 선교사들은 비할 수 없는 기독교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들이 교회의 사명을 진척시키기 위해 들이는 공헌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지부의 지도자와 회원들을 강화시키고 성전 및 방문자 센터에서 봉사하며 헤아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국의 크고 작은 일을 성취시킵니다.

어느 먼 세상의 한 구석에서 가진 선교사 모임에서 옥스 자매와 나는 한 헌신적인 형제가 다음과 같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리라고는 결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곳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몇분 뒤에 또다른 헌신적인 선교사인 그의 아내가 말씀했습니다. “나는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단지 수영장에 가거나 골프 코스를 도는 데 몇 발자국을 걸어야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클라크 부대관장께서 찬탄했던 개척자들은 차례 차례 그들의 가정을 떠나 마차에 짐을 싣고 예언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역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부부들이 선교 사업을 하고 또 합니다. 한 사랑스런 귀환 선교사는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다른 선교 사업을 떠나시기 전에 오셔서 우리와 최소한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제쳐두고 교사와



대외 방문자

지도자로서, 성전 봉사자로서, 성명 초출 프로그램 및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로마서 12: 12)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위해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수 주일 전에 나의 가족 중에 몇 명이 네브라스카 플로렌스에 있는 윈터 쿼터스 공동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에바드 티 페어뱅크의 걸작품인 길 가에 있는 무덤에다 곧 묻고 떠나야 할 아들의 시신을 내려다 보고 있는 개척자 부모의 동상을 보았습니다. 이 개척자들은 무덤 가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현대의 개척자들은 침대밭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어느 자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98세가 되실 때까지 돌보셨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엘체이머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내심 있게 아파를 돌보십니다. ...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어머니는 늘 퇴직 후에 여행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가정을 가능한 한 잘 정돈하셨지만 개인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일들을 제쳐두셔야 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어머니가 말하시는 기쁨입니다. 어머니는 품행이 매우 아름다우시며 생의 간단한 것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발견하십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긍정적인 태도로 떠받쳐 주시는 온 가족의 힘의 기둥이십니다.”

“말일성도 가운데는 숨겨진 남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지막 마차부대’가 의무에 충실하고 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그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알아내지 못합니다.

두드러진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은 더 눈에 띄지만 분명히 더 고귀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들 중의 한 명입니다. 어떤 공적인 행사 때에 한 어머니가 나를 그녀의 10대의 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너 이분이 누구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알아요, 세미나리 반 벽에 걸려있는 분들 중 한분이잖아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벨슨 장로의 어깨에 단정하게 손을 얹고 있음.

“세미나리 반 벽에 걸려 있는” 높은 지위가 어떤 사람을 승영에 이르는 지름길에 올려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기준은 지도자들 추종자들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영국에 사는 한 교회 회원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었습니다. 그 저명한 시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그는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에게 그가 해임되는 것이 왜 마음에 걸리지 않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만큼 가정 복음 교사로서도 성약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엔사인, 1987년 5월호, 24페이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원, 교사, 고문 및 서기들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성약을 지킵니다. 그들의 봉사는 모든 것을 살피시며 선행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교성 58 : 28; 마태복음 10 : 42 참조)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원을 횡단했던 개척자들은 지도자들에 의해 닦여진 길을 따라

방향을 찾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 개척자들은 무리를 지어 여행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 진영에서 떨어져 표시된 행로로부터 이탈한 개척자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 까지 외롭고 위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년 반 전에 나는 과문을 당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불충실에 관련된 커다란 위선과 속임죄를 범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나는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와지면서 내가 회개하여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도록 자비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갑니다. 내 자신의 잘못이 주님께서 갯세마네에서 받은 고통을 더욱 크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슬퍼지지만, 그 고통의 결과 내가 생활을 바꿔 그분의 목적을 나의 목적이 되게 한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다시 신권 소유자가 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회개의 과정”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으로 정직하게 된 사람의 느낌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던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질 중의 하나는 나아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상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격려해야 합니다.

인간의 표현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같은 한 가지는 용서하는 행동입니다. 누구나 어느 점까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가해를 받으며 고통과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온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구세주의 명에 따른 사람들에 의해 성취된 영적인 정상을 향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던 개척자들에게 경의를 금치 못합니다.(마태복음 6 : 14~15, 교성 64 : 9~10 참조)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이미지가 인간을 통해서 반사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나에게 그녀가 어린 아이였을 때 자기를 학대하고 몸에 고통스런 상처를 남긴 한 친척에 대한 감정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고통과 함께 살아야 했고 그것을 견디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분노를 느꼈으며 왜 내가 애당초 이러한 학대를 참아왔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뭔가 와 닿는 느낌을 받았습다. 영이 증거하기를 그녀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그분께서 갯세마네 동산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쥐고서 공의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에 주님께 기쁘게 전해드리며 그의 사랑과 자비를 누릴 뿐입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그 결정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 가슴은 기쁨과 평화,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분의 업적이 영화롭지 않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말로는 내 느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용서를 베푸는 자매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의 태도와 감정의 전방에서 개척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니라”(잠언 16:32)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대륙을 정복하는 자 이상의 개척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날의 개척자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 속에 지고 가는 짐은 손수레를 끌던 사람들의 짐 만큼이나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 개척자들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투쟁했듯이 현대의 개척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경솔함으로 기인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느 이혼한 부인에게서 온 편지도 있습니다. 비록 이혼 후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시련과 고통 그리고 갈등과 고독함의 시간이었긴 하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축복”, 즉 “순화 과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가 소유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느낌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떠한 육체적 고통도 내가 느낀 정신적인 고통만큼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낄 때마다 그분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을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나는 그분의 희생과 모든 업적에 대해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많은 우리 회원들은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탱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름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교회 및 학교 활동에 자녀들을 데려다 주느라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의로운 일을 위해 시간과 돈을 후하게 기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며,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가족과 함께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분별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조차도 불평없이 지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의로운 소망으로 인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모사이야서 4:24~25 참조) 왜냐하면 베냐민 왕이 다음과 같이 가르쳤던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사람이 제 힘에 거음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모사이야서 4:27)

이 충실한 회원들의 봉사와 모범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나의 모든 형제들과 같이 나는 이 교회의 평회원들께 나에게 헌신적이며 고귀한 귀감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대회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할 때면 늘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나는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님의 소감에 동의합니다. 그는 어느 대회에서 만난 충실한 성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데도 그들을 이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말일성도들의 영적인 성취와 봉사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결심이 강화됩니다. 수천 수만의 감화적인 예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치치 뉴스*와 *성도의 벗*, *뉴 이라*, *프렌드* 같은 교회잡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행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훌륭한 출판물들을 두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영웅과 여걸 중에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이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체에 비유했을 때에 눈에 띄지 않은 회원들을 손과 발에 비유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고린도전서 12:33)라고 말씀했습니다.

양 부모가 모두 비활동이었던 어느 말일성도 소녀는 후에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회고록을 보냈습니다.

“형제님은 나의 잦은 역경의 때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정 복음



대회 방문자

교사보다 더 위대한 부름은 없습니다. 형제님은 제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그분들을 존경하는 동시에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지금 와서 되돌아 보니 형제님과 형제님이 전해주시신 진리가 제 생활의 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문들 너머에는 수년의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형제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그것들을 쫓아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선두 미치에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전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업에 원동력과 동기를 주는 사람들은 뒤 따라오는 마차에 탄 충실한 남녀들입니다.

현대의 개척자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곤란을 겪고 회생을 치룹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확신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처음엔 오하이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오늘날의 충실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진실로 나는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말라.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끈기있게 주를 받들지어다. 너희 기도가 사바오스의 주의 귀에 상달되어 이 인봉과 성약으로써 기록되었음이니, 곧 주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실 것을 맹세하시고 명령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불변하신 성약으로 약속하셨나니,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름에 영광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성 98:1~3)

이 일은 그분의 사업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창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손짓하시며 자신이 열어 놓으신 창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그 문을 나가서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귀중한 기회를 취하도록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영국 런던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독서 자료가 꽂혀있는 조그만 탁자로 가서 광고 팸플릿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 소책자의 표지에는 **세계의 창문**이란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곳에 나온 모든 장소를 방문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잘 묘사한 글들을 써 넣었습니다. 스위스의 매터혼, 뉴질랜드의 알프스, 인도의 타지마할까지 모든 곳들이 그 소책자를 읽는 사람에게 그 곳을 즉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창문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창문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키는 테두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일견을 제시해 줍니다. 담청색 하늘, 둥게 구름, 신록의 숲 등 삼라 만상이 마음 속에 기억되는 표고된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창문은 또한 친구가 오고 있는 모습, 닥쳐오는 폭풍우, 아름다운 일몰의 광경, 심지어는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창문은 인간의 생활에 빛을 전해주며 영혼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어두운 감방 속 같이 창문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빛을 빼앗기면 어두움의 절망이 인간을 감싸게 됩니다.

창문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의 가정을 방문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졸업식 행사를 주관하고 나는 식당에서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브라운 부대관장님의 택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를 내 차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차가 떠나기 전에 그분은 나에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내 지나가 창문에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문을 보니 커튼이 열리며 지나 브라운이 휠체어에 앉아서 빙그레 미소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조그만 흰

손수건을 사랑이 가득 담긴 모습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흰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흔드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매님은 참으로 기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고리를 벗어나 프로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얀 손수건을 흔드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나와 나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러한 풍습을 따라왔지요. 그것은 우리가 저녁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루를 무사히 잘 보내기를 기원하는 우리 사이의 상징입니다.

그날 나는 마음의 창문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창문들은 슬픔과 고통과 멸시로 인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생일을 잊는 일, 방문할 일을 잊는 것, 약속을 무시해 버리는 행위 등, 이 모든 것은 슬픔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마음에 반감지 않은 방문객인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국내의 한 저명한 사설가가 어느 날 “잊혀진 생일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며 누군가로부터 받은 편지를 인용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보낸 적은 없지만 다음 내용은 당신과 당신의 독자에게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내용을 오래된 잡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작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단지 ‘불행한 노인’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가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91세이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목욕과 면도를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 그는 그들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올 때에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서 마을의 노인들과 만나기 위해 주유소까지 매일 가던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길에 잘 보이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분명히 그들은 오늘 올 것이다.

“노인은 그들이 올 때 깨어 있기를 원해서 오침을 빼먹기로 결정했다. 그의 두 딸과 결혼한 손자들이 4마일 반경 내에 살고 있다. 그들은 것처럼 오랫동안 노인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의 생일이다. 오늘은 분명히 그들이 올 것이다.

“저녁 식사 때에 그는 케익을 자르기를 마다하고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어 두라고 했다. 그는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함께 디저어트를 들기를 원했다.

“아홉시 경에 그는 방으로 가서 잠잘 준비를 했다. 불을 끄기 전에 그가 한 마지막 말은 “그들이 오거든 깨워주겠다고 약속해주요.”였다.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리고 그는 91세이다.”

그 슬픈 글을 읽을 때 내 눈에는 눈물이 저절로 고여 내렸습니 다. 나는 내 생에서 좀더 행복하게 결말이 난 경험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내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던 한 오랫동안 알고 있던 미망인을 방문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녀가 겪는 외로움으로 인해 메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미망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멀리 살고 있었으며 수년 동안 그의 모친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배티는 현관쪽 창문 앞에 앉아 외롭게 아들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낡아빠지고 자주 열어 놓는 커튼 뒤에서 실망에 찬 어머니는 혼자서 “딕이 올꺼야. 딕이 올꺼야.”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딕은 오지 않았습니 다. 한해 두해 세월이 지나갔습니 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한가닥의 햇빛처럼 교회 활동이 딕의 생활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방문하기 위해 솔트레이크로 왔습니 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기쁨에 찬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서 나를 만날 시간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기쁘게 허락을 했지만 먼저 “딕, 어머니를 먼저 만나뵙고 나를 찾아오게.”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인 베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쁨에 찬 가슴 속에서 눈물어린 목소리가 솟아 나왔습니 다. “탐, 나는 딕이 올줄 알았어요. 그애가 온다고 내가 말했지요. 그애가 오는 것을 창문으로 봤어요.”

수년 후 그 미망인의 장례식에서 딕과 나는 그 옛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의 창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가 비추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스러운 경전에는 우리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천대받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잊혀지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때때로 개인적인 모범의 창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주님께서 가르치신 다음과 같은 영원한 교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누가복음 20 : 45~47)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께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누가복음 21 : 1~4)
모범의 창을 통해 가르치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나인이라 불리우는 도시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참된 동정과 연민의 뜻을 밝히시기 위한 창문을 여셨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누가복음 7 : 12~15)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신 창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목격하였으며 그들이 의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와 똑같은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제자에 관한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눕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다비라]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 옷과 겉 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이것이 베드로가 그 너머로 다비다의 근면한 삶을 목격한 창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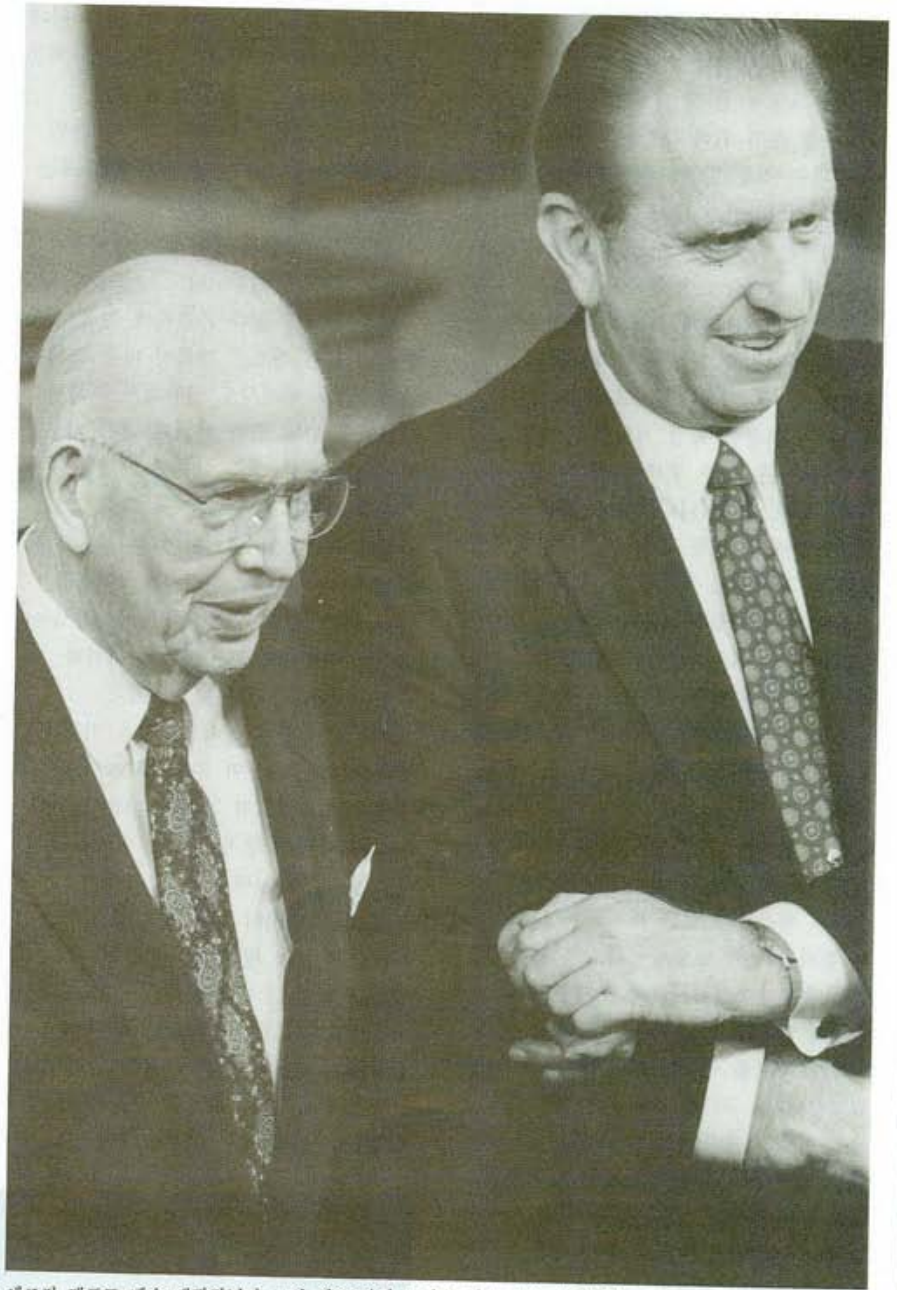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사도행전 9:36~42)

만약에 그러한 신권의 권세와 신앙과
 병고침의 은사에 대한 창문이 욥바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 성스럽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직 우리의 기분을 돌우고
 계몽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까?
 그러한 강력한 교훈을 일상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가장 감미로운
 축복은 이 지상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온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인 내면으로부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였고 컴퓨터 제작
 회사의 사장으로 있었던 윌리엄
 노리스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노리스씨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아이를 가진
 미혼모, 문맹자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곧
 하이테크 컴퓨터를 생산하는 산업
 역군이 되었습니다.

나는 노리스씨의 초청으로 그의
 새로운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한 공장도
 인상적이었지만 건물의 한쪽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 보육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엄마들이 일하는 동안 컴퓨터에 대한
 전문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과 그의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은퇴하신 할아버지들이 초청되어
 같이 점심을 먹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혜택을 받았고 할아버지들도 그들의
 삶에 특별한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노리스씨의 꿈의 결과로써 가난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치
 윌리엄 노리스가 일꾼들 각자의 생활을
 개인적으로 축복한 것 같았습니다.

노리스씨의 사랑의 실천에 의해 마련된
 창문을 통해서 나는 철학적이며
 실존적인 진리가 주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푸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수 없이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놓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내가 집무를 보는 사무실에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그린 사랑스런 그림들로 장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상 뒤에 앉을 때마다 마치치게 되도록 걸려있는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봉사하는 그분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걸어 놓은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결정에 부딪칠 때마다 그 그림을 쳐다보며 내 자신에게 조용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더이상 의심이나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머물지 못합니다. 가야할 길이 뚜렷해지며 그 길이 내게 손짓을 합니다.

몇달 전 나는 집무실에 앉아 매일 오는 우편물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타주 웰스빌에 하는 마사 샤프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 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시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 스티븐을 위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의 영적인 필요 사항과 육체적인 사항 및 그가 두 발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글자 하나 하나 마다 그녀의 눈물이 느껴졌고 문장마다 사랑의 감정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성령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도록 부탁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티븐이 입원한 병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마치 말을 타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는 최근에 보았던 한 서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타고 달렸던 아름다운 말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스티븐의 얼굴에 파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침대 옆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가 읽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내가 말하던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 쓰인 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는 따뜻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제 다리를 정도껏 잘라서 등자에 발을 끼울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거룩한 성전에서 만날 때와 아내와 내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그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티븐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특별한 영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복이 주어졌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으며 가정과 가족에 대한 기억이 다시 불당겨 졌으며 어머니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동쪽 언덕에 높이 자리잡고 있는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내 앞에 펼쳐진 계곡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거리가 한 눈에 들어왔고 별들은 더욱 가까이 보였습니다. 나는 현세의 창을 통해 광망한 영원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 중

한 별이 특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웰스빌로 가는 길을 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시를 떠올렸습니다.

별이 빛나요 밝은 별이

오늘 저녁 처음 본 별에게

내 소원 말해요. 나는 아마도

오늘 저녁 내 소원 이루겠죠.

내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사 샤프가 받은 기쁜 소식인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먼 성스러운 곳으로부터, 오랜 옛날 가르쳐진 영원한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태복음 19:26)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드럽고 볼 수 없는 손길이 한 영혼에게 창문을 열어 하늘에서 보내온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손짓하시며 자신이 열어 놓으신 창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지만 하지 말고 그 문을 나가서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귀중한 기회를 취하도록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특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감내하며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활하며 일하는 나라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참된 대사입니다.”



존 알 영의 회고록을 보면 교회의 비회원인 토마스 엘 케인 대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역사 협회에서 연설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몇년 전 여행하던 중 미시시피강가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나부시를 지나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을 따라 얼마간 여행하다가 물살이 세어서 기선에서 내려 육지로 여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 개간되지 않은 땅에서 게으르고 난폭한 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언덕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풍경에 대조를 이루는 광경이 나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활모양으로 굽이친 강줄기를 따라 반원을 이룬 아름다운 도시가 신선한 아침의 태양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뜻하게 지은 새 집들은 둥근 지붕 형태의 우뚝 선 언덕 주위에 펼쳐진 신선한 푸른 정원 사이에 정연히 늘어서 있었으며, 언덕의 꼭대기에는 하얗게 번쩍이는 찬란한 첨탑이 있는 우아한 대리석 건축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심지는 수마일까지 뻗어 있었으며, 도시 뒷편 들판에는 잘 경작된 토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눈에 띄는 풍부한 산업, 기업, 교육 시설의 행적은 매우 독특하고 뛰어난 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아무도 눈에 띄는 사람이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너무 적막하여 파리가 웅웅거리며 내는 소리와 물결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적막한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도시는 마치 외로움이라는 최면술에 걸려 꿈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잠에 빠진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 이 도시를 내가 잠에서 깨어나게 할까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잘 닦여진 도로에는 풀 한포기 돌아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발자국도 아직 비에 씻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비어 있는 밧줄 제조소와 대장간에 들어섰습니다. 방적기의 바퀴는 돌지 않고 있었으며 목수도 그의 일터를 떠나서 만들다가 그대로 방치한 창들과 상자가 그대로 있었고 무두장이의 통 속에는 새로 만든 뚫이 들어 있었고 빵 제조업자의 오븐 앞에는 새로 잘라놓은 나무가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장간은 찬 공기가 맴돌고 있었으나 석탄이 쌓여 있었고 물을 뜨는 국자와 구부러진 물 호스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이 마치 휴일을 즐기기 위해 잠시 일터를 떠난 것같이 보였습니다. ...

“들판에 쌓인 누런 곡식들은 썩어가고 있었으나... 그러한 풍작을 거두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존 알 영의 회고록, *유타 파이어나어, 1847년,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뉴스, 1920년, 31~33페이지*)

케인 대령은 왜 그토록 아름다운 도시가 버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폭도들에 의해 그 도시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호기심에서 그 도시를 떠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들이 기아와 추위로 인해 죽거나 고생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그토록 박해를 받아왔을까요?

여러 면에서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그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여러 면에서 나부의 시대와 흡사한 몇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케인 대령과 마찬가지로 왜 그러한 반대 세력이 우리의 위대한 선교 사업을 때때로 가로막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선교사들이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참된 목적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사업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경에 있는 암몬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받은 선교사의 부름은 레이맨인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서 그것은 위험한 과업이었습니다.

레이맨인의 땅으로 들어가는 니파이인의 운명은 전적으로 레이맨인의 왕의 손에 달려 있었으므로 왕이 그를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추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암몬이 이스마엘 땅을 다스리는 왕 앞에 끌려 갔으니, 왕의 이름은 라모나이요 이스마엘의 후예라.

“제가 암몬에게 레이맨인인 자기 백성들과 그 땅에서 살지 않겠냐고 물으니,

“암몬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예, 오래도록, 아니 죽는 날까지 이 백성들과 이곳에서 살겠나이다 하더라.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매우 마음에 들어 결박한 줄을 풀어 주고 저의 딸 하나를 아내로 맞으라 하였으니,

“암몬이 왕에게 이르기를,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하니, 라모나이 왕이 저를 그의 종으로 삼아, 레이맨 백성들의 관례대로 다른 종들과 더불어 양떼를 지키게 하였더라.”(엘마서 17:21~25)

오늘날 선교사들의 유일한 소망 역시 암몬처럼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뮤엘 스미스(예언자 요셉의 동생, 최초의 선교사)가 배낭에 물론경 초판을 몇 권 넣고 집을 떠난 지 16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이 책에 들어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참된 것인지 스스로 알아보도록 권유했습니다. 사뮤엘 스미스 시대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동안 집을 떠나 시간과 재산을 바쳐 그들이 참되다고 믿는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감내하며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가로막거나 불의한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귀기울여 듣고 그 메시지가 참된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권유하는 교사입니다. 그들은 어떤 정부를 대표하거나 정치적인 신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그들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나라의 정치에 대한 견해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봉사하고 가르친 백성에 대한 사랑을 품고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활하며 일하는 나라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참된 대사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인종적인 편견도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온 것은 어떤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문의 말씀 그대로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모로나이서 7:3)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왕국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여 세우실 왕국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선교사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과 마찬가지로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할 것이며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할 것입니다.(신앙개조 제12조)

이제 나는 주제를 바꿔 교회의 회원들에게 약간의 조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사명에 대해 배웠으며 그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경험했으며 그러한 봉사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성취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엘마가 그 당시 백성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를 느꼈을 때 직면하게 된 어려움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엘마는 두 가지 직책을 맡아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대판사이자 교회를 관할하는 대제사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백성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두 가지 직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엘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엘마는 교회의 장로 가운데서 현명한 사람 하나를 택하여 저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제정한 법대로 백성의 악행과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백성들의 투표로 결정하여 부여하였으니,

“이때에 엘마는 니파이하에게 교회의 대제사직은 물려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대로 대제사 직분을 맡았으며, 백성들을 다스릴 판사 직분만을 니파이하에게 넘겨 주니라.

“엘마가 이같이 행함은 저의 백성, 곧 니파이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의 임무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자만과 교활함과 불화를 막으려 하였으니, 이는 오직 순수한 간증으로서만 저들을 다스려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엘마서 4:16, 18~19)

엘마는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복음에 대한 열성이 지나친 나머지 우리의 값진 진주들을 무분별하게 던지거나 매우 매력적인 배경하에 두어 그 윤곽을 더하려는 경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오히려 우리가 지닌 진주의 참된 가치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우리의 진주는 그 아름다움과 단순함으로써 그 위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주를 밝게 반짝거리는 것으로 치장하여 교회에 대한 적대감과 다툼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취한 일에 대해서는 겸손한 반면

우리의 행위로써 우리가 어떤 왕국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려도 될까요? 교회 본부 사무실 건물내 엘리베이터에는 성구나 예언자의 말씀이 붙어 있어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선용하게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전 제품으로써 냉장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양시키기 위해 냉장고에 표어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업무를 하면서 우리에게 성구를 상기시키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일깨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성구를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구로서 마태복음 5장 43~44절을 예로 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번째 성구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끝으로 물문경에 있는 훌륭한 말씀으로써 모로나이사서 7장 47절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다.”

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얻기를 소망하던 가장 큰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나의 인생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이처럼 위대한 값진 진주, 즉 영원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진주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의 엄숙한 간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라톤

조셉 비 워스틴
십이사도 정원희

“인생은 마라톤처럼 출발을 잘 해야 하며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힘을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번 대회 기간 중 많이 느꼈던 영을 이 자리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여행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구세주께서 가르침으로 표시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면 노력을 크게 기울여야 하며 노상에서 매 발자국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그의 도움이 항상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최근들어 달리는는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운동 종목이 되었습니다. 주로 운동삼아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각기 거리가 다양한 유명한 경기에

출전하려고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인내력이 필요한 경기는 고대 그리이스에서 비롯된 근대의 경기로서 마라톤일 것입니다. 오늘날 그 단어의 의미는 넓어져서 특별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매우 긴 경기나 활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의 친구 중 앨런이라는 젊은이는 최근에 약 42킬로미터가 되는 마라톤을 처음으로 완주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에 미리 그의 목표를 세워 놓았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 두었고 엄격한 훈련 계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은 선수의 조언을 구했으며 마라톤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마라톤 진로를 익히며 달렸고 기복이 심한 진로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마라톤을 하는 그 날이 왔습니다. 이 날은 몇 달간에 걸친 훈련과 극기와 희생이 최대한 발휘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주자 틈에서 순조로이 출발했습니다. 그는 힘과 자신감이 넘쳤으며 미리 계획한 전략을 따라 실행했습니다. 달린 지 13킬로미터 쯤되는 내리받이 길에서 그는 브렌트라는 노련한 주자와 함께 뛰었습니다. 브렌트는 앨런이 훈련할 때 유익한 조언을 해주곤 했었습니다. 앨런은 훈련과 경험을 많이 한 브렌트의 주행 속도에 맞춰 함께 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29킬로미터를 지날 때 앨런은 “난관에 부딪힐 때” 그의 옆에 잘 아는 누군가가 있도록 브렌트와 보조를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난관에 부딪친다는 말은 극복하기에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의 막다른 장벽을 만나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갑작스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때는 종종 30킬로미터 지점에서 생깁니다.

3킬로미터 가량을 앨런은 브렌트와 보조를 맞춰 뛰었습니다. 그때 그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온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으며 멈추거나 걷고 싶은 마음에 사로 잡혔습니다. “나를 따라 붙어.” 브렌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런 것을 느끼게 돼. 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게.”

앨런은 겨우 힘을 내어 계속 뛰었습니다. 그와 브렌트는 관중들 옆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자녀 및 친지들이 결승점의 약 1킬로미터 앞에서 그를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힘을 끌어 모으며 그만두고 싶은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앨런은 마지막 1킬로미터가 가장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앨런과 브렌트는 겨우 5초 간격으로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앨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피로를 느꼈으나 15분 이상 그의 목표를 단축하였고 25명의 선두 주자 사이에 들었으므로 커다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생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생활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에 와서 시험받고 자신을 입증하도록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끝이 너무 멀어 지금부터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처럼 출발을 잘 해야 하며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힘을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명확한 목표를 세워 놓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후, 5년후, 10년후 또 그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마음 속에 분명히 그려 보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은 교회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에 속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적은 후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 목표를 항상 명심하고 자신의 발전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인물을 마음 속에 그려 보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명확히 해 두십시오. 노력, 금전, 공부 및 기도 등의 대가를 치를 결심을 하십시오. 자신이 택할 진로를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이상적인 인생의 길이 반드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발견하여 통과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표시가 잘되어 있는 통행로가 아니라 입구가 하나 밖에 없는 좁은 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곧고도 좁은 길입니다. 나는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생명의 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꿈이 생각납니다. 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열매보다도 먹음직스럽고 맛에 감미로운 열매를 가진 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부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쇠막대를 따라 내가 서 있는 나무에 까지 이르는 곧고 좁은 길도 보았나니, ... 나는 또한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으니, 저들 가운데 여럿이 내가 서 있는 곳에 있는 나무에 이르는 길을 찾다가 앞으로 밀려

나오더라.”(니파이일서 8:20-21)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후에 “금단의 길로 떨어져”(28절)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무시하고 쇠막대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쇠막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니파이일서 11:25 참조) 여러분은 안개와 어둠, 즉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쇠막대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쇠막대를 느슨하게 잡다가 그 길에서 실족하게 되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쇠막대를 잡을 때까지 쇠막대는 어둠 속에서 한 동안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회가 올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기회가 언제 올지 항상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여러분의 가치가 그 기회를 받아들일도록 준비한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와 기회가 맞물려 성공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의 삶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름을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는 마라톤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 및 친구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생긴 기적으로 모두 큰 감명을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열 살인 조수아 데니스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는 까닭은 그의 열렬한 기도, 신앙 및 넘치는 낙관 덕분이었으며 그가 어머니의 조언을 귀기울여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조수아에게 수색대를 보내 찾게 한 존 스킨너에게 주어진 느낌, 즉 영감도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 기도에 관한 이 위대한 교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교만이란 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주님은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교성 1:16) 만일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고 자만하여 “제 마음대로 생활”하면 곧고 좁은 길에서 쉽게 벗어나 세상의 넓은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내리받이 길처럼 가끔 쉬운 길이 나타나더라도 주의하십시오. 오르막 길을 오를 때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마라톤 선수들은 진로를 따라 달리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격려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없다면 많은 선수들이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도 역시 진로를 계속 가는 데 도움을 줄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인생의 길을 더 많이 “뛰어” 오신 여러분의 부모, 가족, 워드 지도자, 교사 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쌓아오신 경험에서 많은 유익을 얻으십시오. 그분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들의 조언, 충고 및 지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이 진로를 따라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지닐 수 있는 위대한 특권과 축복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신권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더욱 큰 봉사를 할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교사 및 제사인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부름인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녀 여러분은 청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가치관을 배우고 그 가치관을 여러분의 생활에 개인적으로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지침을 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론 신권 및 청녀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언제나 즐거이 자진하여 남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일도 남을 돕는 일처럼 마음 속 깊이 우리나라는 참된 만족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야서 2:17)임을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못본 채하는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엘마가 제이라헤물라 땅의 교회에 있는 백성들에게 행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마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값진 천으로 몸을 치장하고 헛된 세상의 것과 너희 재물에 마음을 두려느냐? 너희가 남들보다 훌륭하다고 고집하겠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고, 너희 재물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를 고집하겠느냐?”(엘마서 5:53~55)

베나민 왕은 만일 우리가 매일 죄사함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즉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등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사야서 18:29 참조)

여러분에게는 “난관에 부딪처서” 만사를 포기하거나 유혹에 굴복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병고나 사망 또는 재정적인 곤란이나 기타 역경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계속 지탱해 나갈 힘과 용기나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의아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유사 이래 공통적이던 유혹 외에도 지난 시대에는 없었던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13 참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과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나 여러분이 자신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만큼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결코 누구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자신이 홀로 있다고 느껴서는 안됩니다.

마라톤에서 진로를 따라 가야 하는 이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진로를 따라 가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로운 삶은 행복과 기쁨과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기쁨과 평화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본질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계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교회 정사, 5:134~35)

물론경에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니파이서 2:25)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복음의 원리는 그 길을 알려 줍니다. 그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 반면, 사탄은 여러분이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매 순간마다 시도할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을 자신처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유혹적으로 매력있게 보이며 전혀 해가 없는 듯이 포장하고 꾸미기 위해 매년 막대한 돈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길모양이 어떻든간에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며(엘마서 41:40)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탄생하기 몇 해 전에 살았던 니파이 백성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얼지 못할 것을 구하였음으로,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이의 뜻을 거스려 간악함을 행하며 행복을 구하였”습니다. (히라맨서 13:18) 죄와 악행 가운데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은사로 주셨으며(모세서 7:32 참조),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니파이서 2:5 참조) 여러분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니파이서 2:27 참조), 뜻대로 행동할 수도 있으나(니파이서 10:23; 히라맨서 14:30 참조), 그 결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선과 의로움을 선택하면 행복과 평화에 이르지만 죄와 악을 선택하면 궁극적으로 불행과 슬픔과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마라톤간에 매우 유사한 점은 열심히 달리고 끝까지 견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그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이 끈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끝까지
 참을진대..."(니파이이서 31:19~20)
 나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생의 마라톤 코스를 달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여러분이 행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말일에 복음을 회복시킨
 예언자였으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의 예언자입니다. 이
 교회는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그분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배움의 한 평생

빅터 엘 브라운 장로
총관리 명예 회원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주님의 계명에 조용히 순종함으로써 내게 큰 교훈을 준 교회의 젊은 형제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 왔습니다.”



28년전 오늘, 매우 놀랍게도 나의 직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21년간 상업적인 항공 산업에 종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가 시카고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되어 교회 본부로부터 솔트레이크시티로 와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과 접견을 하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나는 새로운 관리 감독이신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의 보좌로 부름받았으므로 나의 사전 계획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총관리 역원이 되기를 바라거나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주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응답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1961년 10월에 그러한 경험을 한 지 28년 동안, 내가 결코 생각지도 못한

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에서, 또한 교회 지역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종종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희생을 치르는 헌신적인 동료들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나는 네 분의 교회 대관장님과 매우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들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 및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입니다. 24년 동안 관리 감독단의 일원으로서 나는 대관장단과 주례 모임을 가지며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교회 대관장으로 부름받으시기 전에 나는 관리 감독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그분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기회는 없었지만 나는 그분의 지도력에 감사를 느꼈으며 교회의 모든 회원은 물론경에 있는 진리를 공부하고 깊이 상고하라는 그분의 말씀에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내가 총관리 역원으로서 봉사한 이 다섯 분의 대관장님은 각기 독특한 개성과 취향이 있으시지만 나는 그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왜 우리가 그분들을 예언자요 선견자며 계시자로서 지지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총관리 역원과 세상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가치가 반드시 그 사람이 지닌 직함이나 직책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꼭 타야할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라라도 그의 동료, 상관, 택시 운전기사 또는 항공사 직원 등에게 대하는 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진실된 사실입니다.

나는 친구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았으며 각기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내가 그의 말을 듣는 줄도 모르고 다른 친구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내를 자네가 자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두 배는 더 사랑하네.” 그들은 결혼한지 50년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성취한 가장 큰 성공은 그들이 자기의 동반자에게 지닌 사랑과 존경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름받은 일로 인하여 전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주요 책임을 감당한 나의 아내 로이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아내가 자녀에게 훌륭한 영향을 줌으로써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습니다. (요한3서 1:4)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주님의 계명에 조용히 순종함으로써 내게 큰 교훈을 준 교회의 젊은 형제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 왔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론 신권 교사인 15세의 한국인 소년은 매주 자신의 용돈으로 선물을 샀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그 선물을 서울의 한 길모퉁이에서

판매하여 그 돈을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경전에서
배운 것을 단지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됨으로써 보람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사 신권을 지닌 14세의 통가 소년
역시 예언자 요셉이 14세에 지녔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일 내
나이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교육을 받아 이웃을 도울
준비를 갖추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가 신성한 일도 없이 하와이에 있는
교회의 대학에서 장학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이 받은 교육을 활용하여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양육된 8세된 어느 소녀는 스스로 주의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매일 혼자서
암송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자신의
기도를 덧붙이다가 마침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녀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소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 나는
그녀의 결혼을 주례했으며 성전에서
인봉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딸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 정원회 회장은 교회
회원이 아닌 소년에게 정원회에서
기도드릴 것을 부탁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교회에 겨우 두번째
나온 소년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이었느냐는 질문을 나중에 받은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번 주에 삼 일을 보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영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어느 소녀는 열두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원하는 유일한

선물이란 성전에 갈 수 있어서 죽은
자를 위해 침례받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훌륭한 젊은
말일성도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들은
지난 28년간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가장 훌륭한 것은 슬트레이크
성전에서 봉사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브라운 자매와 나는 훌륭하고
현신적인 성전 봉사자들과 함께
성스러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집에 오는 신앙이 강한 회원들을 매일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성전의 목적 및 의식을 머리 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지만 이제 마음
속 깊이 그 의식에서 느끼게 되는
기쁘고 평화스러운 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가고싶은
마음에서 성전에 갈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 및
예배의 태도로, 또한 구세주의 회생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성전에 갈 때,
성전에서 바깥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모두
떨쳐 버리고 거룩한 시간을 가질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훌륭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상에서 참으로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이 거룩한 집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육을 적셔줍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생은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영생의
기회에 관해서 또한 구세주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집중되어 나옵니다.

현재 심장 혈관 전문의로서
이탈리아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나의
친구는 성전에 관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의식을 행하는 것은,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마련하신 훌륭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틀 전, 내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18세된 소년이 찾아와 심상치 않은
심장 수술을 마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물어 보았습니다. 오후 5시에 소식이
전해진 바 그의 부친의 심장 박동이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의
확신에서 오는 위안없이, 또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인봉된다는 위안없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산다는 확신없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인가를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사중 가장 큰 은사, 즉 영생 및
승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전
의식 및 성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권고하십니다.

28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지닌 무조건적인
사랑은 진실로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 그의 전하심을 취하도록
권고하십니다. (니파이서 26:33)

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는 다음과 같은 짧은
성구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의 구속의 능력을
얻기 바라노라. 참으로 너희는 주께로
나아가 너희 영육을 주 앞에 드리며
쉬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라. 주가 살아 계시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욘나서 1:26)

나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즉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양들과 함께 보낸 여름

제인 비 맥런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양떼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을 강화시켜 주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영적인 것에 대해 갈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초 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가족은 와이오밍주에 있는 목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 사촌 등과 함께 지내며 가족간의 유대, 사랑과 관심,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해 알게 되었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맺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으며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중요한 것은 가족과 교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가 목장에 갔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오빠 클레이와 내가 그해 여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당시 열 두살이었고 오빠는 나보다 두살 많았습니다. 집 옆의 들판을 가리키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양떼들이 보이니? 너희가 저 양떼들을 기르면 가을에 팔아서 돈을 나눠주마.” 우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들판에는 양떼들이 무척 많았는데 350마리 가량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양떼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미가 있는 양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양떼들의 양털을 깎아낸 직후 추위를 동반한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해 천 마리나 되는 암양을 잃었습니다. 어린 양의 어미도 그렇게 잃었습니다.

어린 양을 한 두마리 키우는 것과 350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들판에 풀은 많았으나 어린 양들은 이가 없었으므로 풀 대신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널판지로 V자형의 긴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양철통에다 곡물을 갈아서 우유와 섞어 엷은 농도의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사료를 여물통에 붓고 있을 때 나는 양떼들을 모아 여물통 쪽으로 몬 후 “자, 먹어!”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은 나만 바라보았습니다. 양떼들은 배가 고팠고 음식이 눈앞에 있었지만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물통에서 우유를 마시도록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떼들을 여물통 쪽으로

억지로 밀려고 했습니다. 양떼들을 억지로 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른 쪽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한 마리가 도망가면 다른 양들도 다 그 뒤를 따라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양떼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혹시 양들이 우유 맛이러도 알면 더 먹을까 해서 코가 우유 속에 잠기도록 양떼들을 억지로 밀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손가락으로 우유를 저은 다음 양떼들이 손가락을 빨게 하였습니다.

우유를 먹으려는 양도 있었지만 대개는 도망가버렸습니다.

많은 양들이 서서히 굶어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아기에게 우유를 주듯이 양 팔로 양을 안고서 먹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늑대가 출몰했습니다. 밤이면 늑대들이 언덕 위에 앉아 큰 소리로 짖어대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우리는 늑대들이 밤새 했던 소행을 알 수 있었는데 두 세 마리의 양을 물어 주어야 했습니다. 늑대들은 몰래 양떼에 접근하여 양떼들을 흩어놓고 원하는 양들을 골라 뒤쫓곤 했습니다. 첫번째 희생물은 언제나 양떼로부터 떨어져 나간 양이거나 허약한 양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늑대들이 와서 양들을 괴롭히면 아버지께서는 사냥총을 꺼내 공포탄을 쏘아 늑대들을 쫓아버리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에 아버님이 계시면 양들을 보호해 주시므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빠와 나는 이제 돈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양떼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죽어가는 양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양들이 간밤에 다섯 마리, 일곱 마리 또는 열 마리 씩 죽은 것을 보곤 하였습니다. 어떤 양들은 늑대에게 잡혀 먹혔으며 어떤 양들은 음식을 먹지 않거나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내가 할 일중 하나는 죽은 양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일에 익숙했으나 얼마전 내가 이름지어준 양이 죽고 난 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코에 검은 점이 있는 조그맣고 못생긴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언제나 내 발 밑에 있었으며 내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 양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양을 품 안에 안고서 아기처럼 병으로 우유를 먹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그 양을 불렀을 때 그 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그 양이 시냇가 버드나무 옆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나는 그 양을 안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를 도와 양을 먹일 사람이 없나요?"

오랜 침묵 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인, 아주 오래 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한 분이 있단다. 그분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하고 말씀하셨단다." 아버지는 날 안아주시고 내가 울음을 멈춘 후 나와 함께 그 양을 땅에 묻으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서의 다음 성구들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나는 구세주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양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먹여야 하는 그 많은 양들, 구해야 하는 그 많은 영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까를 짧은 시간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양떼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을 강화시켜 주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영적인 것에 대해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부 청년 회장단

배운 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기울여 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또한 남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에게는 애정적인 관계보다는 형제 자매로서 건전한 우정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말하자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또한 구세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봉사하며 희생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경험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있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미 양들이 있었다면 어린 양들을 돌보기가 한결 쉬웠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어머니가 될

분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아버지가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 양들을 양육하며 인도할 부모요 교사요 고문입니다. 그 성스러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전시키십시오. 세상에서 깨끗하고 선한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나눔으로써 의식 및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십시오.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위안을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우리의 예언자이신 벤슨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상징하는 바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의미깊은 것입니다.”
양떼들은 방심하지 않는 목자들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가
사랑스럽게 돌보아 줌으로써 우리의
어린 양, 즉 우리의 젊은이들은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방황하면 목자의 막대기인
여러분의 사랑스런 팔과 이해하는
마음이 그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87년
4월 3일)

부모, 신권 지도자, 교사, 고문
여러분, “방심하지 않는 목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고귀한 청소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단결하며
의의 선봉이 되십시오. 연약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갖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그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와 선한 목자에게서 배우고
성장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갈 길을
주의 깊게 결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양떼처럼 그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떼 중 삼분의 일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의 양떼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많을 수록 구원받는 양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지만 진리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일요일 오후 모임

신앙을 지키라

에프 아더 케이 장로
전 칠십인 제이정원회 회원

“나의 가장 큰 소망은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며 계속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예기치 않았던 이
귀중한 기회는 참으로 의욕을 돋구는
것이였으며 특권이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그 이전에 40여년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
봉사하면서 배운 것에 대한 더 확실한
가르침을 받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신권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권세와 권능을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사람들의 생활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의사로부터 곧 태어나게 될
아기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운 증후군에
걸렸으므로 낙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한 여인이 받게 된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나에게 매우
소중하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그 의사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그 뒤로도
몇 주 동안 병원측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태아를 낙태시키도록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절망에
싸인 채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좀 말해주세요. 이
어린 아이는 그의 상태와는 관계 없이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부친으로부터 신권 축복을
받았으며 아이가 정상적이며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러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대단히 아름답고
영리하며 귀여운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만일 부친이 하신 약속과
반대되는 권고를 따랐다면 평생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그 일로 괴로워 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옛날에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베인에 살고 있는
샤론이라는 이름의 한 사랑스런 청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섬유유종에
걸려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 만큼
많았습니다. 그녀는 우울했으며
절망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었으며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권
소유자가 그녀에게 축복을 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며 주님께서 그녀를

인도하시며 지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하고 있던 사람조차 다소 놀라게 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샤론, 그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없애 줄 의학의 발달이 있을 것이니라.”

30일이 지나지 않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섬유유종 퇴치의 가능성을 보인 실험 단계에 있는 새로운 약품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샤론은 그 치료에 응했으며, 그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취직 준비를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작용하는 것을 목격한 난 두 가지 실례에 불과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간증이 아주 어린 소년일 때 부모님의 무릎 위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의와 진리의 길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으며, 부모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46편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신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아는 은사를 주시며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는]...은사를 주시며,”(13~14절)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번째 시현과 모로나이와 다른 하늘 사자들의 방문에 대한 가르침이 나에게서 마치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루라도 이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50년 동안 내 옆에서 용기를 주고 지지하고 후원하며 어려운 때를 잘 참아 준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 삼 주일 동안 나는 손자들을 거의 모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눈을 들여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을 지켜라, 애야. 그것은 참되단다.” 대답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렇게요, 할아버지. 그렇게요.”

“예, 할아버지. 그렇게요.”라는 말을 듣고 옛날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며 계속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 할아버지. 그렇게 했어요.”라는 대답을 들을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바라보라

존 소넨버그 장로
전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극성’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리와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구세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위대하고도 거룩한 사업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예언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간증드립니다. 벤슨 대관장님과 그분의 헌신적인 보좌들과 성전에 함께 있을 때 내가 직접 들은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말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참된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동안 아내와 나는 한 손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자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저는 이제 열 두살이 되었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감독실로 부르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브르스, 너에게 물어볼 몇 가지 질문이 있단다. 브르스, 너 이제 열 두 살이 되었잖아. 그래서 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한단다.’ 저는 감독님에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브르스, 너 나쁜 말을 하니?’ ‘아니오, 감독님, 전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넌 부모님을 사랑하니?’ ‘예, 감독님,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브르스, 너 십일조를 내고 있지?’ ‘예, 감독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감독님은 제가 열 두 살이 되었기 때문에 아론 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저에게 아론 신권이 무엇이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론 신권에 대해 조금 알고 있으며, 집사로 성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감독님은 제가 누구에게서 성임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서 성임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고, 감독님과

삼촌들이 함께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아론 신권을 부여해 주시고 저를 집사에 성임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지금 먼 곳에 계시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총관리 역원이시며 몇 년이 지나야 고향에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고향에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할아버지께서 단상에 앉으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성찬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인 헌신적인 아내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아내가 우리 가족의 여가장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며 또한 자주 생각하는 성구가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구가 떠오릅니다. “이는 저들이 세상에 빛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음이라.”(교성 103:9) 나는 왕국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왕국에 속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여러분은 나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성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만일 올바르게 행하며 너희가 서로 맺은 성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교성 90:24)

이곳 솔트레이크 성전 화강암 벽에는 일반적으로 북두칠성으로 알려진 큰 국자 모양의 큰 곰 자리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손잡이와 반대 방향으로 나있는 국자의 두 벌을 통과하는 선을 긋는다면 북극성을 가로지르게 될 것입니다. 선원들이나 바다나 육지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그들의 방향을 찾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씀드려 나는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북극성"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리와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구세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맨슨 대관장님과 그분의 헌신적인 두 보좌와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의 본부 임원들께 사랑을 보여 주시고 도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을 전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봉사했던 지역인 유럽에 계신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동반자와 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계속해서 간중하며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이러한 천밀한 사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회복되었으며, 요셉 스미스는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 에스라 태프트 맨슨 대관장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불평하지 말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불평하는 사람중 일부는 불평함으로써 교회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재구성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려면 왜 자기가 속한 교회를 자기 구미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 나는 이제 해임되어 새로 부름받으실 훌륭한 형제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은 부름받을 당시에도 모든 사람의 모범이었으며 현재도 더욱 큰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유익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이 지난 유월애 교회 회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불평이란 분노를 반쯤 억제하고 투덜대며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는 테비아가 혼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품도 조용한 외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불평도 소리없이

투덜거리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 가운데 일부는 그 대상이 분명히 주님인 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8; 니파이일서 16:20 참조) 최소한 테비에는 자기의 불평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불평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전에는 불평에 대한 예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민수기 21:5) 필요한 증원군이 오지 않았다. (엘마서 60장 참조)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민수기 11:20)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났던가? (니파이일서 2:11 참조)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름을 어찌 부르느냐 하는 일로 다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사이야서 27:1; 니파이삼서 27:3~4 참조)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경전의 말씀을 더 받게 되는 것도 불평을 야기했습니다. 경전상 불평에 대한 예로서 우선 가인이 주님께 드린 번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닌 생각이 최소한 우리의 행위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모세서 5:20~21 참조) 가인은 아벨의 번제는 열납되었으나 자기의 번제는 열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사랑받는 것을 우려합니다. 더욱 나쁜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근본 원인은 우리중 너무 많은 사람이 인생이 아무런 장애도 없는 평탄한 길처럼 유유히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평은 단지 불만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저들이... 주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에게 행복을 용납치 아니하시매,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 슬퍼하였음이라. “저들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오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죽기를 원하였으면서도 목숨을 위하여 검을 들고 싸우려 하였느니라.”(물문서 2:13~14)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들이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으므로 어떤 불평을 했는지를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부친 리하이가 “어리석은 망상”으로 인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니파이일서 2:11; 3:31; 4:4 참조) 똑같이 비판적인 이 두 사람은 부친 리하이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심판한 나머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리라고 예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리하이는 니파이가 자기들에게 “심한 말”(니파이일서 16:3)을 했다고 불평하는 레이맨과 레뮤엘을 보고 꾸짖으며 “너희가 노여움이라 한 것은...진리”(니파이일서 1:26)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는 얼마나 자주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러 수 있는 것입니까! 진리는 받아들여지는 힘들지라도 교만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니파이가 갖고 있던 강철로 만든 활을 부러뜨렸고 배를 만들 수

없었으며(니파이일서 17:17) 또한

“우리를 다스리려”(니파이일서 5:3)

하는 듯이 보였기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을 한 자들은 곧

니파이가 활로 잡아온 고기를

포식하였으며 니파이가 건조한 배를

타고 항해했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때

영감은 받으나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특히 그분들이 변명도

못하고 침묵으로 그 고통을 견뎌야 할

때 그렇게 행하기 쉽습니다. 신뢰를

지켜주는 우리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들을 지지하는 것이 됩니다.

율리버 카우드리는 번역하려는 욕심이

지나쳤으므로 그 특권을 받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불평하지 말라. 이같이 너를

대하였음은 깊은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이다.”(교성 9:6) 엠마 스미스도

이와 같이 어떤 일이 보류되었을 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교성 25:4)

불평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첫째로 불평하는 자는 보통 자신의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용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동료에 관한

것일 경우, 불평하는 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마태복음 18:15)

둘째, 불평하는 자는 남들이 악을

행하도록 거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돌을 집어 들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킵니다.

셋째, 불평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만

분출하려고 하는 반면 그에 대한 어떤

반응도 적대시합니다.(니파이일서 1:26

참조) 더군다나 그들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그 불평을 참고 있을지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째, 불평하는 자들은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성스런 땅을 향해 계속 여행하는 가운데 때때로 배고픔과 갈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보내주시거나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시므로써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민수기 11:31; 출애굽기 17:6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요구할 것은

어찌 그리 많은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축복을 망각하면 어떤

일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구약전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낫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신명기 8:2)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막대하고

항구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모세서 4:6

참조)

아마도 우리는 불평할 때

무의식적으로 주님에게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이

근거하고 있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불평하는 사람중

일부는 불평함으로써 교회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재구성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면 왜 자기가

속한 교회를 자기 구미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교리는 주님의

교리이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그것을 위임하시는 주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에 관한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 다음 성구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이... 불평을 토한 까닭은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요”(니파이일서 2:12)

레이먼과 레뮤엘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니파이일서 2:12; 17:22 참조)

브리감 영 대관장과 히버 시 킴볼은 토마스 비 마쉬의 불평을 가라앉히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후에 회개한 마쉬 형제는 당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주님의 영을 잃어 버렸음이 틀림없다...

“나는 예언자를 절투하게 되었으며...

옳은 것을 간파하고 악을 찾는 데

시간을 모두 소비했다... 난 내가

요셉의 눈 속에서 들보를 봤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단지 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내 눈이 들보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화가

났으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화내기를

바랐다. 나는 브리감 영과 히버 시

킴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나같이 화내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이

화내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다.

브리감 영 형제가 조심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토마스 형제님, 형제님이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하고 그가

말했다.”

예수님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인생의

불공평함을 불평한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배푼어진 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됩니다. 주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나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손님처럼 현재의 처소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관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라... 사실이 그러하다면 불평하지 않겠으나...”

“이것이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 ... 우리의 병력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노라.”(엘마서 58 : 35, 37)

우리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요은은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니다.(요기 1 : 22 참조)

리버티 감옥에 있던 요셉 스미스처럼 다른 사람의 안녕을 염려하는 신앙심 깊은 분의 호소는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불평을 잘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추종자의 불평이 아닙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확신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교성 121 : 7)

불평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 깨닫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불평이 지닌 또 다른 위험은 그 파급성에 있습니다. 신앙심 깊은 리하이조차 잠시 동안 불평에 전염된 일이 있습니다.(니파이일서 16 : 20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잠시 잘못된 일도 반대자들의 분노를 돋구는 압력 때문이었습니다.(민수기 20 : 7~12) 반대자들보다 무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대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 역시 파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교성 59 : 15, 81 : 5 참조)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강화시켜 줄 명백한 의무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경전이 말하는 근본적인 상황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축복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놀라운 축복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매우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요한복음 16 : 33; 마태복음 9 : 2; 교성 61 : 36; 68 : 6; 78 : 18 참조) 이 영원한 것들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는 일들을 좀더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개인적으로 비를 맞지 않으면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가 어찌 똑같이 비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마태 복음 5 : 45 참조)

물론 합당한 관심이나 불평을 생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있으며 비공식적인 길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는 자주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그 진의가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격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은 언제나 해결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킵니다.(마태복음 18 : 15 참조) 사실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또는 듣기 좋은 말로 불평하거나 투덜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들리는 불평도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나니”(니파이일서 27 : 20, 21 참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롱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니파이삼서 29 : 6 참조)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 그 상세한 시간 계획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니파이일서 27 : 21; 이노스 1 : 16; 이더서 3 : 24, 27) 그러나 경전에 있는 구체적인 권고의 말씀은 “만사는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교성 64 : 32; 24 : 16 참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을 비판합니다. (야곱서 4:8; 교성 1:16; 56:14 참조) 우리가 행하는 방식은 훨씬 더 저급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8~9 참조)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인내력을 시험하려 하신다고 말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시련이 불평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사이아서 23:21 참조) 물론 우리가 조심성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일을 이루십니다. (교성 38:13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우기 때가 이르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류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만한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성 105:10; 122:7; 창세기 30:27 참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막상 필요한 기회를 만들고 계실 때 단지 아무것도 안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친숙한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그런 기회를 사용하는 데는 매우 둔한 편입니다.

불평은 또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기 연민의 늪에 자신을 빠뜨리지 말라는 신호와 같은 다양한 영적인 신호를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진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 불평하는 일은 자신의 십자가를 젊어지는 데 필요한 힘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도 내려 놓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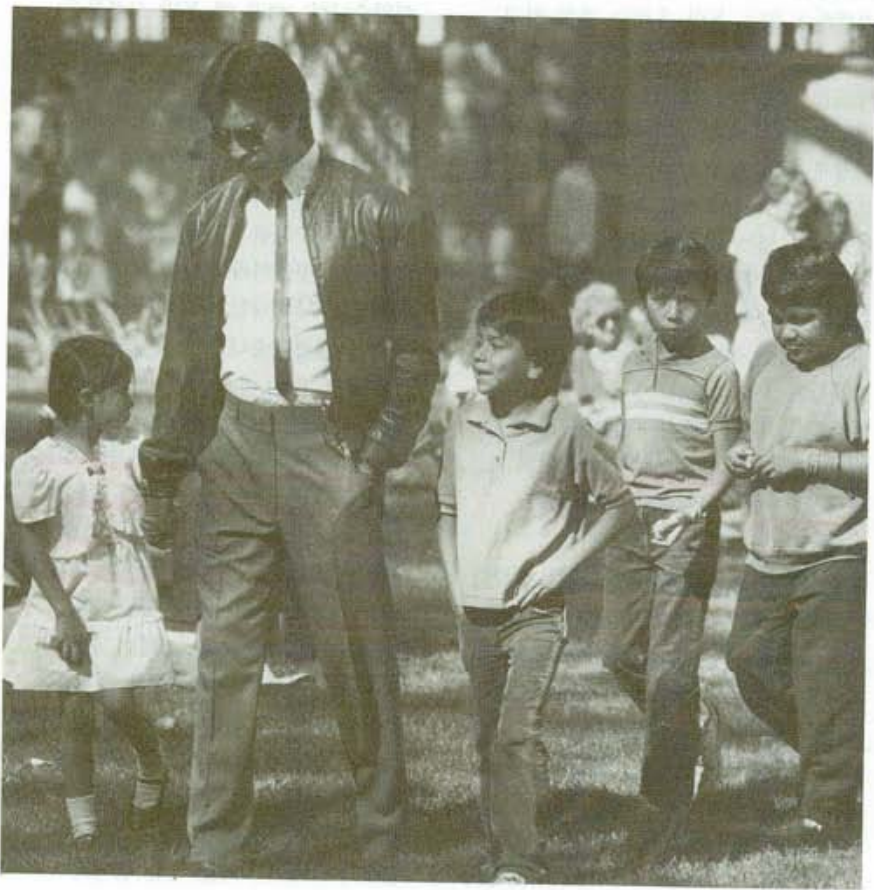
우리가 불평을 덜어내 버린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겁게 느끼는 짐은 우리를 끊임없이 억누르는 죄의 무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당신을 알기 위해 저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엘마서 22:18 참조)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그 죄를 기꺼이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하지 않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보도록 허락받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적군의 말과 병기와 “많은 군사”에 에워싸였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어린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주님께서 그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열왕기하 6:14~17)

엘리사의 권고는 오늘날 교회 회원이 불평을 잠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의 시기에 사태가 어떻게 보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

1. 지 케이 체스터턴, 콜럼비아 인용 사진, 로버트 앤드루스 편,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 1987년.
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성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간증, 조셉 이 카든 및 사무엘 오 베니온 편, 인디펜던스, 미주리주: 시온 출판사, 1930년, 103, 106페이지.



마음속에 거룩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단 제1보좌

“손과 마음을 교육시키십시오. 결혼 생활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기도와 신앙,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태비내클이 본 여성 대회를 할 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분의 헌신적이며 유능한 여성들을 따라가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밴슨 대관장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과 아울러 몬슨 부대관장님 및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역원들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딸이며 교회의 자매인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나는 흥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지명을 받지 않은 채로 나는 유타주 남동부에 있는 한 시골 지역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의 스테이크 부장과 자매님이 헝클리 자매와 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토요일 오후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차를 타고 스테이크 경내를 돌며 여섯 군데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는데,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위에는 잔디가 파랗게 돌아 있었고 건물들은 비록 작고 오래된 것도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집들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으나 거의 모든 집이 깨끗했으며 활짝핀 꽃들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여유있게 보내면서 나는 이 여행에서 그분들의 신앙과 충실함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작은 보상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농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교성 6:33)는 주수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귀리를 심고나서 밀을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노새에게서 경주마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위대한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희망과 신념을 갖고 일하며,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며, 봉사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며 힘들여 일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헝클리 자매는 이 훌륭한 사람들과 이들을 지낸 후 다음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교회를 함께 결속시키는 끈끈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집은 치장은 하지 않았지만 안락하고 깨끗했으며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수입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수입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십일조 및 헌금을 내고 약간의 돈을 떼어 저축을 했습니다. 아내는 여섯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감사와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분들은 흉작과 치명적인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분들 사이를 다니며 감사와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되돌아 오는 측량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시골 와드들로 구성된 스테이크경내에 살고 현학적인 꾸밈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용기와 신앙과 미덕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의 손은 부르르고 오랜 여름날의 땀약벌로 인해 피부엔 주름이 패였으나 그분들의 가슴엔 땅과 하늘에 대한 사랑,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 교회와 그 영원한 목적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온 인류의 구세주에 대한 사랑 등 커다란 사랑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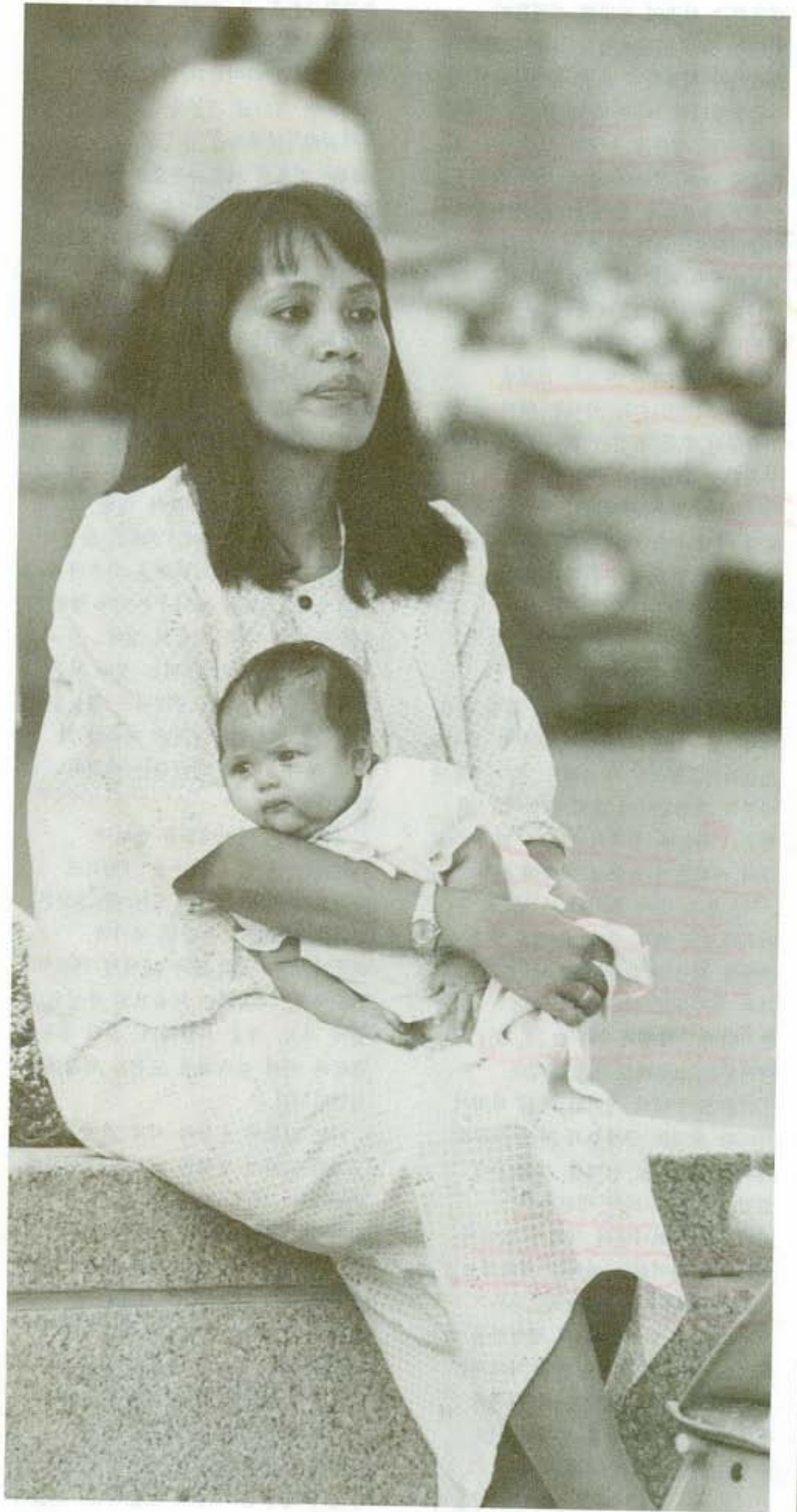
나는 미덕과 용기와 능력이 풍부한 아름다운 여성들, 즉 투쟁과 절망과 고통을 익히 알고 있는 나이든 여성들과 목적과 선행과 예술 및 배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아름답고 순수하며 신비스러운 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모습을 세계 각처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문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웬지 그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굳건한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과 계절에 관계없는 노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 선교 지역에서 그분들의 자녀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모두 성공적인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아버지가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참됨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회생의 덕택으로 자녀들은 선교 사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나와 사업계 및 각 전문 분야에서 봉사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나는 오랜 여행 동안 오가며 읽으려고 여러 가지들 가득 채운 가방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는 타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교회 본부로 보낸 세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방문한 곳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하고 슬픈 느낌을 이야기했으며, 아내를 학대하고 이기적으로 요구만 하는 남편과 어린 시절에 학대받고 자라나 고마움을 모르는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랑과 타인의 관심 및 자신의 재능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쓴 사람들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며 절식하며 파멸해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나는 남자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냉혹하고 심지어 잔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은 별받아야 마땅하며 또한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그 책임을 지며 심판대 앞에 서서 슬픔을 느끼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남성들에게 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여성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목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표는 여러분 마음 속에 의로운 표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유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헛되거나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딸들이] 다 기쁘게 소리"(욥기 38:7)할 때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구름 덮힌 길을 따라" 올 때에 그 유산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 송가: 유년 시절의 회상중에서 불멸의 암시" 5연 참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요한계시록 12:7, 9) 여러분은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적이된 자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의 계획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위치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스런 작은 소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신성함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나에게서 노래하고 미소지으며 나의 가슴에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일깨워주는 초롱초롱한 눈매의 예쁜 어린 손녀딸들이 있습니다. 나는 손녀딸들의

순진무구함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

나는 젊음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보석보다 더 값진 덕성을 갖췄으며 밝은 표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정성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며 또한 그들이 살게 될 세상에서 합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명예와 능력으로 무장을 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인용할 줄 알며, 교회의 표준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가치관을 갖고 삶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음악과 미술에 대한 심미안을 갖고 있으며,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거룩한 엔다우먼트와 영원한 인봉을 받기 위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모든 목표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결심을 한 청년들을 봅니다. 여기에 거룩한 그 어떤 것이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젊은 어머니들을 봅니다. 나에게서 세 딸과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며느리가 둘 있는데 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며 교육시키고, 교회 조직 내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며, 사심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 가고, 생을 사랑하며, 삶의 풍부한 경험과 미에 심취하며 도전과 역경에 직면합니다.

나는 그들의 웃음과 서로 간에 오고가는 재기 발랄한 대화를 좋아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심성으로 인해 그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 오며 원숙하게 된 나이든 여성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마음 속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앙금진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폭넓게 펼쳐질 참으로 두껍게 앙금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선미에 대한 이해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앞으로 자손에게 전해 줄 거룩한 유산의 표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와 나이든 분들에게 모두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노력을 신속히 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을 행하도록 부탁드리지는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성취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세우지는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그 노력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첫째, 손과 마음을 교육시키십시오. 여러분은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나는 가능한 모든 교육을 받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살게 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인간 예지의 발전에는 거룩한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성 93:36)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교성 130:18)

단지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어려운 제약이 따랐던 것에 비해 이제는 인간이 시도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여성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는 모든 여성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정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생계를 위해 시장으로 일하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손과 마음을 교육시킨다면 좀 더 잘 준비를 갖추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그것이 생계 유지에 적용되든 안되든 교육은 어떠한 면으로든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는 투자입니다.

마음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는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심미안을 더욱 크게 넓히며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을 연마하십시오.

며칠 전에 나는 멘타이 성전에 갔었는데, 그 곳에 갈 때마다 상당 부분의 벽화를 그려 그 벽을 우아하게 장식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네르바 테이치트입니다. 나는 수년 전에 그녀를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그녀는 와이오밍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연마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솜씨로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장식했습니다.

생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기타의 일로 인해 여가가 없을지라도 양서를 읽음으로써 마음을 넓히고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흥을 돋구는 건전치 못한 것을 보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양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시야를 형성시키고 굳게하며 넓혀주는 훌륭한 작가의 사상을 읽고 함께 나누는 일은 얼마나 마음을 살찌게 해 줍니까!

여러분은 너무 바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10분내지 15분간 경전, 특히 물문경과 함께 하는 시간을 냄으로써 여러분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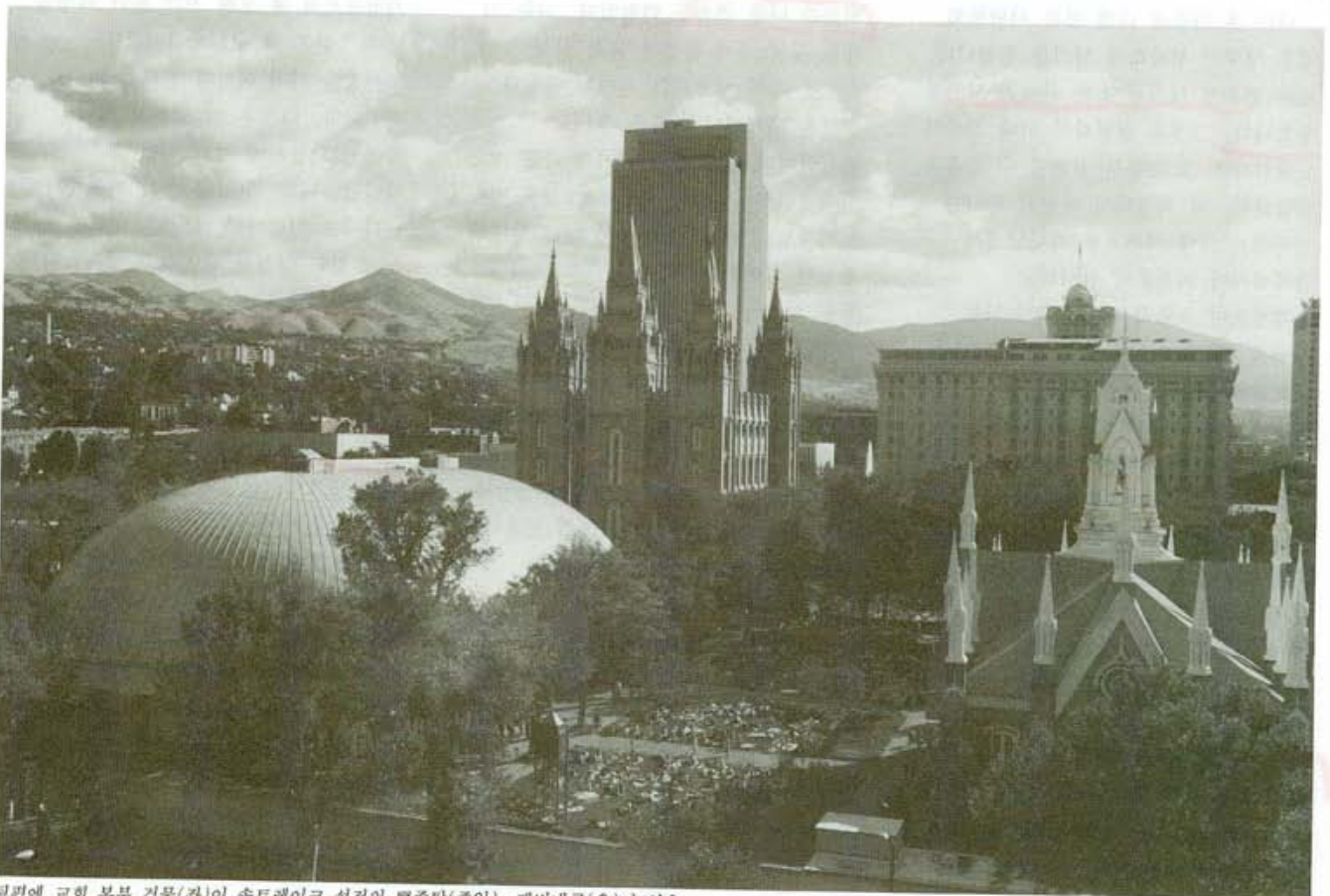
보존되어온 위대하고도 영원한 계획을 놀랄만큼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구세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제언으로써, 결혼 생활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십시오. 행복한 결혼은 모든 청녀들이 겨냥하는 목표입니다. 나는 이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연만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높은 목표를 정열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생활에 만족을 가져다 줄 활동을 활발히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여러분의 재능과 헌신과 도움을 인정해 줄 사람들에게 손길을 펼치는 가운데 자긍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결혼 생활이 동반자의 관계가 되도록 하십시오. 전에도 이



왼편에 교회 본부 건물(좌)이 솔트레이크 성전의 뾰족탑(중앙), 태버나클(우)이 있음.

단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들에 못지 않게 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계획 아래서는 아내는 남편보다 앞서거나 뒤에 처져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정한 동반자로서 남편과 나란히 걷습니다.

나는 52년간 나와 함께 생활한 나의 동반자를 봅니다. 그녀의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나의 헌신보다 덜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서 걸으며 내가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축복하며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가는 곳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격려와 선행을 행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나는 반세기 이전에 주님의 집 계단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던 이 작은 여인을 점점 더 사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혼이 영원한 동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한다면 그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왕이 되시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여러분이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째, 여러분에게 기도와 신앙,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시도록 제언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딸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뻗치어 위안과 도움을 주고 상처를 싸매고 아픈 가슴을 치료하는 독특하고도 신비스러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역사의 한 장은 성도들이 미주리로부터 추방되던 1838년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사건은 헌스필 대학살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에서 아만다 스미스는 남편과 아들 사디우스를 잃었습니다. 어린 아들인 엘마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속에서 방앗간에 있는 아들을 안아 들고서 숲속에 있는 은신처로 갔습니다. 어린 아들의 엉덩이 관절은 총에 맞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저의 상처받은 불쌍한 아들을 보고 계시며 제가 경험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해야 할 바를 지시해 주시옵소서!” 그녀는 후에 당시 일어났던 일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마치 어떤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인도를 받았다.

“우리가 피워 놓았던 불의 재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었다. 우리는 히코리 나무 껍질을 태웠었다. 나는 그 재를 물에 개서 형겁에 묻혀 상처 속으로 집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무척이나 아픔을 주는 일이었지만 어린 엘마는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느끼지도 못했다. 계속해서 나는 엉덩이 관절이 떨어져 나간 구멍 속으로 재를 묻힌 형겁을 집어 넣었다...”

“지시받은 대로 행한 후에 나는 다시 주님께 기도했으며 마치 외과 의사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지시를 받았다.

“근처에 슬리퍼리 느릅나무가 있었다. 나는 이 나무 껍질로 슬리퍼리 느릅나무 껍질약을 만들어 상처에 붙이라는 지시를 받았다.”(에드워드 더블류 톨리지, 물론 왕국의 여성, 뉴욕, 1877년; 재판 솔트레이크시티, 1957년, 1965년, 124페이지)

그녀는 상처를 입은 아이를 어느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모성애와 어머니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그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친 엉덩이를 낫게 해 주실거야.” 그녀는 그를 엎드려 뉘였으며 그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엘마는 5주일 동안 엎드려 누어 있었으며 마침내 떨어져 나간 골절과 파여 나간 상처에 연골이 자라기 시작해서 마침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외과 의사에게도 경이로운 일로 남아 있다.

“그가 다시 걸던 날 나는 밖에서 물통을 나르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나는 놀라서 달려 들어 갔다. 엘마가 방에서 춤을 추며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벌써 거의 40년 전의 일이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엘마는 평생 동안 조금도 다리를 절지 않았으며 복음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 주는 살아있는 기적으로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했다.”(같은 책, 128페이지)

신앙을 가진 여성의 권세는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거듭하여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신성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 여러분, 그 거룩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과 이후에 올 모든 사람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십시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며, 직면해야 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녀가 기울인 노력의 영향은 세상을 통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라첼 카슨은 불과 27년 전인 1962년에 침묵의 샘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온 나라와 온 세상이 유해한 화학물질의 위험에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글로 인해 비난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책을 읽고 그들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만 부의 책이 팔려서 읽혀졌습니다.
 사회적인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공기와 물을
 정화시키는 특기할 만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그랬듯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야에서
 훈련을 쌓고 과감하게 자신을 내세워
 그녀의 책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킨 이 여성의
 노력에 의해 우리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더욱 잘 보호받게 될 것임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의
 개혁 시대에 남자들이 생을 유지하기
 위해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썩을
 파내고 땅을 개간할 때에 아내요
 어머니인 여성들은 단조로운 개혁
 생활에 미와 정취를 돌리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꽃과 과수를 가꾸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아름다움은 성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가꾸는 것은 여러분 내부에 있는
 거룩한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적지 않습니다. 참아내야 할
 시련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악이
 존재하며 가정에서조차 심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악과 야만적인 행위를
 꾸짖으십시오. 잔혹한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러한 학대
 행위로 이끄는 세상의 더러움을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유산의 표상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훌륭한 소녀
 여러분과 굳세고 유능한 청년 여러분과
 신앙심 깊고 성실하신 나이 많은 여성
 여러분과 시온의 어머니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청녀의 진정한 모습

엘레인 엘 잭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닌 영원한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왔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로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청녀 활동과 캠프 및 대회에 참석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 말하자면 여러분의 목표, 계획, 친구 및 어려운 일 등에 관해 들으면서 여러분 청녀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으로 행하며”를 부르는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면 목이 맵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선하게 보며, 여러분의 훌륭한 잠재력을 봅니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과 여러분이 물려받은 거룩한 자질 및 무한한 가치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자기가 불안정하고 불행하고 외로우며 친구 만큼 착하거나

예쁘다거나 혹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열 네살 때 그같은 많은 의문과 불확실성에 빠져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단다. 엘레인.”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열 네살과는 먼 거리에 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열 네살 또는 열 여섯살의 생활은 내가 그 나이였던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은 컴퓨터와 우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을 보며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세상 곳곳에서 청녀들은 함께 일어서서 청녀 주제를 반복해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제는 내 생활 신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 엘레인 잭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느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나는 때때로 그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할머니인 나에게도 내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딸임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적을 때에 그것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필리핀에 있는 한 장미반 청녀는 같은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전에 나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딸들 중의 하나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라고 질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로 인하여 나는 즉각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청녀 조직에 속하게 되었고 성신의 속삭임에 의해 내가 참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강한 간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난 내가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난 영을 느껴본 적이 결코 없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간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어떤 경험에 대해 여러분이 따뜻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영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옳고 참되게 들리게 하며, 때로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싶은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항상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 친구가 나에게 전해준 어떤 청녀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나는 마치 간증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때에 자매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밤 자매님 마음 속에서 애쓰시는 영의 축복을 받도록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때, 뭐 손해볼 일인가, 안그래?’ 그다음 주 내내 나는 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참으로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 역시 바울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가르치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갖게될 때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가족의 식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큰 오빠이고 여러분은 사랑, 용서, 인내, 봉사, 관용 및 순종의 속성을 물려받았음을 알게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물려받은 다른 특성에 대해 궁금하다면 축복사의 축복이 자신의 자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 예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청녀 여러분에게 10대의 나이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경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실제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앤사인, 1986년 11월호, 82페이지)

여러분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곧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축복사의 축복에 어떤 말씀이 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안됐지만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 70년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축복문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자질들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평생 동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장점들을 가르쳐 줍니다.

축복문에서 나는 예견의 은사를 받았으며 생각과 느낌을 분별해 낼 수 있고 악의 힘을 물리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사들을 계발시켜 미혹당하지 말지니라.” 나는 이 축복을 매우 어렸을 때 받았습니다. 환경은 계속 변화되었지만 내가 열 여섯살 때나 예순살 때나 약속된 은사와 축복은 변함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꼭 닮았다든가 웃는 모습이 아버지와 같다든가 아니면 가족 모두가 같은 색깔의 눈을 가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상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적인 특징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특징은 계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

속성들은 여러분 내부에 잠재되어 있으나 가꾸고 발전시키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청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학교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어떤 소녀가 과학 과목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삼급반 친구들이 내 명예에 손상이 간다며 그냥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수학을 도와줄 친구가 필요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도운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얻었습니다.”

영국에 사는 또 다른 청녀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은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악을 작곡하고 듣기를 좋아하며, 또한 그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감정이 상했을 때에는 자주 피아노 앞에 앉아 화를 발산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아노에게는 매우 해롭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곧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치면서 마칩니다. 이로 인해 나는 좀더 좋은 성격을 갖게 되고 또한 다른 가족도 모두 음악을



대회 방문자

좋아해서 우리는 최소한 한 동안은 가정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월계반 청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월계반 언니들을 존경했고 그들을 닮아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면 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어린 소녀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꿀벌반 소녀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논문을 쓰도록 부탁받았을 때, 그녀는 나에 관해 썼습니다. 나는 나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느 누구와도 똑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자녀로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결코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거나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자녀임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히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무한은 경계나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열심히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어느 청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힘이 있고 유혹에 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장 악한 시기]에 이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밝은 점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청녀로서 나는 언젠가 어머니가 될 기회를 갖도록 축복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사탄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노력하면 뭘해?”라며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자기를 경멸하게 되는 것은 대개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경전에는 사탄이 여러분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니파이이서 2:27)하며 또한 “사로 잡(으려)”(니파이삼서 18:18)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분에게 회개란 없으며 되돌아 갈 수도 없고 아무도 상관치 않는다는 점을 믿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활동을 떠났다가 돌아온 어떤 회원은 “교회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가 날 정말 염려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도움을 원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과정을 통해 속죄로 인한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과 자신 및 세상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갖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되돌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염려하시며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뒹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확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선행을 하고 선하게 되는 것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와 느낌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미셸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지녔음을 발견했습니다. 인기있는 여고생인 그녀는 전에 이웃에서 살던 자칭 “불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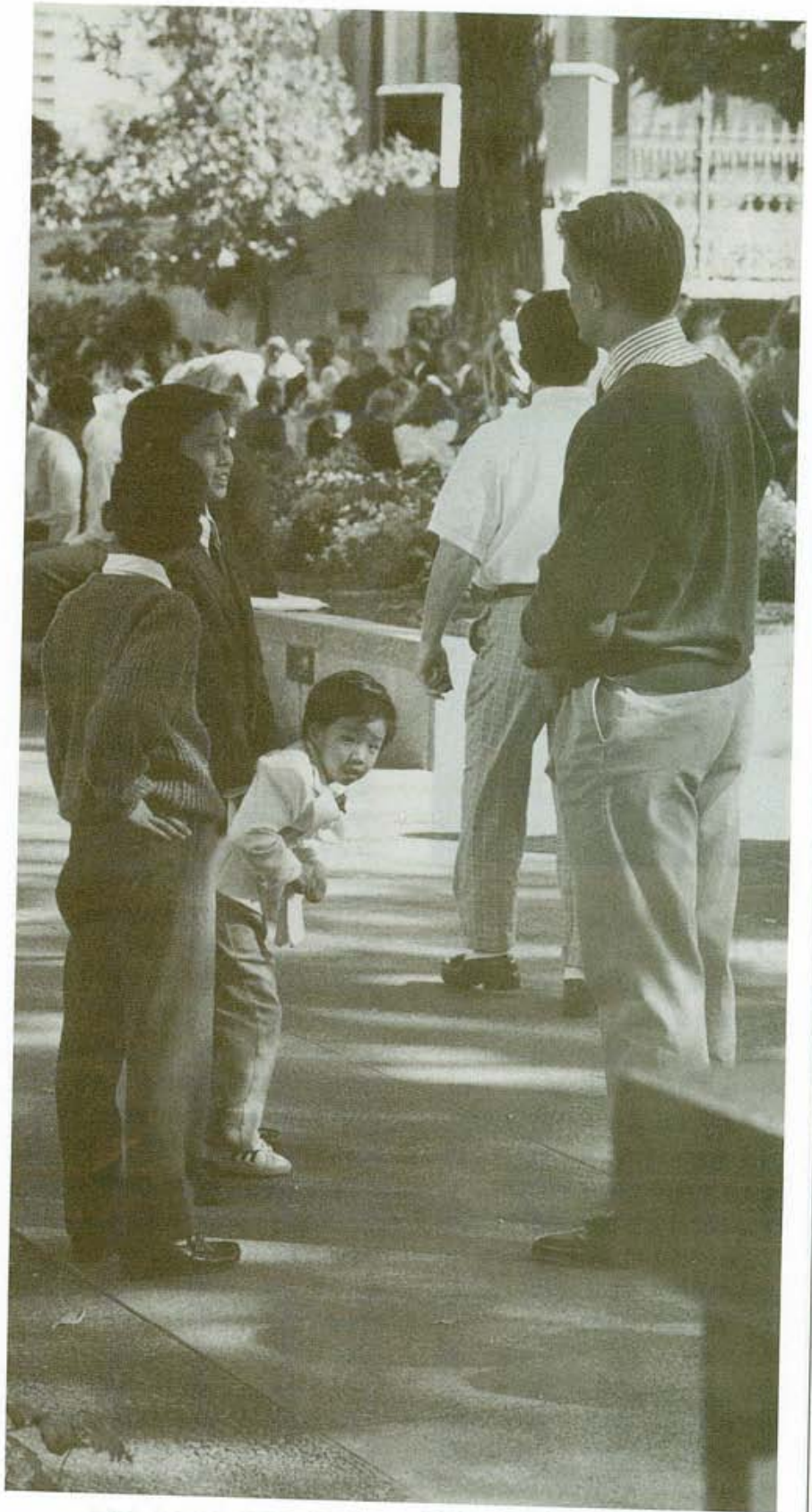
소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어떻게 하면 소년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첼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해. 그러면 소년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꾸밈없는 너를 좋아하게 될거야.” 후에 미첼은 “그녀의 새로운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미첼은 이 소녀를 도와줌으로써 불행한 이웃이 아닌 새로운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글과 말에서 나는 그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돈이나 아름다운 외모나 멋진 복장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인간의 가치는 외모나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진실했습니다. 내가 지칠 줄 모르고 작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일했을 때, 나는 내가 되고자 원했던 곳을 향해 발전해 왔습니다.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닌 영원한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왔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여러분이 부여받은 거룩한 잠재력과 여러분이 실현시킬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해 봅시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조안 비 독시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분을 기억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그분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 이 교회의 전 세계적인 여성 단체에 속한 자매 및 앞으로 그 회원이 되실 자매 여러분, 그리고 성인 여성 및 앞으로 성인이 되실 소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장차 어머니가 되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면에서 모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매이며 지상 생활을 마치고 영예롭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딸과 자매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되는 특권과 책임이 포함된 그 거룩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올 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두 행하는지 시험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서 3:25 참조)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본향으로 다시 인도해 가시는 구세주에 대한 신앙에 의존하도록 망각의 장막이 놓여졌습니다.

오늘날 구세주를 대변하는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이 지상에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그분의 면전에서 되돌아 가는 방법을 가르칠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하실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으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앤사인, 1985년 8월호, 8페이지)

말일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것과 똑같은 진리를 가르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들의 운명은 여성들의 보살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자매 여러분! 아울러 가정과 가족 내에서 우리의 영향이 얼마나 영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분을 기억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그분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면전에서 우편을

차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합니다. 자녀가 현재와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를 원치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뛰어난 학교 성적, 완벽한 연기 또는 기타 노력을 요하는 장기간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는 항상 희생이 요구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로움의 적인 사탄은 주님의 백성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힘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 합니다. 그는 모든 계획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세웁니다. 그의 계획에는 적당히 즉흥적으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에게 의를 가르치기 위한 우리의 계획과 노력에 즉흥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선택된 거룩한 자손임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천국 회의 때에 배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배우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신의 온사를 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언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경전을 주셨으며 우리가 구세주와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 계명을 주셨고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성약을 주셨습니다.

경전과 계명과 성약이 어떻게 그분께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1. 우리는 경전을 통해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며 쓰여지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경전에 들어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여성들이 경전을
상고해야 할 심각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경전 말씀의 진리에 친숙해
질 수록 더욱 더 유능해질
것입니다.…결국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과
어머니보다 복음의 진리(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를 깨달아야 할 더 큰
필요성을 지닌 자들이
누구입니까?”(앤사인, 1979년 11월호,
102페이지)

만일 우리가 경전을 가볍게 취급하여
선반에서 덮여진 채 읽히지 않고 먼지가
쌓이게 버려둔다면 경전은 계획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의 생활을
인도하는 영의 감미로운 속삭임을
거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매일 경전을 특히 물문경을 읽는 일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몰리칠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커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메시지를 주님은
미리 아셨으므로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말씀이 경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문경 모사이야서 1장 3절부터 나와
있듯이 베냐민 왕은 경전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예를 보여 주었습니다. 베냐민
왕이 기억이란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나의 아들들아, 이제 이러한 사적과
계명이 기록된 이 판이 없었던면,
우리가 무지로 신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알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을 너희가
명심하여 기억하기 바라노니,



대외 방문자

“이 판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우리
조상 리하이가 이 모든 일을 기억하여
그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었을
것임이라.… 이 조각된 사적을 읽을 수
있어 그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러하여 그 자녀들이 다시 저들의
자녀를 가르쳐 지금에 이르도록
하나님 계명을 지켜 왔느니라.

“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이렇게
보존하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읽어 깨닫게 하시며 그의 계명을
늘 눈 앞에 보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의 조상들일지라도 불신앙에
빠졌을 것이요,…”

“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
말씀과 기록이 진실함을 기억하기
바라노라.…”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늘
기억하여 이 기록을 탐독하여 그곳에서

유익을 구하기 바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모사이야서 1:3~7)

나는 경전을 “늘 눈 앞에서 보게”
한다면 축복을 받게됨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매일 자녀와 함께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영의 감미로운 영향을
느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가족이
함께 경전 공부를 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날 때에는 “마음을 침대에”
두기도 했지만 “희생은 하늘 축복[을]
가져”(“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왔습니다.

2 우리는 계명을 지키므로써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결국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계명을 받았습시다. “관대한 그
계명 친절한 그 교훈”(찬송가
81장)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정하신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규칙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러한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하나님의 계명]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7) 나는 또한 이 말씀에 웃을 때에든지 잠자리를 깰 때에든지 정원을 가꿀 때에든지, 말하자면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복음에 관하여 가르칠 썩어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따르지만 한다면 우리를 이탈시켜 세상의 길을 따르도록 손짓하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순결의 법, 십일조의 법 및 기타 계명과 같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으로 큰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타오르는 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벼랑 끝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써 안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을 피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약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나 피해가도록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컨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말씨, 거리에 나가면 올바르게 못한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 품위 없는 복장, 지혜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몸에 해로운 물질을 취하는 행위,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약간 덜 바치는 행위 및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는 행위 등을 피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계명 가운데 안전과 화평이 있습니다.(찬송가 191장 참조) 세상 어느 곳에서나 안전과 평화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써 마음 속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교성 59:23 참조)

우리는 엘마서에서 힐라맨의 아들들이 어머니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정확하게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적의 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엘마서 56:47-48, 57:20-21 참조) 분명히 그들의 어머니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님 앞에서 끈게 걸어가도록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로버트 엘 심슨 장로가 세살 난 남자 아이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취침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두 눈을 감고 고래를 숙였으나 얼마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소년은 곧 그의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빠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난 듣지 못했는 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곧 아들이 대답한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난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뽀뽀진 좁은 길, 슬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북사, 1974년 148페이지)

때때로 아이들은 순수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면 우리는 그들이 계약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규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불순종의 결과와 비교할 때 그분의 명어가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마태복음 11:29-30 참조)

3. 우리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과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성약을 맺고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니파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그것을 잊고 그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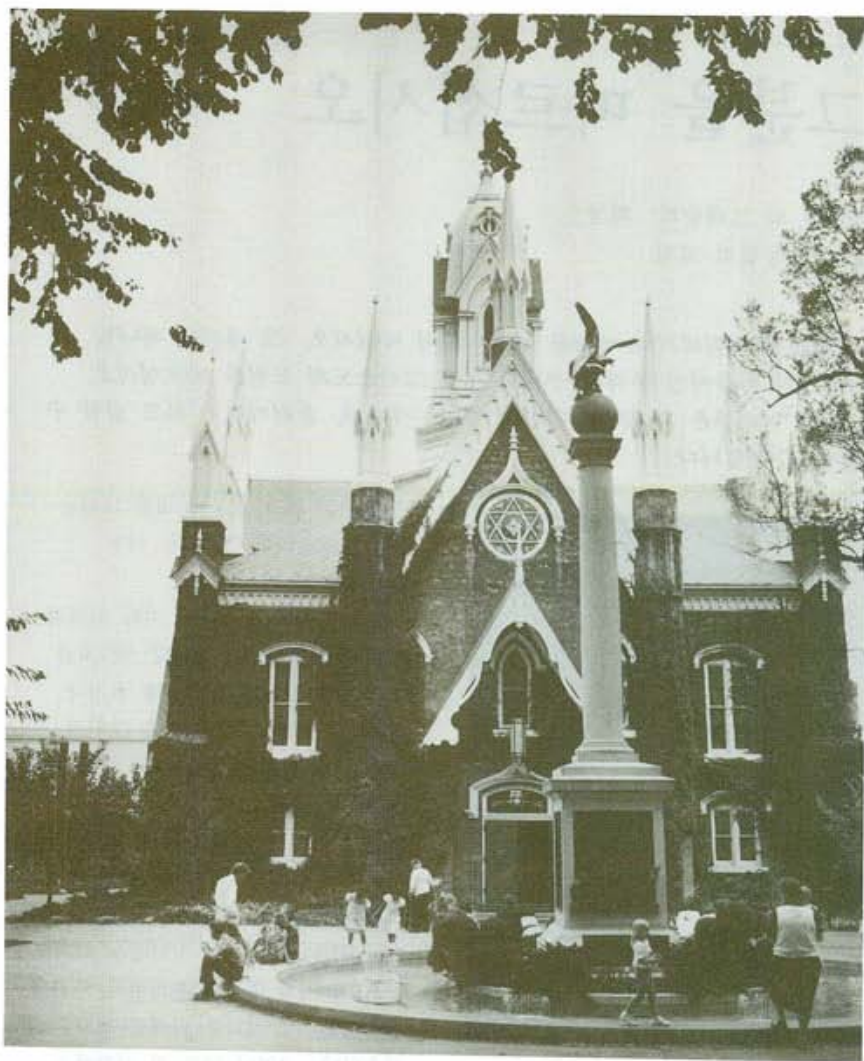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면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성약을 맺을 기회가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의식과 성약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통찰력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의식과 성약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격증이 됩니다. 의식과 성약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일생의 과업이며 그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과제입니다.”(앤사인, 1987년 5월호, 24페이지)

우리는 침례시 또는 성전에서 거룩한 성약을 맺고 그것을 자주 새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항상 그를 생각”(모로나이서 4:3, 5:2)하도록 성찬을 취합니다. 또한 가능한한 자주 성전에 가는 것은 그곳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행동, 언어, 복장 및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한다면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모로나이서 4:3)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영을 지닌 우리를 행복하게 생활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가정에서 살 수는 없으며, 대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각자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구세주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어머니되시는 여러분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침례받은지 얼마 안된 여덟살 된 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씹어지겠다고



간증을 하거나 열 두살된 아들이 집사 정면회 회장으로서 보좌들을 선택하기 위해 금식하겠다고 아침 식사를 사양할 때 또는 성인이 된 딸이 신앙, 가족 및 봉사에 대해 어머니가 배우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여성들을 위한 주님의 조직인 상호부조회에 기꺼이 들어갈 때 어머니는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가르침을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어머니는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자신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대가 의의 바튼을

앞으로 올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이 세대의 운명을 인도하기 위해 거룩하게 성임된 임무를 기꺼운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이 자리에서 들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를 알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분을 따르십시오

미셸린 피 그레슬리 회장
본부 초동협회 회장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져서 확신을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 동협회 소녀 여러분은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열 살된 에이미가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꿈을 꿉요.” 열 한살인 크리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옹치않은 일이 걱정스러워요. 어떤 일은 나를 몹시 놀라게 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모험이 있겠습니까? 위험이 따르겠습니까? 슬픔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웃음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꿈과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 배가 매우 고프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식탁에는 매우 맛이 좋으나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식탁에는 실제로 몸에 해로우며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는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식탁에는 디저트와 같은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식탁은 나에게 꽤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식탁에는 영양이 골고루 들어 있는 여러 종류의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식탁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미래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치 연회석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진 채 놓여 있는 것처럼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탐험하기를 기다리는 경험들로 이루어진 굉장한 축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선택할 식탁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좋아 보이기만 하지만 해롭습니다. 어떤 선택은 재미 있기는 하나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진수 성찬이 우리의 몸에 좋듯이 삶의 가장 훌륭한 진수 성찬은 주님의 식탁에 차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무엇이 차려져 있습니까? 그 위에는 사랑,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영성을 키워주는 음악, 평화의 기도, 경전, 미소, 배움, 행복한 대화, 따스한 포옹, 좋은 친구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초동협회에서 “나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모토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비록 좋은 일과 더불어 실망스런 날과 낙담과 슬픔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음식이 주는 만족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만족을 주며 더욱 오래 지속되는 주님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소유하고자 열망합니다. 그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사로 잡아 노예로 삼고 파멸시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시도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을 소유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자기 편에 두는 것은 그가 여러분을 속여 여러분이 소유한 영원한 축복을 빼앗아가는 외에도 여러분의 선한 모범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또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사탄의 식탁에 있는 내용물들은 때때로 유혹으로 보입니다. 재미있고 무해한 듯이 보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가 실제로 좋지 않은 일들을 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합니다.

만일 사탄이 추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뒤돌아 서서 최선을 다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여야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나쁜 일을 좋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하잖아.”, “아무도 모를꺼야.”, “이번 한번만 하는 것은 괜찮아.” “이것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한 말은 아니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이든지 사탄의 힘에 영향을 받는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말들은 경고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여러분이 돌아서서 위협으로부터 달아나야 할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잘못을 범해도 괜찮다고 말하려 애씁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위에 관해 더 편한 느낌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본 한 텔레비전 쇼에서 한 소녀가 가족의 규칙을 심각할 정도로 어기다가 들켰습니다. 그녀는 “난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단지 독립심을 배우고 있었을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글썄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현실적인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불순종했을 때 그 보호막은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불순종했을 때 그 보호막은 없어졌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보호막, 즉 성신의 도움을 잃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성신의 보호를 받을 수



본부 초동원회 회장단, 배디 조 켈슨(제1보좌), 미셸린 피 그레슬리(회장), 루스 비 라이트 자매(제2보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사탄은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추가로 전해줍니다.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나로서는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할 차례야.”, “나는 너무 늦었어.” “총관리 역원은 이해하지 못해 그분들 보다는 내가 더 잘 알아.” 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찾아들 때에도 역시 우리가 성령을 잃게 되고 간증을 잃어버리며 영원한 기쁨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협으로부터 뒤돌아 서서 달아날 때입니다.

어디로 달아나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 데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하도록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잘 준비가 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탄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이더서 3 : 14)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그분께 돌아가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생활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계시실 때 사탄은 만일

예수님이 그에게 경배하면 권세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약속이 거짓임을 아시고는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라져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8~10 참조)

우리가 허락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항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을 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 또는 행위로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말하자마자 나는 사탄에 대항하기 위한 힘과 권세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나를 돕는

성신이십니다. 성신은 참으로 놀라운 안도감을 갖게 해 주십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주님의 진수 성찬 가운데서 식육을 뜯고어 주는 음식입니다. 그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을 주시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서 38:30)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분께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할 때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권세인 힘을 모으며 악을 물리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의 한 부분은 회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범했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감독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회개하여 다시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 자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 하거나 미래를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져서 확신을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여름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통해 처음으로 듣게 되는 소리는 들종다리가 지저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킬더 물새가 부르는 소리와 박새의 짹짹대는 소리, 그리고 까치의 울음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들종다리의 울음 소리가 특히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새소리 가운데서 그 소리를 가려내도록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도 같은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함으로써 영적인 감각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자. 만일 너희가 모든 것을 좇으며 이를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모로나이서 7:19)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한 모든 것을 좇는다”는 것은 선을 추구하며 선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내가 들종다리의 소리를 구별하는 것처럼 언제나 쉽게 응답을 얻을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지난 번 연차 대회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관장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담긴 글을 구해서 경전과 함께 보관하고 되풀이 하여 읽어보십시오.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대로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여성들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외 방문자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사회를 보는 잭슨 자매님과 말씀을 하신 독서 자매님 그리고 책 자매님은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분들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상호부조회, 청녀 및 초등학교의 보좌들이신 조이 이반스 자매, 제인 델런, 그리고 루스 라이트 자매님들 또한 영적인 여성들이며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단상 위에 계신 초등학교, 청녀 및 상호부조회 역원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심없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분들도 여러분처럼 꿈을 갖고, 걱정하기도 하며 성장한 여성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공적인 봉사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바바라 윈더 상호부조회 회장과 아데스 지킵 청녀

회장은 진실로 영웅입니다. 캡 자매님은 어릴 때에 여러분처럼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높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윈더 자매님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 부모님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성전에서 인봉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나 마찬가지로 캡 자매님과 윈더 자매님도 여전히 걱정하기도 하며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메시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순종한다면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분들은 구세주와 예언자를 따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계획을 따르려고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꿈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평범한 여성이지만 장차 행하게 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비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바라 자매님과 아데스 자매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모범이 되십니다.

소녀 여러분은 이 여성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는 훌륭한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할머니, 언니, 아주머니, 지도자 및 선생님들 또한 좋은 모범이 되며 여러분에게 많은 선한 일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세주를 따르며 여러분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훌륭한 합창단으로부터 곧 들게 될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그분의 아들같이 살라 하시네”

음식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같이 생활하며 주님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일요일 오후 모임

하나님을 찬양하여

고든 비 히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함께 앉아 그분의 영원하신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이 훌륭한 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개회 모임에서 몬슨 부대관장에게 그분을 대신하여 아름답고 포괄적이며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모임에서는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4일 이 태버내클에서 벤슨 대관장님의 90회 생일 축하 모임을 상대하게 가졌으며, 그 모임은 국내의 모든 교회 및 몇몇 국의 지역에까지 방송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값지고 훌륭하며 경이로웠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수많은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매우 깊고 돈독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교회 회원 여러분을 어느 곳에

살든지 관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언자로서의 삶과 권능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받기를 바라시는 모든 사랑을 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관장님께서 위대하신 지도력과 헌신적인 봉사와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범 및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신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물론 청소년 합창단, 폴리네시안 합창단, 태버내클 합창단 및 그들의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아름답고 영적인 음악을 들려주신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신 이 위대한 태버내클 합창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창단은 교회의 한 기구가 되었으며, 국가의 한 고위 지도자가 표현했듯이 자랑스러운 국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며 훌륭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들의 노련한 인도와 지시를 받아 이 대륙 너머의 대해를 비추기 위해 사방으로부터 온 수많은 청중에게 매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으며 60년 동안을 그래왔습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바로 이 태버내클에서 60돌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는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으로서 6세대 동안 중단 없이 노래해 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가이든 혹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방송사상 그같은 예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공연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3,127회의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대한 공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합창단의 뿌리는 바로 이곳의 대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 무리의 합창대가 이 계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높혔던 때는 140년 이전이며, 맨처음 옛 바우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에서 곧바로 남쪽에 서 있던 구 태버내클 자리로 옮겨 갔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합창단은 그후 계속 이어졌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발전하였습니다. 합창단 여러분에게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를 위해 협력해 주신 시 직원 여러분과 봉사의 손길을 주신 상호부조회, 의사 및 교회 보건 기구 간호사 여러분 그리고 안내와 통역을 맡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회를 보도해 주신 언론 기관 및 국가 언론 기관 대표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 대회의 각 모임을 여러 나라에 중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신 여러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및 통신 시설과 인공위성 중계 시설 소유주, 그리고 해당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합창단이 “갤릭 축복”을 부른 후 칠십인 정원회의 맬콤 에스 잭슨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하심으로써 대회는 6개월 동안 휴회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을 위한 간구로써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솔한 말을 모두 금하며 모든 웃음 소리, 천박한 욕망,

교만, 경박한 마음 그리고 일체의 악한 행위를 그치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탐욕을 금하라.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

“계오르기를 그치라. 부정을 금하라.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라.…”

“무엇보다도 먼저 외투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라. 이는 완전한 평화의 끈이니라.

“내가 올 때까지 지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교성 88 : 121, 123~126)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함께 앉아 그분의 영원하신 진리를 들고 받아들인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교회 회원, 부모 및 교사가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것은 1989년 10월 반 연차 대회와 여성대회에서 말씀한 것으로써 1990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을 위한 것이다.

1990년도 엘시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연사
2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5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6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8	달린 에이치 옥스
10	마빈 제이 애쉬튼
11	조셉 비 위스런
12	빅터 엘 브라운; 헨리 비 아이어링
13	널 에이 맥스웰
14	보이드 케이 패커; 제임즈 이 파우스트
16	리차드 지 스코트; 던 엘 라슨
19	에즈라 태프트 벤슨
22	러셀 엠 넬슨
27	로버트 엘 백맨
29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1	엘 톨 페리; 엠 러셀 벨라드; 조 제이 크리스티슨; 벤자민 비 뱅크스
34	더블류 유진 헨슨
35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1990년도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영적인 생활	가정 및 가족 교육
1	데이비드 비 헤이트; 헨리 비 아이어링	엘레인 엘 잭
2	던 엘 라슨	
3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		러셀 엠 넬슨; 조안 비 독시
5	보이드 케이 패커;	

공과	자선 봉사 및 가정 관리	사회 관계
6	제임즈 이 파우스트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8		
9		
10	널 에이 맥스웰	
11	리차드 지 스코트	
16	빅터 엘 브라운	

공과	자선 봉사 및 가정 관리	사회 관계
2	달린 에이치 옥스; 에즈라 태프트 벤슨	
3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말린 케이 겐슨	
5	엠 러셀 벨라드; 벤자민 비 뱅크스;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8	더블류 유진 헨슨; 제인 비 델런	
9	로버트 엘 백맨	

1990년도

방문 교육 공과

1	7월 데이비드 비 헤이트; 헨리 비 아이어링
2	2월 데이비드 비 헤이트
3	3월 보이드 케이 패커; 제임즈 이 파우스트
4	4월 데이비드 비 헤이트; 던 엘 라슨
5	5월 연차 대회
6	6월 러셀 엠 넬슨; 조안 비 독시
7	7월 리차드 지 스코트
8	8월 말린 케이 겐슨
9	9월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달린 에이치 옥스; 말린 케이 겐슨
10	10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빅터 엘 브라운
11	11월 연차 대회
12	12월 던 엘 라슨

성도의 첫 연차 대회 보고인

1월호와 7월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들어 있지 않다.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다음, 방문 교사는 대관장단이 행한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하나를 그 달의 메시지로 사용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1990년 복음 교리반-구약전서

공과	연사
1	던 엘 라슨
2	제임즈 이 파우스트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5	러셀 엠 넬슨
7	리차드 지 스코트
9*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10	에즈라 태프트 벤슨; 벤자민 비 뱅크스
12	데이비드 비 헤이트
14	하워드 더블류 헌터; 더블류 유진 헨슨
16	빅터 엘 브라운; 조 제이 크리스티슨
17	러셀 엠 넬슨
20	로버트 엘 백맨
21	데이비드 비 헤이트
22	엠 러셀 벨라드
23	달린 에이치 옥스
24	보이드 케이 패커
25	말린 케이 겐슨
26	널 에이 맥스웰
27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28	엘 톨 페리
29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31	조셉 비 위스런
32	제프리 알 홀런드
38	마빈 제이 애쉬튼
41	러셀 엠 넬슨
42	헨리 비 아이어링
43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1990년도 초등협회

정의반 제과장

공과	연사
2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런
3	리차드 지 스코트
4	제프리 알 홀런드
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런
6	러셀 엠 넬슨
10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에프 아더 케이
13	보이드 케이 패커; 헨리 비 아이어링
14	말린 케이 겐슨
15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조셉 비 위스런
16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에프 아더 케이
19	제프리 알 홀런드; 더블류 유진 헨슨
23	제인 비 델런
26	리차드 지 스코트; 헨리 비 아이어링; 더블류 유진 헨슨
28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더블류 유진 헨슨
30	조셉 비 위스런
32	더블류 유진 헨슨
35	러셀 엠 넬슨
38	던 엘 라슨

- 3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헨리 비 아이어링; 말린 케이 겐슨
- 40 달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 41 제프리 알 홀런드
- 42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정의반 제2과정

공과	연사
2	하워드 더블류 헌터
7	리차드 지 스코트; 더블류 유진 헨슨
8	달린 에이치 옥스; 딘 엘 라슨
10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헨리 비 아이어링
12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4	보이드 케이 패커; 딘 엘 라슨
15	리차드 지 스코트; 말린 케이 겐슨
17	리차드 지 스코트
18	리차드 지 스코트; 딘 엘 라슨
19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21	제프리 알 홀런드
22	달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23	엘 톰 페리; 엠 러셀 벨라드; 조 제이 크리스틴슨
25	헨리 비 아이어링
27	조셉 비 위스린; 러셀 엠 넬슨
2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헨리 비 아이어링; 더블류 유진 헨슨
30	더블류 유진 헨슨; 제프리 알 홀런드
31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32	딘 엘 라슨
33	리차드 지 스코트; 딘 엘 라슨
34	조셉 비 위스린
35	더블류 유진 헨슨
36	조셉 비 위스린; 딘 엘 라슨; 말린 케이 겐슨
37	보이드 케이 패커; 닐 에이 맥스웰; 조셉 비 위스린
3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9	딘 엘 라슨
43	빅터 엘 브라운
45	제프리 알 홀런드

용기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	제프리 알 홀런드; 더블류 유진 헨슨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조셉 비 위스린; 제프리 알 홀런드
10	보이드 케이 패커; 헨리 비 아이어링
14	에즈라 태프트 벤슨; 엘 톰 페리; 엠 러셀 벨라드; 벤자민 비 뱅크스
15	더블류 유진 헨슨
17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19	달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2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말린 케이 겐슨
23	더블류 유진 헨슨
24	데이비드 비 헤이트
26	딘 엘 라슨

- 28 엠 러셀 벨라드
- 2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조셉 비 위스린; 말린 케이 겐슨
- 31 딘 엘 라슨
- 3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 33 달린 에이치 옥스; 딘 엘 라슨; 말린 케이 겐슨
- 34 보이드 케이 패커; 엠 러셀 벨라드;
달린 에이치 옥스
- 37 보이드 케이 패커; 헨리 비 아이어링
- 3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에프 아더 케이
- 39 에즈라 태프트 벤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존 소넨버그
- 40 달린 에이치 옥스; 딘 엘 라슨
- 41 보이드 케이 패커
- 42 달린 에이치 옥스;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 43 리차드 지 스코트; 딘 엘 라슨

용기반 제2과정

공과	연사
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제프리 알 홀런드
4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더블류 유진 헨슨
15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9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2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닐 에이 맥스웰
22	달린 에이치 옥스
23	달린 에이치 옥스
31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33	엠 러셀 벨라드
39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0	딘 엘 라슨
41	엠 러셀 벨라드; 달린 에이치 옥스
44	하워드 더블류 헌터; 달린 에이치 옥스
45	데이비드 비 헤이트
헨슨 대관장남에 대한 보충 공과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불꽃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	더블류 유진 헨슨; 제프리 알 홀런드; 제인 비 말린
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6	조셉 비 위스린; 존 소넨버그
7	에프 아더 케이
9	조셉 비 위스린; 존 소넨버그
10	조셉 비 위스린
11	엘 톰 페리; 딘 엘 라슨
14	조셉 비 위스린; 존 소넨버그
17	달린 에이치 옥스; 딘 엘 라슨; 빅터 엘 브라운

- 18 러셀 엠 넬슨
- 19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엘 톰 페리; 엠 러셀 벨라드
- 20 딘 엘 라슨; 헨리 비 아이어링
- 23 조셉 비 위스린; 제프리 알 홀런드;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 24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 2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말린 케이 겐슨
- 27 제인 비 말린
- 28 조셉 비 위스린
- 3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딘 엘 라슨
- 3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 35 닐 에이 맥스웰
- 36 하워드 더블류 헌터
- 37 에즈라 태프트 벤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빅터 엘 브라운
- 39 엘 톰 페리
- 4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에프 아더 케이
- 41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 42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 43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 44 데이비드 비 헤이트; 딘 엘 라슨;
제프리 알 홀런드
- 45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꼭꼬리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	제프리 알 홀런드; 더블류 유진 헨슨; 제인 비 말린
3	러셀 엠 넬슨
4	러셀 엠 넬슨
5	조셉 비 위스린; 존 소넨버그
6	러셀 엠 넬슨; 에프 아더 케이
7	러셀 엠 넬슨
10	닐 에이 맥스웰; 제인 비 말린
11	리차드 지 스코트; 딘 엘 라슨
17	러셀 엠 넬슨
18	엠 러셀 벨라드
19	딘 엘 라슨; 헨리 비 아이어링
21	빅터 엘 브라운
22	조셉 비 위스린; 제프리 알 홀런드;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23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24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말린 케이 겐슨
27	빅터 엘 브라운;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더블류 유진 헨슨
28	조셉 비 위스린
3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31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딘 엘 라슨
32	딘 엘 라슨
3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6	하워드 더블류 헌터
37	엘 톰 페리

38	에즈라 테프트 벤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빅터 엘 브라운
4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에프 아더 케이
41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2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헨리 비 아이어링
43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44	데이비드 비 헤이트; 딘 엘 라슨; 제프리 알 홀런드
45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피코리반 제2과정
불꽃반 제2과정
주일학교 제11반

공과	연사
2	딘 엘 라슨
4	에즈라 테프트 벤슨
5	엘 러셀 벨라드; 더블류 유진 헨슨
6	조셉 비 위스린; 말린 케이 켈슨
8	에즈라 테프트 벤슨; 존 소넨버그
10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14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에프 아더 케이
15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존 소넨버그
16	빅터 엘 브라운
17	조셉 비 위스린
18	보이드 케이 패커
19	닐 에이 맥스웰
20	델린 에이치 옥스; 딘 엘 라슨; 말린 케이 켈슨
22	델린 에이치 옥스; 리차드 지 스코트
23	리차드 지 스코트; 말린 케이 켈슨
26	조셉 비 위스린
27	하워드 더블류 헌터
2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러셀 엘 벨슨; 빅터 엘 브라운
2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0	하워드 더블류 헌터
31	조셉 비 위스린; 델린 에이치 옥스; 말린 케이 켈슨
32	조셉 비 위스린; 제인 비 멜린
33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4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35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36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헨리 비 아이어링; 더블류 유진 헨슨
39	데이비드 비 헤이트; 딘 엘 라슨; 제프리 알 홀런드
40	보이드 케이 패커
42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43	제임즈 이 파우스트
44	엘 톰 페리; 조셉 비 위스린; 딘 엘 라슨
45	데이비드 비 헤이트

주일학교 제12반

공과	연사
7	딘 엘 라슨
8	빅터 엘 브라운
14	하워드 더블류 헌터
15	러셀 엘 벨슨
16	마빈 제이 애쉬튼; 조셉 비 위스린
21	제임즈 이 파우스트
22	제임즈 이 파우스트
23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27	제프리 알 홀런드
31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3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주일학교 제13반

공과	연사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4	마빈 제이 애쉬튼
7	조셉 비 위스린
11	로버트 엘 백맨; 리차드 지 스코트
1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7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19	엘 톰 페리; 조셉 비 위스린
20	엘 톰 페리; 엘 러셀 벨라드; 조 제이 크리스티슨; 벤자민 비 뱅크스
21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22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딘 엘 라슨
24	엘 톰 페리; 엘 러셀 벨라드; 벤자민 비 뱅크스; 조 제이 크리스티슨
28	제프리 알 홀런드
29	마빈 제이 애쉬튼; 조셉 비 위스린; 조 제이 크리스티슨
36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더블류 유진 헨슨
37	빅터 엘 브라운
38	하워드 더블류 헌터
39	델린 에이치 옥스
42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연사
1	하워드 더블류 헌터
2	제임즈 이 파우스트
3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조 제이 크리스티슨
4	제임즈 이 파우스트
5	보이드 케이 패커
13	마빈 제이 애쉬튼
14	엘 러셀 벨라드; 벤자민 비 뱅크스; 조 제이 크리스티슨
15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6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24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26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더블류 유진 헨슨
28	에즈라 테프트 벤슨
29	엘 러셀 벨라드; 벤자민 비 뱅크스; 조 제이 크리스티슨
33	제인 비 멜린
34	리차드 지 스코트
37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38	델린 에이치 옥스
3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제인 비 멜린
4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주일학교 제15반

공과	연사
5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6	제프리 알 홀런드
7	데이비드 비 헤이트
8	하워드 더블류 헌터
14	마빈 제이 애쉬튼
15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로버트 엘 백맨
16	닐 에이 맥스웰; 말린 케이 켈슨; 헨리 비 아이어링
18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21	리차드 지 스코트
22	빅터 엘 브라운
23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델린 에이치 옥스
38	제임즈 이 파우스트
4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주일학교 제16반

공과	연사
2	하워드 더블류 헌터
5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9	리차드 지 스코트
10	보이드 케이 패커
12	제임즈 이 파우스트
13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0	데이비드 비 헤이트
22	빅터 엘 브라운
23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26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마빈 제이 애쉬튼
30	닐 에이 맥스웰; 말린 케이 켈슨; 헨리 비 아이어링
32	더블류 유진 헨슨
3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37	로버트 엘 백맨
38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40	빅터 엘 브라운
41	에즈라 테프트 벤슨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연사
1	제임즈 이 파우스트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런
4	딘 엘 라슨
7	리차드 지 스코트
8	데이비드 비 헤이트
9	데이비드 비 헤이트
12	보이드 케이 패커
15	딘 엘 라슨
18	조셉 비 위스런
21	더블류 유진 켈슨; 제인 비 델런
23	로버트 엘 백맨
24	로버트 엘 백맨
25	빅터 엘 브라운
26	러셀 엠 넬슨
33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마빈 제이 애쉬튼
35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39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4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42	헨리 비 아이어링; 밀린 케이 켈슨
43	마빈 제이 애쉬튼

꿀벌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	앨레인 엘 켈
2	데이비드 비 헤이트;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3	보이드 케이 패커
5	러셀 엠 넬슨
6	고든 비 힝클리(여성 대회); 러셀 엠 넬슨
7	조안 비 독시
14	조안 비 독시
15	빅터 엘 브라운
22	하워드 더블류 헌터; 미셸린 피 그래스리
24	델린 에이치 옥스
2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엘 톰 페리
2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말린 케이 켈슨
29	로버트 엘 백맨
32	보이드 케이 패커; 제임즈 이 파우스트
34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36	앨레인 엘 켈
37	엘 톰 페리; 제인 비 델런
38	하워드 더블류 헌터; 딘 엘 라슨
39	더블류 유진 켈슨
40	더블류 유진 켈슨
42	고든 비 힝클리(여성 대회)
44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델린 에이치 옥스
45	조셉 비 위스런; 벤자민 비 뱅크스

장미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	데이비드 비 헤이트
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4	보이드 케이 패커
6	조안 비 독시
7	러셀 엠 넬슨
8	에즈라 태프트 벤슨
9	에즈라 태프트 벤슨; 빅터 엘 브라운
12	고든 비 힝클리; 닐 에이 맥스웰
14	델린 에이치 옥스; 조안 비 독시
17	고든 비 힝클리; 제인 비 델런
18	엘 톰 페리; 제인 비 델런
21	제임즈 이 파우스트; 리차드 지 스코트
23	데이비드 비 헤이트; 딘 엘 라슨
24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5	조셉 비 위스런; 미셸린 비 그래스리
2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제인 비 델런
29	닐 에이 맥스웰
31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엘 톰 페리
32	조셉 비 위스런
33	닐 에이 맥스웰
34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36	앨레인 엘 켈
37	마빈 제이 애쉬튼
38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말린 케이 켈슨
39	빅터 엘 브라운
41	고든 비 힝클리(여성 대회)

월계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프리 알 홀런드
3	말린 케이 켈슨; 미셸린 피 그래스리
4	고든 비 힝클리(여성 대회); 러셀 엠 넬슨
19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0	엘 톰 페리; 엘 러셀 벨라드
22	러셀 엠 넬슨
23	닐 에이 맥스웰;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24	하워드 더블류 헌터
25	보이드 케이 패커
28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29	더블류 유진 켈슨
31	델린 에이치 옥스; 빅터 엘 브라운
36	로버트 엘 백맨
37	고든 비 힝클리(여성 대회); 러셀 엠 넬슨
39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41	고든 비 힝클리(여성 대회); 러셀 엠 넬슨; 앨레인 엘 켈
42	더블류 유진 켈슨
45	엘 톰 페리
46	조셉 비 위스런
49	제프리 알 홀런드; 빅터 엘 브라운

복지 사업

주제	연사
소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사 랑	더블류 유진 켈슨
감 사	헨리 비 아이어링(신권 모임)
자선봉사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빅터 엘 브라운

복지에 관한 특별한 주제와 연관된 대회
말씀은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역원들이
복지 원리와 정책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